

3-7-2019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에서 건강한 기독교 가정 세우기: 서울 에덴교회를 중심으로

Won Hur 허원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a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허원,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에서 건강한 기독교 가정 세우기: 서울 에덴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플러신학대학원, 2019.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Dissertation Approval Sheet

This Dissertation entitled

**BUILDING HEALTHY CHRISTIAN FAMILIES AT
A TRADITIONAL KOREAN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EDEN PRESBYTERIAN CHURCH**

written by

WON HUR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Ohgweon Paul Kwon

Yong Hwan Kim

Yong Hwan Kim



Euiwan Cho

March 7, 2019

**BUILDING HEALTHY CHRISTIAN FAMILIES AT
A TRADITIONAL KOREAN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EDEN PRESBYTERIAN CHURCH**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WON HUR

MARCH 2019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에서
건강한 기독교 가정 세우기
- 서울 에덴교회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권 오 균 박사

허 원

2019년 3월

Abstract

Building Healthy Christian Families at a Traditional Korean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EDEN Presbyterian Church

Won Hur

Doctor of Ministry

2019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nce the Korean church's rapid growth in the twentieth century, it has more recently become stuck to traditional growth methods and values, unable to keep up with the comprehensive and rapid changes in Korean society. Families and young people have left the church because of its ministry focus on the middle aged. To correct this problem, churches must focus on raising healthy Christian families with a Christian worldview. This study seeks to uphold faith educ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and recovery of families to energize the Korean church for renewal and for changing the world.

Chapter 1, the introduction, spells out the research motive, purpose, method, scope, and significance. Chapter 2 surveys secular and biblical definitions of the family in order to discover God's original meaning and purpose for the healthy family. Chapter 3 addresses the foundation for building up healthy families; it examines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ccording to biblical relationships, noting that the majority of families in the Korean church are unable to practice this kind of healthy communication at this time. Chapter 4 studies the context of traditional Korean churches—churches that have accomplished unprecedented explosive growth but then negatively settled for the glory of their past—as well as the church's younger generation who are leaving the church hurt by such settings.

Chapter 5 describes the history and the pastoral ministry vitalization strategy of EDEN Church designed to change it from a traditional church to a healthy one. Chapter 6 examines EDEN Church's process and specific ways of recovering and healing families through worship and the Word and connecting families to the church. The conclusion, chapter 7, summarizes the

findings and makes proposals for future research directions and for the Korean church. May the efforts to build up healthy families within the church bring recovery and healing to families, return the younger generation to the church, and allow the church to exercise its appropriate influence in the world.

Theological Mentors: Ohgueon Paul Kwon, PhD

Yong Hwan Kim, PhD

Euiwan Cho, PhD

헌 사

평생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부모님과 손주를 위해 평생을 기도하신 故 박노복
권사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감사의 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참 많이도 부족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 헌신, 노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자녀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아버지 허기선 장로님, 어머니 김옥주 권사님, 장인어른 박종선 장로님, 장모님 박영자 권사님과 사랑하는 동생 두리와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것이 일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의 가치를 알게 해주신 엄예선 교수님과 본 연구를 지도해주신 주심 권오균 박사님과 부심 김용환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서툴렀던 목회초년생 시절, 목회의 실제와 가정사역의 중요성을 가르쳐주시고, 유학의 길을 함께 고민하고, 본 연구를 진행하도록 지도해 주신 곽성덕 목사님과 최정숙 사모님 그리고 에덴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외로운 미국생활이었지만,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준 KDMin 오피스의 조의완 교수님, 신웅길 교수님, 김성희 전도사님, 김수나 간사님과 코리안센타의 김창환 교수님과 모든 교수님, 스텝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풀러에서 만나고 함께 교제한 평생의 좋은 동역자가 될 모든 목사님과 가정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이 평생에 다시 오지 않을 참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열정으로 도전을 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격려해주시는 신용환 목사님과 신현아 사모님과 나성한미교회 동역자들, 그리고 나성한미교회 교우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곁에서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랑하는 아내 박상미 사모와 멋진 아들 온유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 가정이 먼저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는 남편, 아빠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2019년 3월 허원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5
제 2 장 가정에 대한 고찰	8
제 1 절 가정에 대한 일반적 이해	8
1. 가정의 정의	8
2. 가정의 목적	10
3. 가정의 기능	11
제 2 절 가정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12
1. 가정에 대한 성경적 이해	13
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가정에 대한 이해	13
나. 신약 성경에 나타난 가정에 대한 이해	16
2. 가정에 대한 기독교적 정의	19
3. 기독교 가정의 목적	21
제 3 절 건강한 가정의 특징	22
제 4 절 가정에 대한 고찰 요약	24
제 3 장 성경이 말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25
제 1 절 구약이 말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25
1. 사랑과 징계를 통한 자녀 양육	26
2. 교육을 통한 자녀 양육	27
제 2 절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	29
제 3 절 신약의 바울의 가르침에 따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	30

제4절 요약 :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중요성	32
제4장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에 대한 이해	35
제1절 전통적인 교회의 개념과 성장 요인	35
1. 전통적인 교회의 개념	35
2.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조화	36
3. 한국의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 주어진 소망	36
4.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의 강력한 지도력과 헌신	38
5. 충성과 열정의 영성	40
6.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의 성장 요인 요약	41
제2절 전통적인 교회의 부정적인 요인	42
1. 생명력을 상실한 예배	42
2. 삶 속의 실천에 대한 무관심	44
3. 경직된 교회 조직	46
4. 다음세대의 이탈	48
5. 급변하는 현실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49
6. 신앙의 역동성의 저하	51
7. 사회 속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53
8. 한국의 전통적 교회의 부정적 요인들 요약	55
제5장 에덴교회의 역사와 현재 및 1기 목회활성화전략	57
제1절 에덴교회의 주변지역의 분석	57
1. 서울시 관악구의 위치와 역사	58
2. 관악구의 지리적 특성	58
가. 관악구의 지리적 특성	58

나. 젊은 인구 밀집지역	59
다. 매년 전출입 인구와 유동인구가 높은 지역	60
라. 관악 지역에 대한 자부심 부족	60
3. 관악구의 인구 분포와 종교적 현황 (특징)	61
4. 관악구의 미래전망	62
제2 절 에덴교회의 역사와 1기 목회활성화 전략	63
1. 에덴교회의 설립 동기와 교회설립 초기의 사건들	64
가. 교회 설립 동기	64
나. 교회설립초기 사역들	64
다. 교회 분립	65
2.1 대 위임목사 사역시기 (윤낙중 목사: 1977년 9월-2006년 2월)	66
가. 1대 위임목사 윤낙중 목사 부임	66
나. 목회의 위기와 극복	66
다. 1대 위임목사 윤낙중 목사의 사역과 평가	68
3.2 대 위임목사 광성덕 목사 부임과 목회활성화 준비 (2006년 2월-2006년 12월)	69
가. 교회의 어려움과 목회 활성화 요구	69
나. 광성덕 목사 부임 후 목회활성화 전략 시도	71
(1) 청빙과정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71
(2) 교회활성화를 위한 준비	72
(3) 목회철학과 비전 수립	74
(가) 에덴교회의 비전 세우기	74
4. 광성덕 목사 사역 1기와 목회 활성화 전략 (2007년 1월-2010년 12월)	78
가. 새 생활영성훈련	79
(1) 미인대칭 캠페인	79
(2) 내적치유	80

(3) 긍정적인 사고와 언어훈련	80
(4)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교육	81
나. 현대적 감각의 교회건물 리모델링	81
다. 역동적이고 차별화 된 예배와 기도훈련	82
(1) 영감 있고 차별화 된 예배의 활성화	82
(2) 기도훈련의 활성화	83
라.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양육과 말씀 훈련	85
마. 평신도 중심 사역개발	87
바. 소그룹 활성화 및 남성과 젊은 부부 소그룹 신설	88
5. 광성덕 목사 사역 1기 평가와 과제들	90
가. 광성덕 목사 사역 1기 평가	90
나. 광성덕 목사 사역 2기의 도전과 과제들	91
제 6 장 에덴교회 2기 목회활성화전략 : 믿음의 가정 세우기 시도	94
제 1 절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94
1. 세대 간의 단절 된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	94
2. 청소년부 대예배 함께 드리는 주일	96
가. 청소년부 상황과 고민	96
나. 미인대칭 운동과 어른들에게 인사하기 캠페인	96
다. 에덴교회 비전 공유	97
라. 대 예배 함께 드리는 주일	98
3.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100
4. 다른 교회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현황	103
가. 국수교회(김일현 담임목사) 세대통합예배	103
나. 수원 동원교회(이종문 담임목사)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104

다. 나성한미교회(신용환 담임목사) 패밀리위십(Family Worship)	104
5. 세대통합예배의 평가	105
제 2 절 쉼마교육	107
1. 유대인들의 신앙경건 훈련	108
2. 한국 교회학교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10
가. 교회학교의 시작	111
나. 교회학교 공과 내용	112
다. 교회학교의 문제점	112
3. 주일 쉼마교육	113
가. 온 가족이 함께 듣는 주일 쉼마말씀	114
나. 균형 잡힌 성경교육 커리큘럼	117
다. 성경말씀암송	121
라. 질문과 대답, 토론하는 분반공부	123
4. 토요일가정쉼마교육	124
가. 아이들의 실제적인 고민을 나눌 교육의 장 필요	124
나. 토요일가정쉼마학당의 준비와 시작	124
다. 토요일가정쉼마학당의 실제	125
라. 토요일가정쉼마학당의 구성	126
마. 토요일가정쉼마학당과 부모와 함께하는 활동들	131
5. 다른 교회 토요일가정쉼마학당 현황	131
가. 수원 동원교회	132
나. 인천 계산교회	132
제 3 절 믿음의 가정세우기 사역 평가	133
1. 가정에 일어난 변화	133
2. 교회에 일어난 변화	137

가. 교회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137
나. 교회안의 역동적인 분위기 전환효과	137
다. 건강한 가정 세우기 사역의 중요성 인식	138
라. 건강한 가정 세우기 사역의 한계와 나아갈 길	139
제 7 장 결론	141
제 1 절 논문의 요약	141
참고문헌	145
Vita	152

표 목 차

<표 1> 관악구에 대한 SWOT 분석	62
<표 2> 에덴교회 양육훈련체계	87
<표 3> 에덴교회 주일예배 성인 출석 현황 및 세례자 수 (2005-2008)	90
<표 4> 에덴교회 청소년부 대예배 참석과 청년부 정착률	100
<표 5> 에덴교회 매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참석 가정수	106
<표 6> 2014년 12월 에덴교회 장년부 및 주일학교 설교제목과 본문	115
<표 7> 주일쉐마교육 커리큘럼	118
<표 8> 성경말씀 암송 150 구절 중 일부	122
<표 9> 토요일쉐마학당 교재의 내용	128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한국교회는 복음이 처음 소개된 지 120 여 년 만에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성장을 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복음의 불모지였던, 한국의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들의 열정과 노력, 헌신, 그리고 많은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한국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교회성장’이라는 목표를 놓고 앞만 보고 힘차게 달려온 결과, 오늘날과 같은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했고, 이를 세계교회가 주목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큰 몫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늘도 있었다.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 많은 것을 기여하였지만, 혹자가 “한국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가운데 성장했지만 그 불길에 데인 곳이 가정이다”라는 의미 있는 지적을 했듯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한 뒷면에는 성장과 실적을 강조하다 보니, 가정을 돌보고 교회와 가정이 함께 성장하는 부분에서는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우리나라는 1960 년대 이후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지나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사회 구조가 격변하였고, 현대인들의 가치관, 세계관 및 인생관 등이 급속하게 변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의 가치 방식 등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급속한 변화 가운데 한국의 가정들도 급속히 변했다. 한국의 가정은 전통적으로 농경문화에 뿌리를 둔 “대가족 구조”를 가졌으나, 짧은 기간에 사회구조가 서구화 내지는 현대화되면서 가정구조 또한 “핵가족화” 되었다. 또한 노인들에 대한 사회보장제

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채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자, 노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가 대두 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며, 결혼가정의 증가, 다문화가정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가정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고, 그 연장선에 있는 청소년의 탈선 문제는 그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되었다.

이처럼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은 대부분 가정의 문제와 직결이 되는 문제이고, 이 문제는 교회 밖의 가정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가정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런 문제들은 한국교회가 끌어안아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지만, 전통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교회는 문제해결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이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안의 가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문제는 세대 간의 갈등, 30, 40 대의 젊은 세대의 교회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세대 간의 갈등, 젊은 세대의 교회 이탈을 방지하고, 산적한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에서 말씀과 기독교 가치관에 바탕을 둔 건강한 가정들을 세워가고, 가정 안에서 젊은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신앙 경건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안에 있는 가정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선교 초창기에 선교사들은 유교 문화 배경에서 장년층에 대한 전도가 쉽지 않았고, 이에 부녀자와 어린아이를 최우선 전도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많았던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고, 교회는 먼저 믿었던 어른들을 교회학교 교사로 세워서 교회로 모여든 아이들을 교육하게 되었다.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였던 농경사회와 유교 문화의 배경과 교회학교는 잘 맞아서, 교회학교의 부흥기가 찾아왔고, 교회학교의 부흥은 한국기독교 역사의 발전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교회학교의 부흥기가 찾아왔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의 사역 열정과 방향은 장년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 있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교회학교에 다니는 것 만으로도 신앙의 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였고, 장년 위주의 사명과, 선교, 교회의 발전에만 교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다.

그 결과 교회 안의 다음 세대의 교육은 사회의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정체되기 시작하였고, 여전히 낙후된 시설과 진부한 체제로 학생을 모으고 있고, 교육전도사로 대표되는 초보 사역자들의 개인 역량에 의존하고, 이전의 교회학교운영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변화와 발전 없이 과거의 모습에 정체되어 있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열악한 현실과 사회와 문화의 발달로 인한 대중매체와 컴퓨터 게임 등 관심거리가 증가하였고, 젊은 인구의 감소, 입시 위주 교육의 영향, 주일 5 일 근무로 인한 가족 나들이 등은 젊은 세대가 교회로부터 이탈하는 속도를 더욱더 빠르게 만들었다.

또한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가치관의 혼돈과 도덕적 무질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가정의 붕괴를 가져오게 하였다. 가치관의 혼돈과 도덕적 무질서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였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와 교회학교 교사들의 권위도 함께 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세상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기독교 가정들도, 가치관의 혼돈과 도덕적 무질서 속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이러한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 안과 밖의 가정들이 많은 문제를 겪고 있고, 그런 문제 속에서 가정이 붕괴가 되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쉽게 떠나는 현실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였다. 원인과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의 사역 방향과 중점이 가정과 젊은 세대에 있기보다는, 교회의 성장과 장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그나마 가정의 사역의 대부분은 부부관계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건강한 기독교 가정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부관계에 집중되어 있는 가정사역의 한계를 벗어나, 성인 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미래의 교회를 책임질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교회와 가정이 협력하여야 한다. 교회 안에서 먼저 건강한 기독교 가정들이 세워진다면,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 지고, 젊은 세대의 교회 이탈을 막고,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회복된 젊은 세대와 건강하게 세워진 가정들이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외에도 점점 쇠퇴하고 있는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들이 다시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필자가 섬겼던 서울 에덴교회를 중심으로 연구해 나갈 것이다. 에덴교회는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한지 47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적인 교회이면서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다. 에덴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시 관악구는 개방적이고 많은 젊은 유동인구가 있고, 유행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지역이며, 이런 지역적 배경에 따라 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과거의 기억과 전통에 얽매어 있어서,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고착화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에덴교회가 위치한 관악구 지역은 서울대학교 및 여러 대학교가 주변에 자리 잡고 있고, 고시촌의 형성으로 인해서, 관악구의 전체 평균연령이 33.5 세가 될 정도로 젊은이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젊은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에덴교회 주변은 지하철 2 호선 서울대입구역, 7 호선 송실대입구역, 그리고 남부순환도로가 지나는 지역으로 하루의 유동인구가 60 만 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지역이다. 그리고 관악구 지역은 전통적으로 다른 지역들보다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높기에, 주변에 중·대형 크기의 교회들이 밀집된 지역이기도 하다.

이처럼 젊은 인구가 많고, 하루에 60 만이나 되는 유동인구, 복음에 대한 수용성 등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성장하기에는 매우 좋은 여건을 지닌 교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덴교회의 성장은 정체되어 있고, 젊은 인구가 많은 지역이지만, 교회 안에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신앙의 단절과, 젊은 세대는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는 점점 고령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렇게 성장이 정체되었던 전통적인 교회에 젊고 열정적인 담임 목회자가 부임하면서

교회의 갱신과 성장,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고민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고민은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는 문제일 것이다.

앞으로의 한국교회의 운명은 젊은 세대에 달려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자명한 사실이다.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미 떠나 있는 젊은 세대를 교회로 돌아오게 할 큰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시절 한국교회는 교회의 성장을 고민하면서 열린 예배 등을 통해서 불신자들과 함께하려는 노력을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노력 외에도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기성세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기성세대의 노력과 젊은 세대의 회복이 없다면, 한국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유럽의 수많은 교회의 전철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¹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의 열정과 초점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의 방향은 가정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과 교회의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² 다음세대를 위한 기성세대의 노력과, 이를 통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의 노력이 있을 때, 급변하는 미래 사회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동력을 얻게 되고, 지속적인 성장과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교회와 가정들에 주어진 과제가 본 논문의 연구가 될 것이다. 교회와 가정에서 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공동체로서, 가정의 역할이 회복되고, 그 기능을 다 할 것인가?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 될 것이다.

제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주제에 맞는 문헌을 연구의 자료로 삼았고, 문헌연구를 통해 건

1) 설동주, *네 자녀 내가 가르쳐라* (서울: 웨마학당연구원, 2013), 41.

2) 김선일, “지속가능한 신앙 형성을 위한 교회의 역할,” *목회와 신학*, 2016년 4월호, 53.

강한 가정의 기초와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 후, 전통적인 한국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에덴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전통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문제점을 도출한 후에, 전통적인 한국교회 안에서 건강한 기독교 가정을 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성장이 멈추고 정체되어 있는 전통적인 한국교회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필자는 본 연구에서 가정에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 믿음의 계보를 이어 나가며 건강한 기독교 가정을 세우는 것을 전통적인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의 한 방안이라고 보고, 이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대안으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살펴보고, 건강한 기독교 가정을 세우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건강한 기독교 가정을 세우려는 노력을 통해서 전통적인 사고에 매여 있는 한국교회들이 갱신되어지고, 이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몸 된 교회들이 되는 것을 기대하며 연구를 하려고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모델로 신명기 6 장의 말씀을 근거로 한 유대인들의 교육방법에서 찾았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구약에 제시된 쉰마 말씀(신명기 6 장)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직접 시키고 있고,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성공한 가정교육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건강한 기독교 가정을 위한 신앙교육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유대인들의 신앙교육 모델을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 안의 기독교 가정의 구체적인 신앙교육의 실천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한 전통적인 한국교회를 선정하여 그곳에서 건강한 기독교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행했던 목회의 방법과 노력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그 한 모델로 서울의 에덴교회를 선택하였다. 그 이유로 에덴교회는 47 년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시 안에서도 젊은 인구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정작 교회 안에는 젊은 세대가 많지 않고, 점점 성도들이 고령화 되어가고,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통적인 한국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건강한 기독교 가정을 세우기 위한 단계별 목회전략을 준비하고 시행하였기에 연구

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1 장에서는 서론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인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들의 문제점과 건강한 기독교 가정을 세우는 일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고 본 논문의 연구 방법 및 범위에 대해서 알아본다.

2 장에서는 건강한 기독교 가정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가정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기독교적 이해를 살펴보고, 기독교 가정의 특징과 목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 장에서는 건강한 기독교 가정을 세우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기독교 가정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4 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한국전통교회의 개념과 성장요인 및 전통적인 교회의 부정적인 요인을 살펴보고, 전통적인 교회에서 가정의 문제가 생기는 원인을 진단해 보고, 건강한 기독교 가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도출해 낼 것이다.

5 장에서는 전형적인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에덴교회의 목회상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인 에덴교회에서 목회 활성화와 건강한 기독교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2대 위임 목사인 광성덕 목사를 중심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했던 목회 활성화 전략과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평가할 것이다.

6 장에서는 에덴교회에서 목회 활성화 전략을 통해, 목회 활성화의 기본 작업을 하고, 목회 활성화의 다음 단계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한 가정 세우기를 위한 사역의 내용을 살펴보고 분석할 것이며, 비슷한 사역을 하는 다른 교회들의 사례와 비교, 분석할 것이다.

7 장에서는 본 논문을 요약하며, 앞으로 한국전통교회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지속해서 연구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제언할 것이다.

제 2 장 가정에 대한 고찰

본 장에서는 가정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우선 가정에 대한 일반적이고 사회학적인 접근과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이 무엇인지, 가정의 목적은 무엇인지, 가정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로 가정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통해 가정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로 건강한 가정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제 1 절 가정에 대한 일반적 이해

본 절에서는 가정이 무엇인지, 가정이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가정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가정에 대한 일반적이고, 사회학적인 접근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가정의 정의

가정의 정의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점으로는 세대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결혼, 혈연, 입양 등 구조를 중심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가족을 세대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는 Terkelsen(198 : 23)은 “가족이란 상호 간의 강한 애정과 충성으로 연결된 개개인으로서 이루어진 작은 사회체계이며, 수년 동안,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지속하는 영구적인 가구 혹은 가구의 집합으로 구성된다”라고 가족을 정의한다.³ 이로써 가족을 세대 간의 관계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옥선화와 정민자는 “민법의 친족편 779 조에 의하면 가족은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 법에 의하여 그 가(家)에 입적한 자가 가족이 된다.”⁴라고 가족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효재는 “가족은 사회 조직의 가장 원초적 집단으로

3) 엄예선,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14.

4) 옥선자, 정민자, *결혼과 가족* (서울: 하우, 1992), 21.

서 개인이 나서 자라며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보금자리이며, 가족 공동체 속에서 사회적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훈련장⁵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Kramer 는 가족의 정의를 내릴 때 상호 관계와 친밀성, 공동 거주, 역할 수행 등 가족의 특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가족은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상호 연결된 교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집단이다. 가족원들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흔히 혈통, 법적인 결혼이라는 끈, 입양, 혹은 동거생활 등을 통해 서로 묶여 있다. 강한 심리적인 연결 끝과 지속적인 정서적 투자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할 때는 언제나 가족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⁶

지난 1990 년대 초순까지만 해도 한국교회가 급속한 성장세를 이 어갔었다.⁷ 그러나 1990 년대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한국교회는 정 체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성장이 감소하는 현실에 처하 게 되었다.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공동체성의 약화를 들 수 있다.

가정과 가족의 정의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이효재는 “가정은 가족이 의식주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집안으로서 온정이나 사랑에 기반을 둔 정서적 유대와 서로 소속감을 느끼는 연대 의식을 가진 공동체이며, 상식적인 차원에서 가족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낱말이며, 공동체를 영위하는 집 울안이라는 공간적 의미”⁸로 말하며, 박민자는 “가족은 울안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며, 가정이라는 단어보다 관계적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⁹라고 말한다.

또한 가구의 정의에 대해 말할 때, 옥선화와 정민자는 “가구는 1 인 또는 2 인 이상이

5) 이효재, *가족과 사회* (서울: 경문사, 1983), 3.

6) C. H. Kramer, *Becoming a Family Therapist* (New York: Human Sciences Press, 1980), 43-44.

7) 참조. 국민일보, 2003 년 4 월 21 일자.

8) 이효재, *가족과 사회*, 6-7.

9) 박민자, *가족과 한국 사회: 가족의 개념정의,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서울: 경문사, 1995), 3.

모여서 취사, 취침 및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¹⁰라고 말하며, 박민자는 “가구는 주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또는 독신으로서 주거를 갖고 단독생활을 하는 자를 포함하는데, 여기에는 혼인관계, 출생관계, 혈연관계는 고려되지 않고 경제적인 협력과 주거공간을 의미한다.”¹¹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호재의 정의에 따라 가정과 가족을 동의어로 이해하되, 가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가족이란 구성원들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정이란 가족이라는 관계를 포함하여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전체공동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토대로 가정에 대해 정의하자면 가정이란 결혼, 혈연, 입양을 통해 맺어진 친밀한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집단이며, 상호 거주, 상호 협조, 상호 교류, 상호 역할 이행을 하는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2. 가정의 목적

이제 가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가정의 목적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가정의 목적과 현대적 의미에서의 가정의 목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목적에 대해 말하고자 할 때, 한국 가정은 유교의 영향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가족들은 과거 선조로부터 현재 가족과 가문,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까지의 유지, 번성을 지속하는 것이 가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가정생활과 가족관계에서는 철저히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가족 구조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대석은 이러한 가족과 가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를 통해 조상들을 잘 섬김으로써 조상들의 축복을 받는 일, 가족 경제를 유지하고 번영시키는 일, 아들의 출산을 통해 대를 잇는 일, 그리고 부모를 잘 봉양하는 일들이 필수 과제들이었다.”¹²라고 말했다.

반면에 현대적 의미에서의 가정의 목적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행복이라고 말

10) 옥선화, 정민자, *결혼과 가족*, 21.

11) 박민자, *가족과 한국사회*, 3.

12) 최재석, *한국 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1982), 212.

할 수 있다. 개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려면 가부장적 가족 관계가 아니라 부부관계로부터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 문숙재, 최혜경, 정순희는 “많은 현대 한국인들은 서구적 가족주의 영향을 받아서 전통적인 제도적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서 우애적 가족 개념을 추구하고 있으며, 전통 가족의 목적이었던 가문의 대를 잇는 것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더 중요한 가족의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다.”¹³라고 말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토대로 필자는 가정의 존재 목적이 유교적 영향으로 인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고로 가족과 가문을 유지, 번영, 지속하는 목적에서 부부간의 평등한 관계와 동등성과 가족 구성원들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개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수정, 발전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의 많은 가정이 아버지라는 남자를 중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부자 관계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가부장적 구조로 존재하고 기능해 왔기에 그 외 구성원들의 자유와 행복은 도외시되었고, 가족 전체의 상호 협조, 상호 공유, 상호 교류, 상호 역할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상호성과 친밀성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로서의 가족의 본질적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3. 가정의 기능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정은, 결혼, 혈연, 입양을 통해 맺어진 친밀한 관계로 이루어진 최소 단위의 사회집단이다. 따라서 가정의 기능에 대해 말하고자 할 때, 생물학적 조건에 따라 자녀 출산과 양육이 이루어지며, 각기 맡은 위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며, 구성원들이 상호 거주하고 상호 작용함으로 그들에게 사회성을 개발해 주며, 상호 소통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정서적 친밀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유영주는 가족에게 요구되거나 기대되는 기본 과업을 물질적 부양, 자원의 분배, 노동의 분배, 가족원의 사회화, 가족원의 재생산과 원기 회복과 휴식, 질서의 유지, 전체 사회에 대한

13) 문숙재, 최혜경, 정순희, *현대사회와 가정* (서울: 교문사, 2001), 57.

자신의 위치 확인, 개인의 사기와 동기 유지¹⁴라고 말한다,

설은주는 가정의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¹⁵

첫째, 자녀출산과 양육의 기능이다. 가족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 둘째, 정서적 지지 기능이다. 인간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소속감을 느끼고 애정을 주고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가정 안에서의 정서적 지원은 회복과 새로운 활력을 갖게 해준다. 셋째, 사회화 교육의 기능이다. 가정 내에서 구성원 간에 상호작용, 상대방의 기대와 반응, 모방 등을 통해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역할과 의사소통 능력, 가치관과 윤리 등을 습득할 수 있게 해 준다. 넷째, 성애의 기능이다. 이는 부부관계에서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적으로는 성적 통제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경제적 기능이다. 가족은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얻고 생활 자원을 얻는 경제적 기능을 한다. 여섯째로, 사회 안정의 기능이다. 가정이 사회 구성의 기본단위이기에 가족의 건전한 성장이 사회 안정과 사회발전의 기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종교적 기능이다. 가족이 함께 살아나면서 삶의 진리를 터득하며 종교적 생활 태도를 가짐으로 신앙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해준다.

앞서 살펴본 학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가정의 기능을 정리하자면 첫째로, 성생활과 자녀출산의 기능, 둘째로, 경제적 기능, 셋째로, 자녀 양육과 보호의 기능, 넷째로, 사회화 교육의 기능, 다섯째로 정서적 교류와 소통의 기능, 여섯째로, 안식의 기능, 일곱째로, 종교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제2 절 가정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앞 절에서는 가정에 대해 일반적이고 사회학적인 이해를 살펴보았다. 이제 본 절에서는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가정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

14) 유영주 외, *가족 발달학* (서울: 교문사, 1996), 63-67.

15) 설은주, *가정사역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0), 103-106.

봄으로 가정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1. 가정에 대한 성경적 이해

가. 구약성경에 나타난 가정에 대한 이해

우선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가정에 대한 관점을 말하고자 한다. 창세기 2 장 22-25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¹⁶

창세기의 말씀은 결혼과 가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말씀한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두 사람의 떠남과 만남, 연합을 통해 결혼이라는 제도를 제정하셨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정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한다. 또한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 일부일처제를 말씀한다.

셀은주는 “결혼과 가정은 창조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창시하신 것이며, 남녀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독립해서 애정과 책임감을 수반한 인격적, 육체적 연합을 이룸으로써 형성되는 제도이다.”¹⁷라고 말한다. 또한 Sell 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기본 형태는 핵가족이며, 그 핵가족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둔다.”¹⁸라고 말한다.

구약성경 잠언 18 장 22 절에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

16) 이하의 모든 성경 번역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한글 개역개정 성경을 따른다.

17) 셀은주, *가정사역론*, 25.

18) Charles M. Sell, *가정사역 (Family Ministry)*, 정동섭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114.

니라”, 잠언 19 장 14 절에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나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라고 하심으로 결혼과 가정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주신 축복의 관계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을 말씀한다.

출애굽기 20 장 14 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레위기 18 장 20 절에는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하므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신명기 22 장 22-24 절에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라고 하심으로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과 신실성에 대해서는 강조하면서 결혼과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행해지는 간음에 대해서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함으로 하나님은 가정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으심을 알 수 있다.

창세기 1 장 27-28 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고 하심으로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차이가 있으며, 남자와 여자가 ‘성(sex)’을 통해 연합하고 번성하도록 했다고 말씀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동등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셔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남자와 여자에게 동등한 존재로 지으셔서 동등한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¹⁹

따라서 창세기 2 장 24 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라는 말씀처럼 자녀의 출산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행위인 ‘성(sex)’을 통해 나타나는 결혼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남자와 여자는 경쟁

19) 김세윤,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 (서울: 두란노, 2004), 14.

이나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 도움, 상호 소통, 상호 완성의 대상임을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약성경 창세기 2 장 24-25 절을 통해 말씀하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원리들을 필자의 견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떠남’이다.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라고 말씀한다. 창세기 본문 말씀으로는 아담은 떠날 부모가 없다. 그러나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에게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심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룰 때, 반드시 부모를 떠나는 일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다.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부모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비단 물리적인 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 지지 기반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모를 떠나지 못함으로 부모로부터 악습을 대물림함으로 또 다른 대물림의 주체가 되기 때문인 것이다.

둘째, ‘연합’이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허락하신 한 아내와 연합할 것을 말씀한다. 한 남편이 한 아내와 영속적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성도들과 영원토록 결합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연합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관계임을 뜻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세우신 관계이기 때문이다. 연합한다는 것은 배우자의 조건이나 환경,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의지적으로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겠다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하나 됨’이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육체적 관계를 통한 친밀감을 이루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룸으로 서로에 대한 깊은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통해 일방적인 자기주장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노력과 만족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친밀함’이다. 별거벗었으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숨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육체적 친밀함을 뛰어넘어서 영적, 정신적, 관계적 친밀함, 전인격적 친밀함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단순히 법적 관계나 일이

나 어떤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그 자체로 친밀함을 누리는 관계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배우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는 것, 용서하고 품어주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나. 신약성경에 나타난 가정에 대한 이해

이제 신약성경에 나타난 가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는 결혼에 대해 매우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마가복음 10 장 5-9 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0 장 11-12 절에는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라고 말씀한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결혼과 가정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룸은 영원토록 연합해야 하는 관계이며, 임의로 깨거나 함부로 어길 수 없는 언약임을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예수께서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인식에 대해 Williams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지으신 이가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직시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서로 보완적인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성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나타내셨다. 남자와 여자는 상대편이 없이는 완전하게 되지를 못한다. 성별의 차이가 남녀를 보완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대로 사회에서의 그들의 역할에 근간이 된다. 예수의 이러한 가르침은 동성애의 악용뿐만 아니라 남녀 성별 폐지론자의 견해도 배척하신다. 예수께서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갈등, 투쟁,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완전을 의미한다고 하셨다.²⁰

Williams의 예수님의 남자와 여자의 창조 원리에 대한 인식은 결혼과 가정이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결합을 의미하며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 서로의 다름으로 인한 조화와 완전함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것임을 밝혀주고 있다.

바울 역시 결혼에 대해 말할 때, 결혼은 신성한 것이라고 말한다. 에베소서 5장 22-25절에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32절에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들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여 말함으로 결혼의 신성함을 말한다.

또한 고린도전서 7장 10-13절에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27절에는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놓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바울 또한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결혼의 연합의 관계로, 결혼을 영원한 연합으로,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 관계로, 일부일처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복

20) J. Williams, *결혼과 가정생활*, 김영배 역 (서울: 신망애출판사, 1988), 38-40.

음 안에서 새로운 창조 질서의 원칙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남녀의 동등성과 상호주의라는 것이다. 바울은 부부간의 관계를 동등성과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말하고 있다.²¹

특히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5 장 22-33 절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 방식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남편에 대한 아내로서의 책임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야 하며, 아내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책임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해야 하는 것이어야 함을 말씀한다. 당시 남편 우위의 상황으로 본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보편적 윤리였기에 그보다는 강자인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사랑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세상 윤리와는 다른 기독교적 가치관과 윤리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²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남편과 아내, 둘 사이의 관계는 상호 사랑, 상호 섬김, 상호 복종의 형태로 나타나야 함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에베소서 6 장 1-4 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을 통해 바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우선 자녀의 부모에 대한 책임은 순종의 명령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모든 생각과 행동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지배받아야 함을 말씀하며, 순종은 자녀들의 십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 계명을 삶에 적용하는 옳은 행위이며, 자녀의 순종은 골로새서 3 장 20 절 말씀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²³

또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인데, 이는 자녀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훈련과 징계이며, 영적인 가르침과 행동에 대한 지도이며, 자녀들에 대한

21) 김세윤,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 45.

22) *Ibid.*, 71-72.

23) 설은주, *가정사역론*, 37.

보살핌과 사랑이 깃든 양육이라는 것이다.²⁴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구약 성경은 결혼과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최초로 제정하신 제도이자, 기관임을 말해주고 있으며,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도구라는 측면에서 결혼과 가정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신적 기원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결혼과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떠나 연합하는 일부일처의 원리이며, 둘 사이에 영속성을 가진 언약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결혼과 가정이라는 태두리를 어지럽히거나 임의로 깨뜨리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가정은 남자와 여자의 독립과 연합, 하나 됨, 친밀함의 원리를 따라 더욱 견고하고 행복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거룩한 원리를 따라 상호 책임을 다해야 하며, 부모 자녀 간에 순종과 양육의 원리를 따라 세워져야 함도 함께 살펴보았다.

2. 가정에 대한 기독교적 정의

이제 가정에 대한 기독교적 정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기독교 내에서 가족에 관한 정의는 전통적인 관점의 정의와 현대적인 관점의 정의가 공존한다.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을 고수하는 기독교학자들 중 Stevens 는 가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족이란 인간이 출생, 언약(결혼), 혹은 입양에 의해 들어가는 영원한 인간 공동체이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공동체는 가족이었으며 가족은 교회나 국가 이전에 존재했다. 가족은 인간이 고안해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품이며 그것은 인간의 편의나 선택에 의해 생기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 생긴다... 그러므로 인간 가족은 인간의 그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는 주석이다.”²⁵라고 정의한다.

또한 가족에 대한 현대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Olson 과 Leonard 는 “가족이란 집과 영적, 물질적 자원들과 인간관계의 돌봄, 기억, 공통의 계획과 열망들을 나누면서 정서적으로 그리

24) 설은주, *가정사역론*, 38-39.

25) 엄예선,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19.에서 재인용.

고 흔히 생리적으로 법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연결되어 있는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연결망이다²⁶라고 정의한다.

또한 엄예선은 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족은 혈연이나, 입양이나,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의 결혼을 통하여 맺어진 관계 속의 사람들의 공동체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준하시는 사회제도이다. 가족은 경제적 자원을 공유하며, 대부분의 경우 의식주 생활을 함께 하며, 정서적인 측면에서 매우 강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한편 법적으로나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같은 집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자원을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가족같이 사는 경우, 예를 들면 두세 명의 미망인들이나 미혼자들이 함께 자원을 공유하면서 친밀한 공동생활을 하거나, 고아들이 고아원에서 공동생활을 하거나, 동성애자들이 함께 살거나, 미혼의 남녀가 동거를 하는 경우는 “유사 가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사 가족은 친밀성, 돌봄, 자원의 공유, 주거를 함께함 등의 가족을 정의하는 특성들을 많이 지닌다. 유사 가족은 그들의 삶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인준을 받을 수 있는 유사 가족”과 “하나님의 인준을 받을 수 없는 유사 가족”으로 나누어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²⁷

설은주는 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인간 형성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중요한 교육의 장일 뿐 아니라 신앙과 사랑과 신뢰의 기초공동체이다. 가정 없이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고 사회집단으로써의 가정이 없다면 사회 자체도 존속할 수 없다. 기독교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인격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생활하는 신앙의 공동체이고 자녀들의 훈련장소이다. 가정은 인간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끊임없이 창조되는 과정이며, 동시에 그 속에서 인간들이 참여

26) 엄예선,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21-22.에서 재인용.

27) Ibid., 23.

하여 형성하는 전인적인 과정이며 전인적인 인간형성, 감정, 사회, 도덕, 가치관, 종교가 다 포함되는 장인 것이다.²⁸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토대로 필자가 가정에 대해서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가정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속에서 결합한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공동체이다. 가정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라는 감정을 기초로 상호 이해, 상호 용납, 상호 협력, 상호 소통, 상호 교류, 상호 학습, 상호 섬김, 상호 역할 이행, 상호 책임의 형태로 여러 자원을 공유하며, 친밀감을 유지해 나가고 가정에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 기독교 가정의 목적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인간 사회 가운데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가정 그 자체가 목적이거나 가정과 가문의 유지, 발전, 번영, 지속이 목적이거나 단순히 개개인의 자유와 행복이라는 목적을 넘어선다고 할 수 있다.

엄예선은 기독교 가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²⁹ 첫째로, 인간의 행복이다. 기독교 가정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은혜의 선물인 가정을 통하여 인간이 친밀한 가족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누리는 데 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공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정을 주신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셋째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되게 하는 것이다. 가정을 통해서 사랑, 능력, 지혜, 거룩, 의 등의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되게 하는 데 있다. 넷째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다. 기독교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를 잘 양육하여 건강한 미래의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실재화 하는 데 쓰임 받을 일꾼들을 길러내야 하는 의무를

28) 설은주, *가정사역론*, 583.

29) 엄예선,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112-124.

가지고 있다. 부모는 자녀가 가진 능력과 은사에 따라 최상의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그들에게 기독교 가치관과 윤리를 가르치고 소명감을 갖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법을 친히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가정은 교회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길러내는 양성소이자 훈련소이다.

엄예선의 견해를 토대로 필자는 기독교 가정의 존재 목적이 가정을 통해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 가정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기독교 가정은 하나의 교회 형태로 나타난다고 본다. 따라서 기독교 가정에는 예배, 전도, 교육, 봉사, 교제 같은 교회로서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이 나타나고, 이런 역할과 기능들을 교육하기 위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기독교 가정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문화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제3 절 건강한 가정의 특징

위에서 살펴본 가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건강한 가정은 어떤 모습인지 건강한 가정의 특징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모든 사람은 가정 안에서 태어나 거기서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형성해 나간다. 따라서 가정만큼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관은 세상에 없다. 그러므로 가정은 이 세상 어떤 기관보다 중요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엄예선은 “건강한 가정은 다음 세대의 사회화의 책임을 잘 이행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친밀성과 상호 돌봄과 헌신, 가족 외부와의 분명한 경계선, 구성원 개개인의 확고한 자아 정체성과 인격적인 성숙성을 보이며, 가족의 목적과 기능들을 잘 이행한다.”³⁰라고 말한다.

30) 엄예선,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23.

이상 고찰한 내용들을 근거로 건강한 가정들의 특징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가치관의 공유가 있는 가정이다. 가정의 출발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기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가정의 본질과 목적을 잘 성취할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의사소통이 지속적이고 원활한 가정이다. 의사소통은 가정을 인체에 비유한다면 혈액의 흐름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가정은 가정이라는 몸체에 흐르는 혈액과도 같은 의사소통이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흐른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가족 구성원들 간에 막힘이 생기고, 갈등이 발생하고, 심지어 심각한 소통 부재, 소통 단절의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활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은 건강한 가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사랑과 존경과 신뢰의 터치가 있는 가정이다. 건강한 가정에는 언제나 건강한 습관이 있다. 건강한 정서적 교류가 있다. 건강한 스킨십이 있다. 서로 사랑한다는 말과 행동이 있다. 서로 존경하고 신뢰한다는 말과 행동이 있다. 넷째로 고유한 가족문화와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유산이 있는 가정이다. 건강한 가정에는 그 가정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다. 그 가정에만 대물림하는 건강한 유산이 있다. 건강한 가정에는 그 가정의 핵심 가치 즉, 가보가 전해진다. 그 가정만의 고유한 문화와 대물림해 내려오는 건강한 유산은 가족 구성원들에 분명한 정체성을 부여하고, 자부심을 심어주며, 자녀들에게 견고한 유대감을 형성시켜준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로, 상호 성장과 상호 책임의 관계로 묶여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주고받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한 가정에는 끊임없는 지속적인 상호 작용이 존재한다. 상호 작용이란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을 말한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서로를 향한 관심과 자극은 가정이 본질적 목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며, 가족 구성원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데 좋은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건강한 상호작용이라면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본다.

제 4 절 가정에 대한 고찰 요약

지금까지 가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가정의 일반적이고 사회학적인 이해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정은 결혼, 혈연, 입양을 통해 맺어진 친밀한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집단이며, 성생활과 자녀출산의 기능, 경제적 기능, 자녀 양육과 보호의 기능, 사회화 교육의 기능 정서적 교류와 소통의 기능, 안식의 기능, 종교적 기능 등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상호성과 친밀성을 바탕으로 한 아주 중요한 공동체이다.

하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가정, 결혼, 혈연, 입양 등을 통해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최초로 제정하신 제도이자 기관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과 가정의 테두리는 사람이 임의로 깨뜨릴 수 없으며, 남자와 여자의 독립과 연합, 하나 됨, 친밀함의 원리를 따라 더욱 견고하고 행복하게 세워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거룩한 원리를 좇아 상호 책임을 다하며, 부모와 자녀 간에 순종과 양육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공동체인 것이다.

가정은 중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과 기능을 교육하기 위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부모는 기독교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문화를 형성하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제 3 장

성경이 말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의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생산된 자녀와의 관계도 중요한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부모로서 자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관점에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고 한다.

제 1 절 구약이 말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다(창 1:27-28). 물론, 결혼을 한 후에도 자녀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혼한 부부를 통해서 경건한 자녀들이 생산되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시편에는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시 127:3, 5)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기업”이란 히브리어로 “나할라”(nachalah)인데, 이 말은 “소유”, “몫”, “유산”, “상속재산”, “상속된 어떤 것” 등의 뜻이 있으며, 동사로는 “상속하다”의 뜻으로 쓰인다.³¹ 따라서 문자적인 자녀의 의미는 “자녀는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부모에게 상속된 하나님의 재산”, 혹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유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자녀교육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을 살펴보자.

31) 조두만, *히브리어, 헬라이어 한글 성경대사전* (서울: 성지사, 1987), 218.

1. 사랑과 징계를 통한 자녀 양육

잭 볼스윅은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행동은 한 가지 자녀 양육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자녀가 성숙한 단계에 이르도록 돕기 위해 부모의 사랑(지지)과 징계(통제)가 한데 엮여지는 그런 자녀 양육 모델이다”라고 말했다.³² 따라서 사랑과 징계를 통한 자녀 양육은 부모와 자녀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모델이라고 보인다.

구약에서는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구체적인 명령을 했거나 언급한 구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에 속하는 것으로 자녀 사랑을 구태여 명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실천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구약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으로 볼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되기도 하는바, 자녀인 이스라엘이 진실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을 말씀하고 있다. 특히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심은 호세아서의 중심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함을 깨닫게 하는 좋은 모델로 보인다. 그리고 사무엘하 18 장 33 절을 보면 자신을 반역하고 죽이려고 했던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전해들은 다윗은 차라리 자기가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슬퍼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또한 부모의 자식 사랑에 대한 좋은 모델로 여겨진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것에 대한 말씀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잠 12: 1)
- 초달을 차마 못 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 하느니라 (잠 13:24)
- 네가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는 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잠

32) Jack O. Balswick, *크리스천 가정 (The Family: a Christian perspective on the contemporary home)*, 황성철 역 (서울: 두란노, 1995), 133.

19:18)

-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든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 29:15)
-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잠 29:17)

이처럼 구약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랑과 동시에 징계로 훈육하여 자녀들이 임의로 행동하도록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는 올바른 종류의 징계와 올바른 정신으로 하는 징계는 사랑의 산물이요 사랑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2. 교육을 통한 자녀양육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시작되는 신명기 6 장 4-9 절은 소위 쉘마(Shema)라고 불리는데 이는 예나 지금이나 유대교의 중심이기도 하다.³³ 쉘마란 “듣는다”란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이고, 이 쉘마(신 6:4-9)는 신명기 11 장 13-21 절, 민수기 15 장 37-41 절과 더불어 오랜 세월 동안 유대어린들이 말하기, 읽기를 배우는 성경의 첫 대목이 되어 왔다.³⁴ 이 쉘마의 내용을 보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자녀 교육의 원리들을 엿볼 수 있다.

첫째, 자녀교육의 최적의 장소는 가정이며, 자녀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암시한다. 쉘마를 교육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B.C. 500 년경 회당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 그리했으며, 회당에 세워진 후에도 회당과 랍비가 자녀교육에 대한 최적의 장소와 교사로서 부모의 위치를 대신하지 못했다. 단지 회당은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에 대한 강화의 기능을 했을 뿐이었다.³⁵ 이로 볼 때 구약시대의 교육에서 중대한 교육행위 중의 하나는 가정에서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왔다는 사실이며, 특별히 자녀

33) N. T. Wright, *예수와 하나님의 승리 (Jesus and the Victory of God)*,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4), 473.

34) T. B. Maston, *성서 그리고 현대가정 (The Bible and Family Relations)*, 이석철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1), 293.

35) Ibid., 295.

교육의 책임이 아버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잠 6:20). 따라서 구약시대의 가정은 가족들의 자연적인 유대(紐帶) 이상의 종교적 공동체였으며, 종교 교육의 가장 실제적이고 중요한 장소였다. 따라서 웨마는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 자손 대대로 자녀를 말씀의 제제로 삼는 교육을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다.³⁶ 이는 오늘날 우리의 종교 교육이나 학교 교육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즉, 자녀들의 종교교육이나 학교 교육의 최적의 장소는 교회나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고, 자녀 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목사나 교회학교 교사들이나 학교의 교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로서의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도를 듣고 행함으로 본을 보여야 한다. 신명기 6장의 내용의 처음 세 구절은 웨마를 말씀하기 위한 서론 격으로, 2 절을 보면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라고 되어 있고, 이어서 3 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라고 명령한다. 또한 6 절을 보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다. 따라서 교사로서의 부모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진리를 이론적으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에 대해서 자신들이 먼저 행함으로 본을 보여야 함을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본다. 이점에 대해서는 바울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게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롬 2:21)고 말한 바 있고, 볼드워드도 “우리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을 던져 버리고 자녀에게 그저 단순히 참된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³⁷고 말하면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줌으로 교육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셋째, 자녀교육은 어려서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7 절에는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을 강조한다. 이는 공식적인 어떤 형식을 갖춘 교육도 중요하거니와 비형식적인 일상생활 가운데서 기회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교육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잠언 22 장 6 절에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

36) 현용수, *유대인 아버지의 4 차원 영재교육* (서울: 동아일보사, 2006), 27.

37) Jack O. Balwick, *크리스천 가정* 121.

게 가르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가르치다’는 히브리어로 “하나크”(hanak) 인데, “어떤 것을 입 속에 넣다”, “맛볼 것을 주다”는 의미다. 즉 이 말은 “기초적인 교훈을 주다”, “~에게 감염시키다”, “감화시키다”, “불어넣다”, “훈련시키다”는 뜻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아이에게 그 길을 초보부터 가르치라”는 뜻을 담고 있다.³⁸ 그러므로 자녀교육은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기초부터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알게 한다.

넷째, 종교적인 상징물들이(Symbols) 자녀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임을 암시한다. 신명기 6장 8-9 절을 보면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되어 있다. 이는 자녀의 교육과 훈련의 도구로 종교적인 상징물을 사용하는 것, 즉 시청각교육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구약에서 말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부모는 사랑과 근심한 징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그들을 교육할 것, 부모가 자녀의 본이 될 것,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할 것, 종교적 상징물들을 활용해서 교육의 효과를 증진할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 2 절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예수님은 결혼을 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낳은 적도 없다. 그러나 예수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셨다(마 19:13-15), 또한 제자들 가운데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논쟁이 벌어졌을 때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바 있고(마 18:1-5), “이 소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마 18:10)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리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

38) 풀핏 주석 - 잠언(하) (The Pulpit Commentary The Book of Proverbs), 풀핏주석번역위원회 역 (서울: 보문출판사, 1980), 216.

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 7:11)고 말씀하심으로 부모는 당연히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것을 인정하기도 하셨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태도와 가르침은 당시 로마의 파트리아 포테스타스(*patria potestas*) 즉, 부권(父權)과 비교할 때 과히 혁명적인 것으로 보인다. 로마의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는 가족들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로 가족들을 노예로 팔 수도 있었고, 사슬에 묶어 밭에서 일하게 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자녀들을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다.³⁹ 또한 자녀를 버리는 습관이 있었는데, 자녀가 출생하면 그 자녀를 부친의 밭밭에 놓았고, 그가 자녀를 주워 올리면 부친이 그 자녀를 승인하여 그 자녀의 양육을 원하는 것을 의미했다.⁴⁰ 한걸음 더 나아가 세네카는 “우리는 난폭한 암소를 죽이고, 미친개도 죽이며, 병든 가축이 다른 가축들에게 병을 옮기지 못하도록 칼로 찢러 죽인다. 것처럼 우리는 병약한 아이나, 불구의 몸을 가진 아이는 내다 버린다”고 말했다.⁴¹ 이와 같은 로마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태도는 혁명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며 사랑할 것, 자녀를 인정할 것, 자녀를 업신여기지 말 것, 그리고 자녀를 축복할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 3 절 신약의 바울의 가르침에 따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

바울도 역시 육신의 자녀는 없었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말한 바 있다. 바울이 말한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6 장 4 절,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로 알려져 있다. 혹자는 여기서 “아버지야”라는 말을 근거로 아버지가 자녀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혹

39) 바클레이, *성서주석 갈라디아서/에베소서 에베소서 (The Letters to the Galatians and Ephesians)*, (서울: 기독교문사, 2009), 272.

40) *Ibid.*, 273.

41) *Ibid.*, 274.

지는 자녀 교육의 일차적 책임이 가정의 제사장이요 교사인 아버지 몫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⁴² 그 앞 절인 6 장 1-3 절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6 장 4 절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암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자녀 양육의 책임이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다. 병행 구절인 골로새서 3 장 21 절에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격노케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젊은이들의 병폐는 “낙심”이며, 낙심은 곧 끊임없이 퍼붓는 비난과 책망과 지나치게 엄격한 훈련 때문에 오는 실망감으로⁴³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은 바로 절망이다”⁴⁴라고 말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하는바, 이동원은 교양은 “예방”에 해당하고 양육은 “치유”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말한다.⁴⁵ 그가 자녀교육에 예방과 치유가 함께 필요함을 역설한 것은 좋은 관점으로 보인다. 특히 양육하라(엑트레포)는 장성하기까지 “키우다”, “소중히 기르다”, “훈련시키다”의 뜻이 있는 단어로, 여기서는 “훈련시키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⁴⁶ 이근호는 “이 단어가 능동형, 명령형,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는바, 능동형으로 쓰였다함은 자녀들이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대로 자라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이고, 동시에 명령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부모의 자녀교육이 계속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한다.⁴⁷ 그러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소중히 기르고 지속해서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울이 말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자녀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동시에 있고, 자녀를 노엽게 해서 그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42) 현용수, *IQ 는 아버지 EQ 는 어머니 몫이다* (서울: 웨마, 2009), 21.

43) 바클레이 *성서주석 갈라디아서/에베소서 에베소서* (*The Letters to the Galatians and Ephesians*), 275.

44) S. Kierkegaard, *죽음에 이르는 병* (*Die Krankheit zum Tode*), 박환덕 역 (서울: 범우사, 1993), 19.

45) 이동원, *가정행전* (서울: 규장, 1998), 167.

46) 조두만, *히브리어, 헬라이어 한글성경대사전*, 432.

47) 이근호, *성서로 본 부부갈등과 가족문제 해결* (서울: 도서출판 한글, 1999), 231-234.

주의해야 하며, 예방과 치유의 교육이 중단되지 말고, 지속적이어야 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제 4 절 요약 :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중요성

구약과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에서 살펴본 가정의 기능은 교육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자녀들을 종교적으로 훈련시켜야 한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은 신앙과 삶이 교육이 분리되지 않는 삶으로 나타나는 교육이었고, 신약시대까지도 이 전통이 이어졌다.

인간은 가정을 통하여 삶에 필요한 기초적인 행동 양식을 배우고 인격을 형성한다. 공공교육 기관이 없었을 때, 가정은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었으며 부모는 교사로서 자녀를 양육하였다. 설은주는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⁴⁸

첫째,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 자질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으로 사람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말을 배우거나 습관을 형성하거나 기본예절 등을 가정교육을 통해 가르쳐야 한다. 둘째, 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어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규범의 분별,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변성과 불변성을 구별하는 일 등을 가르쳐야 한다. 셋째, 배움에 대한 의욕을 계속 자극하여 부단한 자기 혁신, 평생 자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가르쳐야 한다.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는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 교육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중대한 의무이며 교회와 학교가 종교 교육을 더불어 할 수는 있으나 결코 가정교육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⁴⁹ 루터의 주장처럼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기독교 가정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기독교 교육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터전이다. 자녀는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격으로 성장해 나가기 때문이다.⁵⁰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오늘날의 기독교 가정의

48) 설은주, *가정사역론*, 55.

49)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소, *기독교교육개론* (서울: 기성출판사, 1994), 232.

50) 박상진, *기독교 교육 개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07), 179.

모습은 자녀 교육의 보조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점차 소멸되고 있다. 기독교 가정안에서 자녀의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녀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오늘날 현실은 많은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 교육을 부모가 책임지지 않고 교회 학교에 일임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는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어떠한 종교 교육도 하지 않고 있으며 기독교 가정에서 반드시 드려야 할 가정예배와 기도 등도 사라지고 있다. 기독교 가정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은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오늘날 부모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모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은 일상에서 나타나는 삶의 형태로서 종교는 곧 생활이었고, 생활은 곧 종교 생활이었다. 이들의 교육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흥미 있는 생활 교육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기독교 가정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교회에 가지 않는 나머지 옛새는 신앙과 상관없이 살며 그것에 대한 어떠한 문제의식도 갖지 않는다.

또한 오늘날 한국 사회는 사교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모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자녀의 사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부모는 일터에서, 자녀는 학교와 학원에서 하루를 보낸다. 한국사회의 교육은 점점 주지주의 교육, 1등을 강조하고, 출세 지상주의를 가르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 부모도 학교 교육에는 큰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지만, 신앙교육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학교 교육의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의 신앙 교육과 부모 자신의 신앙 문제는 모두 교회가 책임지며 교회가 챙겨 주어야 할 몫으로 여기고 자녀의 학교 교육에만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신앙 교육은 생활과 분리된 것이 아니며, 인간의 삶의 전 과정, 모든 환경, 삶 속에서 동반하는 교육으로서 가정에서 매일 삶 속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장년 성도 위주의 프로그램과 성장에 집중되어 있어, 자녀들의 교육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의 공통된 관심 영역으로 교회는 가정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교회는 부모에게 자녀를 기독교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도 할 수 있다. 즉 교회는 부모의 잘못된 교육적 견해를 수정해 주고 자녀를 교육하는 데 올바른 지식을 제공해주며 부모에게 기독교적인 신앙과 관련된 여러 분야를 알게 함으로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⁵¹

성경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 수 있으며, 신앙공동체인 가정에서 부모는 먼저 삶의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신앙의 전수자로서 신앙교육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부모는 가정의 중요성과 및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 가정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51) 이현숙, “교육교역: 부모 교육을 통한 기독교 가정 교육,” *교육교회*, 1992년 10월호, 53.

제 4 장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에 대한 이해

본 장에서 필자는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의 개념과 역사를 살펴 보려고 한다.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 성장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고, 전통적인 교회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그 가운데 나타난 부정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면,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기독교 가정과 기독교 가정안의 젊은 세대들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이 왜 필요한지 살펴볼 것이다.

제 1 절 전통적인 교회의 개념과 성장요인

본 절에서는 먼저 전통적인 교회의 개념을 살펴보고, 전통적인 교회의 성장요인으로 한국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조화,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 주어진 소망, 강력한 지도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과 열정의 영성, 이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1. 전통적 교회의 개념

‘전통적인 교회’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전통적인’이란 단어의 뜻을 살펴본다. “캠브리지 사전에서 ‘전통적인’이란, 한 그룹이나 사회에서 오랫동안 변화가 없이(for a long time without changing) 지속된 문화나 행동의 방식이다.”⁵² 그렇다면 ‘전통적인 교회’란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예배 형태를 비슷하여 가치관이나 관습,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유지되며 내려오는 교회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⁵³ 이 개념에 근거하여 한국적 상황에서의 전통적 교회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52) Cambridge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3r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1544.

53) James F. White, *개신교예배* (*Protestant Worship: Traditions in Transition*), 김석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23.

2. 한국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조화

한국은 하나의 문화권을 가진 나라로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단일민족 국가이다. 이 단일 민족은 결국 동질 집단의 개념 속에 서로를 손쉽게 이해하며,⁵⁴ 한국에 전해진 복음은 이 하나라는 동질성의 개념 속에서 다른 어떤 나라들 보다 이른 시간 안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동질 집단의 특성상, 가족 중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다면 다른 가족들을 전도할 때 그 남은 가족들은 기독교를 쉽게 받아들여 가족 전체가 기독교인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특히 많지는 않았지만,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한국은 가장이 먼저 기독교인이 되면 다른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또한 이 동질성과 단일문화성은 한국인들이 유일신 사상을 가진 기독교의 신관을 쉽게 수용되게 만들었다. 즉 단일 민족 국가의 상황에서 이 동질성의 특징이 기독교라는 외래 신흥종교를 쉽게 받아들이게 한 것이다.⁵⁵

또한 한국 사회 저변에 깔려 있던 유교 문화는 초기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강조하고 지도하던 생활 속의 경건과 거룩한 삶은 유교가 말하는 윤리적인 삶과 상당 부분 일치하였고, 기독교가 유교의 가르치는 형식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있지만, 삶의 부분의 강조가 더 깊었다.⁵⁶ 이것은 교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한국 사회에 심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런 문화적 배경으로 교회의 강력한 지도력이 한국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지도자에게 순응하는 문화는 교회의 강력한 지도력을 세웠으며, 이 지도력을 바탕으로 교회가 성장한 것이다. 이런 사회문화적 배경과 잘 맞아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 속에서 빠르게 정착하고 성공하게 되었다.

3.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 주어진 소망

1885년 이 땅에 들어온 개신교는 1910년 한일 합방 이후에, 일제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기 시작하고, 일제의 온갖 무력과 식민통치에 굴하지 않은 한국교회는 일제로부터 박해와

54) 홍영기, *한국초대형교회와 카리스마리더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2), 84.

55) 이원규, “해방 후 한국인의 종교의식구조 변천 연구,” *현대 한국종교 변동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161-232.

56)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148.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다. 일제는 교회의 신앙이 식민통치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민족 정신 말살을 위하여 교회를 더욱 핍박하였고, 한국교회는 1919년 3.1 운동을 주도하게 되므로 일제는 더욱 조직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게 된다.⁵⁷ 이 과정에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다수의 믿음의 선배들이 옥고를 치르고 순교하기도 했다.⁵⁸ 일제의 핍박을 견딘 한국교회에 해방 후 남북으로 분단된 사상대립과, 6.25 전쟁을 통해 또 한 번 박해의 시기를 가지는데, 6.25 전쟁을 통해 교회예배당은 거의 전소되었고, 손양원 목사를 비롯한 많은 순교자를 배출하게 되었다. 이렇게 개신교의 역사는 박해, 핍박, 그리고 순교의 피로 시작되었지만, 암울했던 한국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민족의 길을 환히 밝혀 줄 등불과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당시 한국의 시대 상황은 소망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당시 시대의 필요성과 일치하여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교회는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나라 잃은 백성들의 절망에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하였고, 단호하게 신앙을 지키는 결단으로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한국사회에 소망을 주었고, 특히 기독교가 3.1 운동을 주도한 것은 한국 사회 전체에 기독교가 서양의 외래 종교라는 이미지를 없애고, 민족을 사랑하는 소망의 종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⁵⁹

해방 이후 한국전쟁으로 인한 국토의 파괴는 민족 전체에 소망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다. 이러한 절망과 좌절의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민족에게 소망이 되었다. 철저히 파괴된 나라의 백성들에게 교회를 통한 서구 사회의 지원은 교회의 긍정적 이미지를 갖는 데 또 한 번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한다.

57) 옥성득 교수의 한국 기독교 역사 블로그 (<https://koreanchristianity.tistory.com>). 3.1 운동당시 33인의 민족 대표중, 16명이 기독교계 소속의 인사들이었다. - 2 길선주 (평양) 장대현교회 목사 (장), 3 이필주 (서울) 정동제일교회 목사 (북감), 6 김병조 (정주) 목사 (장), 7 김창준 (강서) 목사 (북감), 12 양전백 (선천) 선천교회 목사 (장), 14 유여대 (의주) 의주교회 목사 (장), 15 이갑성 (대구) 세브란스병원 서기 (장), 16 이명룡 (철산) 목사 (장), 17 이승훈 (정주) 장로 (장), 22 박희도 (해주) YMCA 간사 (북감), 23 박동완 (포천) 기독교신보사 서기 (북감), 24 신흥식 (청주) 목사 (북감), 25 신석구 (청원) 목사 (남감), 27 오화영 (평산) 목사 (남감), 28 정춘수 (청원) 목사 (남감), 29 최성모 (해주) 목사 (북감).

58) 김영재, *한국교회사*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2), 110.

59)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1*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7), 800-802.

특히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단순한 영적 각성 운동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회 변혁을 주도하였다.⁶⁰ 대각성운동을 통해 변화된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성도가 있는 삶의 현장은 사회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러한 일들은 자연스럽게 교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한국 사회와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효과를 내었다.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의 미래적 소망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계속하였는데, 선교사들은 영적으로 성경에 근거한 신앙교육을 통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소망을 갖도록 하였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소망의 일들을 감당하였다. 본국의 지원을 가지고 한국 땅에 병원, 고아원, 학교 등을 세우는 사회사업을 통해 성경이 가르치는 소망을 통한 구체적인 삶의 힘을 실어주었다.⁶¹ 이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였는데, 예를 들면 서양식교육을 통한 여성 교육 기회제공은 여성의 지위 향상을 통해 남녀 평등사상을 이루게 하였고, 교육의 저변 확대를 통해 신분타과 등 사회변혁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사회를 주도하며, 절망적인 한국 사회와 민족의 미래에 소망을 불어 넣어 현실의 고난을 이기게 하였고,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곧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

4.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의 강력한 지도력과 헌신

강력한 지도력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선교 초기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강력한 지도력은 한국교회가 부흥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때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요약하면, 부정적인 강령함의 제왕적 지도력이 아니라, 복음적 본질의 말씀에 근거한 십자가의 실천적 자기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가진 지도력이었다.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은 철저한 헌신과 희생을 통해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외부에서도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았다. 특히 한국 사회가 일제의 강점기와 6.25 전쟁의 고난에 직면하였을 때 교회 지도자들의 영향력은 교회 안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실질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여 한국 민족을 잇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강력한 지도력은 유교의 영향 하에 있는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60) 박용규, *평양 대부흥운동*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0), 451-502.

61)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1*, 830-833.

에 편승하여 교회 내의 지도자의 권위를 거부감 없이 따르게 하여 주었다.⁶² 이러한 지도력의 결과는 교회를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선교의 불모지 한국에 도착한 교회 초기의 선교사들과 초기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충성과 헌신, 그리고 그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와 피는 한국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었다.⁶³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헌신은 한국 사회에 너무도 놀라운 것이었다. 그중에 특히 수대에 걸쳐서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가문 등의 헌신은 한국교회의 부흥에 큰 힘이 되었다.⁶⁴ 이러한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뿐만 아니라 전통적 교회의 믿음의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와 수많은 무명의 믿음의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의 값으로 초기 한국교회는 부흥하게 되었다.⁶⁵

초기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단순히 교회 내에서만 그 지도력을 펼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에 입각한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일제시대 3.1 운동을 비롯한 주도적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모습은 외래종교에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종교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후 기독교는 일제 치하에서 한국사회의 민족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문맹 퇴치 운동, 물산장려운동, 야학 운동, 여성운동, 농촌계몽 운동 등을 주도함으로써 사회변화를 주도하며 민족의 소망이 되는 일을 감당하였다.⁶⁶ 이러한 민족의 소망적이고, 실천적인 교회의 모습은 경건주의와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선교 초기 한국 선교사들의 영향이었고, 이 영향력은 한국교회 내 성도들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⁶⁷ 한국교회가 발휘한 강력한 지도력은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가 시대의 아픔과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대를 선도해 나간다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또한 전통적 교회는 교회 내부의 강력한 지도자들을 통해 교회 성장의 결과를 이루어냈다.⁶⁸ 다시

62) 홍영기, *한국초대형교회와 카리스마*, 83.

63) 이용남, *복음에 미치다* (서울: 두란노, 2007), 135-138.

64) *Ibid.*, 219-221.

65) 이원규, *기독교의 위기와 희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146-147.

66) 이원규,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205-206.

67)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148.

68) 홍영기, *한국초대형교회와 카리스마 리더십*, 264.

말해, 한국교회는 교회 내부의 지도자만 배출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지도자를 배출한 것이다.

5. 충성과 열정의 영성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가 일구어 놓은 부흥과 성장요인을 든다면 영성운동을 빼고는 말할 수 없다. 즉 전통적인 교회의 시작 자체가 말씀과 기도운동이라 말할 수 있다.⁶⁹ 선교사들과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의 말씀과 기도에 대한 헌신은 전통적인 교회에 영적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 특별히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사경회에서 한국의 오순절이라 칭하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있었다.⁷⁰ 이 성령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예배 시간에 성도들 앞에서 구체적인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⁷¹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짧은 시일 안에 전국으로 퍼져 나갔고, 교회는 양적, 질적 성장을 동반한 놀라운 부흥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⁷²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초기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 전통적으로 존재해 오던 기존의 무속신앙을 비롯한 불교, 도교, 유교, 천도교 등이 이루지 못한 영향력을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서 강력하게 미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운동의 주인공인 초기 교회는 아이들에게는 교회학교를 통해 신앙교육을 하였고, 남녀 장녀들에게는 각종 성경공부, 기도모임 그리고 사경회 등을 통해서 교인들의 영성을 키워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신앙 운동의 시작과 과정은 신앙훈련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 교인들을 깨우치고 진취적으로 만들게 되었고, 이러한 일들은 결국 전통적 교회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전통적 교회는 철저한 말씀과 기도중심의 사역을 하였는데, 교회의 빠른 성장의 원인은 전 세계 가운데 유일한 한국교회만의 새벽기도회라고 볼 수 있다.⁷³ 초창기 전통교회는 이러한 말씀과 기도, 복음의 가치들을 목숨 걸고 지켜왔기에 이것이 부흥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69) 김영재, *한국교회사*, 110.

70)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492.

71) 윤재수, *한국장로교회 부흥운동사* (부산: 성문출판사, 1981), 66-68.

72)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512-514.

73) 박아론, “한국교회 급성장의 원인에 대한 고찰,” *신학지남*, 1998년 여름호, 22-37.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는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 점진적인 성장을 하던 중에, 1960 년대를 지나면서 크게 성장하게 된다. 실제로 1950 년대까지 한국교회는 약 60 만의 성도를 추정하였는데, 1960 년대에는 배가가 된 120 만 명으로 성장하게 된다.⁷⁴ 이러한 숫자는 1970-80 년대의 “엑스포로 74”를 비롯한 대형전도 집회를 통해 더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된다.⁷⁵

6.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의 성장요인 요약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의 성장과 부흥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일문화권인 한국 사회는 가장의 개종으로 온 가족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바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의 문화 속에서 잘 적응한 전통적 교회의 긍정적 요소로 인해, 교인이 된 가장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다 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구체적으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민족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교회와 사회를 향한 미래의 소망을 불어넣어 줌과 동시에 교회 안 뿐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바탕으로 교회 밖의 사회를 변화시키며 펼쳐지는 강력한 지도력, 그리고 교회 내의 복음의 본질적 접근을 통한 영적 각성운동으로 현실 삶의 미래적 비전과 소망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 기대하게 됨으로 전통적 교회는 좋은 전통을 세워나가면서 한국 사회 속에서 점점 더 그 영향력을 극대화하게 되었고, 그 결과 외래 종교로 취급되는 기독교가 민족을 사랑하며, 더 나아가 소망을 주는 종교로 인식되어 한국교회는 부흥기를 누릴 수 있었다.

이러한 초기 한국교회의 성장 요인은 점점 쇠퇴하고,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잃고 오히려 질타의 대상이 되어가는 한국교회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고, 지금의 한국교회에 도전과 자극을 주고 있다.

74) 이상규, “미국교회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교회의 현실과 과제,” 2020 한국교회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라(서울: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6), 395.

75) Ibid., 395. 1975년에는 약 350 만명으로, 1985년에는 650 만명으로 증가되었다.

제2절 전통적 교회의 부정적 요인들

앞 절에서는 전통적인 한국교회의 긍정적인 요소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시대 상황이 변하면서 전통적 교회들은 점차 과거의 영광에 둘러싸여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무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 이제 전통적 교회는 앞에서 살펴본 사전적인 의미처럼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대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무는 교회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⁷⁶ 과거를 고집하며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전통적인 교회는 결국 안일함 속에 빠져 교회로서의 본질이 약화되어 방황하는 교회가 되어져 버린 것이다.⁷⁷ 이것은 단순히 교회가 과거에 머무는 이미지만 가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교회가 과거의 향수에 도취되어 있는 가운데 교회 내적으로는 교회의 본질이 점점 약해지는 가운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교회 외적으로는 교회 내적인 문제가 외부로 드러나게 되므로 인해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회 속에 각인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교회는 정체와 쇠퇴의 상황을 직면하게 된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교회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생명력을 상실한 예배, 경직된 교회 조직, 신앙과 삶의 불일치, 다음 세대의 이탈, 급변하는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신앙의 역동성의 저하 그리고 사회 속에서 교회가 가지는 이미지 등을 살펴볼 것이다.

1. 생명력을 상실한 예배

한국교회는 다른 나라의 교회보다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나 매주 많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의 변화와 신앙의 성숙은 잘 일어나지 않고 있다. 즉, 예배가 신앙생활에 주요한 수단임은 맞지만, 예배만 드림으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는

76) Eddie Gibbs, *넥스트 처치 (ChurchNext: Quantum Changes in How We Do Ministry)*, 임신희 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0), 34.

77) John F. MacArthur, *주님의 교회계획 (The Master's Plan for the Church)*, 최치남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3), 162.

다는 것이다.⁷⁸ 즉 예배의 횟수의 많음이 건강한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배는 교회로 교회됨의 본질을 나타나게 하는 최고의 수단이다.⁷⁹ 그러므로 예배는 교회의 모든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다. 모든 교인들은 예배를 통해 자기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자신의 신앙을 배양한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배는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시간이어야 한다. 또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위한 동력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예배를 통한 변화를 가진 성도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 변화된 삶을 자신과 타인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⁸⁰ 이를 위해서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전통적 교회의 예배는 이미 고착화 되어 과거에 해오던 예전의 전통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다. 물론 교회가 예배를 매번 새롭게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나 교회의 생명력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시도를 통해 더 나은 예배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배의 생명력 상실은 교회의 생명력의 상실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교회의 생명력을 증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전통적 교회의 예배는 이미 정례화되고 그 틀이 굳어져 버려서, 예배의 생명력을 상실해 버렸다. 그 안의 내용과 순서도 거의 고정되어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화를 추구하는 포스트모던 시대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 예배가 낯설게 느껴진다. 그들의 다양성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다양한 감성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교회는 과거의 단순한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의 감성에 공감하지 않는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전통주의적 교회의 사고에서는 만일 예배가 지금까지 해오던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면, 그 예배는 잘못된 것으로

78) Davis Watson, *제자도 (Discipleship)*, 문동학 역 (서울: 두란노, 2004), 179.

79) J. J. von Allmen, *예배학원론 (Worship: Its Theology and Practice)*, 정용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39.

80)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246.

치부해 버리고 있다. 이러한 고정 관념에 근거한 예배를 따르는 이들은 새로운 시대 상황에 적응할 마음도 없고, 시도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전통적 교회에서 예배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형화 돼서 영적 감동을 주지 못하는 예배는 젊은 세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교회에 머물 수 없게 만드는 부정적 요소가 되어 버린 것이다.

둘째, 전통적 교회에서 예배 자체의 생명력 상실은 예배를 통한 신앙의 생성과 삶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게 하였다.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의 자신의 모습과 가정과 직장에서의 자신의 모습의 괴리감으로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는 결과가 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 구원을 가르쳤지만,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대로 삶을 살아가는 성화를 가르치지 못하니 세상 속에서 지도적인 위치는커녕, 자신의 신앙조차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무능 속에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만 양산한 결과가 되었다. 그러므로 전통적 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신앙을 삶과 일치시키는 성화와 영성훈련을 통해 삶과 신앙의 일치를 이루도록 만들어야 한다.

2. 삶 속의 실천에 대한 무관심

앞에서 살펴본 대로 생명력을 상실한 예배는 곧 신앙과 삶의 불일치로 이어진다. 신앙의 성장은 믿음과 삶의 일치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믿는 그대로 다 살기는 어렵다. 그러나 믿는 그대로 100 퍼센트 살지는 못해도 최소한 그리 살려고 하는 몸부리침,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통적 교회의 치명적 문제가 바로 이 믿는 신앙과 삶의 일치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큰 것은 기존에 해오던 습관적인 신앙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형태를 벗어나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시대는 점점 변화였고, 과거의 전통적인 교회들과 현대의 교회들이 처한 상황도 많이 변화되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신앙의 형태를 고수해 나가려고 한다. 이런 전통적 교회의 특징은 자신의 신앙 즉 믿음을 삶 속

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훈련의 부재로 이어진다. 즉, 신앙과 현실이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 신앙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이 부족하고, 또한 시대 상황적으로 내세를 강조하던 한국 고난의 시대 상황의 신앙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의 현실에서도 교회가 내세만을 강조하다 보니, 현실의 삶을 등한시하는 교육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심각한 것은 전통적 교회의 신앙은 내세를 강조하니 당연히 ‘나 중심’의 신앙이 강조된다. 이러한 ‘나 중심’의 신앙교육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라 나 중심주의로 흐르게 되었고, 이러한 분위기와 교육 속에서 교인들은 내가 조금만 손해가 나면 견디지 못하며, 나만 편하면 만족하며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주의적 교인을 양산하게 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이기주의적 교인들의 관심은 신앙과 삶의 일치보다는 나를 잘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잘 사는 방법을 배우는 수단으로서 교회 교육을 시행했다.

이는 곧 한국사회의 정서 혹은 자리 잡고 있는 무속적 성향이 교회 안의 기복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⁸¹ 즉 교회가 무속신앙을 넘어서지 못하고 오히려 지배되어 기복신앙의 형태로 변질한 것이다. 이 기복신앙이 전통적 교회 안에서 환영받으며 자리 잡게 된 것은 한국 사회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공업화와 이를 동반한 경제 성장으로 인하여, 사회에 팽배한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이 교회에 여과 없이 그대로 들어오게 된 결과이다. 이는 현실의 물질적 풍요가 신앙의 복의 핵심으로 바뀌어 버리는 현상으로 이어졌다.⁸² 지나친 내세에 대한 집착도 문제이지만, 지나친 현실의 황금만능주의도 문제이다. 물질적인 현세적인 축복관은 교회의 세속화를 가속화 시키며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과 현실 삶의 불일치를 가져오게 하였다.

둘째는, 내세의 강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을 양산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보다는 타인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잘되고 내 교회가 잘되기만 하면 된다는 하나님의 뜻과는 오히려 반대

81) 최중현, *한국교회의 샤머니즘* (서울: 성광문화사, 1999), 59.

82) 이원규, *종교사회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264.

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양산하게 된 것이다. 이런 속에서 교회의 일치와 연합은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 되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과 삶의 불일치로 인한 한국사회의 교회에 대한 실망은 당연한 결과이고, 그것을 옆에서 보는 다음 세대들이 스스로 교회를 떠나게 하는 직간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셋째로, 세속주의인 기복신앙은 인하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 기준이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니 성경을 통한 신앙의 기준은 점점 멀어지고 세상의 기준인 물질이 교회 내에서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되어져 버린 것이다. 이는 교회 내에서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실례들이 된다. 이런 기복 신앙이 기준이 되면 아무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영성의 기준이 되는 기도를 많이 하여도 결국 모든 것이 세상의 물질의 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가 그 신앙의 기준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⁸³ 이는 결국 전통적 교회가 한국 사회 속에서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그 결과, 전통적 교회는 정체와 쇠퇴를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3. 경직된 교회조직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건강하고 유연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부장적인 문화의 영향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 교회는 교회조직의 운영이 너무 굳어져 있어서 목회자와 교인의 구분이 크고 그 결과로 교회 내의 사역은 성직자인 목회자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⁸⁴ 또는 목사와 장로의 모임인 당회와 교인의 구분이 커서 교회의 운영은 목사와 장로만이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매여 있다. 이것은 결국은 교회가 유연하게 교회 내외의 일을 대처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단순하고 획일적으로 리더그룹의 주도에 순응하던 지난 시대와는 다르게 다양한 현실의 상황에 속한 현대인들은 리더 그룹에 무조건 순응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다양한 의견의 표

83) 황성철, *한국교회, 21 세기에도 부흥회가 필요하나?* (서울: 총신대부설 한국교회연구소, 1998), 59-70.

84) Bill Hull, *목회자가 제자 삼아야 교회가 산다 (The Disciple-making church)*, 박경환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4), 42-43.

출과 수용의 과정을 거쳐서 자신들도 함께 조직의 운영에 동참하고 있음을 느끼기를 원하고 있다. 자신들이 동참되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조직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굳어진 전통적 교회 내에서 구성원의 동참을 통한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찾기는 어렵다. 이런 유연하지 못한 전통적 교회의 경직된 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교회의 탄력성과 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결국에는 경직화되어 조직은 계급의 구조가 되고, 교인의 관심과 참여도가 점점 약화되게 하는 것이다. 결국 교회가 일부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이나, 또는 특정한 소수가 속한 그룹의 의견으로 주도되어지던 과거의 구조적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⁸⁵ 그 결과, 교회 내에서 교회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 교회의 생명력을 활발하게 이루기를 원하는 교회구성원 다수의 지지와 동참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직된 조직운영은 교회 내의 불만으로 연결되고 결국 전통적 교회의 부정적 요소가 되었다.

유기체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왜 오히려 교회의 활동성을 저해하고 경직되게 만드는 것인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먼저 한국 사회 속에서 상하 위계 서열이 중시되는 유교 문화적 배경이라 말할 수 있다.⁸⁶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교회 안에서 섬기기 위해 주어진 직분이 세상의 직급 서열로 인식되게 만들었다. 직분이 주어지면 더 겸손히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하는 데 오히려 기득권을 쥔 행태를 보이니 이러한 교회의 운영은 교회의 조직을 더욱 경직되게 만들었다.⁸⁷ 이는 결국 전통적 교회 내부의 사람들조차도 수용하기 어려운 교회 조직으로 고착되게 되었고 외부에서 부정적 이미지의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교회 안의 다수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소외되게 된 것이다. 절대가치가 인정되는 과거에는 이것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었지만, 다양성이 추구되어지고 모두가 자신

85) 김승호, “수직적 리더십을 벗어나 공유 리더십으로,” *목회와 신학*, 2017년 7월호, 47. 수직적 관계는 군대조직의 특성으로 상명하복을 기본으로 한다. 조직의 질서 확립에 용이하고, 강력한 통제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빠른 성장을 이룬 교회들 상당수가 이런 수직적 관계에 기초한 담임목사 1인중심체제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86) 이원규,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나*, 248.

87) 전용재, “성장과 둔화의 분기점에 선 한국교회,” *기독교세계*, 1997년 2월호, 11-16.

의 목소리를 내는 현실의 시대에는 교회 조직 내의 모든 사람들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없게 된 것이다. 1인 주도형 리더십은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대처하지 못한다. 담임목사 1인 리더십에 기초한 목회는 수평적 관계를 중시하는 현시대 문화와는 거리가 멀다.⁸⁸

그러므로 경직된 전통적 교회의 조직을 유연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의 조직이 계급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섬김의 직분이 되도록 해야 하며 또한 가능한 많은 교인들이 앞선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는 일을 관망하는 사람에서 참여하는 사람으로 바뀌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에 전통적 교회의 조직은 유연한 조직으로 그 생명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4. 다음 세대의 이탈

현재 한국 전통적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의 탈 교회 현상이다. 교회 내 다음 세대의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든 것이다. 한때 전통적 교회는 장년 교인 숫자보다도 학생들의 숫자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다수의 교회가 장년 숫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학생들의 숫자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물론 저출산의 영향도 있지만 단순히 저출산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떠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 교회에서의 다음 세대의 이탈의 원인은 먼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생명력을 상실한 예배, 신앙과 삶의 불일치 그리고 경직된 교회 조직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들과 복합되어 다음 세대를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교회 밖으로 급격하게 밀어내게 되어 교회 내 다음 세대의 숫자를 급격히 줄어들게 하였다. 기존의 장년의 성도들은 그래도 전통적 교회의 병폐의 문제 속에서 참고 견디며 신앙생활을 한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 전통의 문화 속에

젖어들어 있어 불편함을 못 느끼기도 하고, 느낀다고 해도 교회를 떠나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므로 쉽게 떠나지 못한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성향을 드러낸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안 맞으면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를 느끼지도 못하

88) 김승호, “수직적 리더십을 벗어나 공유 리더십으로,” 49.

며, 전통적 교회의 문화에 동화가 안 되어 있으니 자연스럽게 쉽게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이다.

또 다른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전통적 교회는 다음 세대의 심각한 교회 이탈 현상의 상황 즉, 미래의 암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의 관심을 이탈하는 다음 세대에 두지 않고 교회 내 어른들에게만 집중하고 있다. 물론 교회는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한다. 때때로 관심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그뿐이다. 염려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투자와 변화에는 인색하여 결국 아무런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다음 세대의 탈 교회 현상은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가속되니 교회의 부흥은 더 먼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의 최대의 투자 대상이며, 최우선, 최고의 관심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다음세대가 교회 내에서 스스로의 생명의 가치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다음 세대의 이탈을 막지 못하면 전통적 교회의 미래에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다.

5. 급변하는 현실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급변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과거의 패러다임을 고수하는 전통적 교회들은 결국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교회의 역동성을 상실하여 자연스럽게 쇠퇴하게 된다. 특히 전통적 교회의 성장이 사회적 배경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한국의 사회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는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변화하는 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혹자들은 한국의 경제 상황의 호전이 교회의 쇠퇴의 주원인인 것처럼 말한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이라고 말하기에는 많은 모순이 있다. 좋은 예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미국의 교회가 무조건 쇠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의 쇠퇴는 경제적으로 넉넉해짐 속에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상대주의적 사고의 영향이다. 이것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다원주의적 입장을 받아들이게 한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은 절대

진리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오히려 절대 진리에 의문을 품고 상대적 진리를 표방하는 종교 다원주의나 과학주의 그리고 세속적 인본주의를 표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에 전통적인 교회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양화의 시대에 전통적인 교회가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 다양성을 갖추지 못하고 과거의 해오던 전통만 고수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 사회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된 문민정부의 시작으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내게 되는 다원화 사회가 되었다.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다보니 결국은 그 삶도 다양하게 변화하게 되었다. 그 다양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본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충족되지 않는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반면, 불신자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⁸⁹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과거에 교회는 사람을 만나는 좋은 곳이었는데, 현대의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대신에 집에서 다양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포스트모던 시대의 흐름에 교회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지는 모습을 유지하여, 교회의 기존 신도는 교회를 떠나고, 새로운 교인들은 교회 안에 유입되는데 걸림이 되었던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하나는 모든 것이 변하는 다양한 시대라 하여도 교회는 교회이지 세속의 조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전통적인 교회 속에서 복음의 본질에 대한 수호가 약해진 것이다. 진정한 다양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에 더욱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변화를 통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통적 교회는 과거 외부의 강력한 핍박이 있던 시기에 교회 내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냄으로 교회를 지켜 낼 수 있었으며, 오히려 사회의 지도적 역할까지도 감당하게 된 것이다. 특히 현대의 다양성에 교회가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본질에 깊이를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 다변화된 사회에 다양한 모습으로 대처를 하지만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점은 교회가 세상에서 분리 되어

89) 권성수, 양참삼, 이만열, *3인의 석학이 풀어 본 교회성장이야기* (서울: 기독교신문사, 1997), 34.

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외부의 변화는 내부의 공격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교회 내부에서는 스스로 더 높은 벽을 쌓아 교회의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려고 한다. 그러나 교회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사회와 동떨어지게 되고 교회의 쇠퇴는 가속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변화되는 세대에 복음의 본질은 지키면서도 복음의 옷을 다양화하여 시대의 흐름에 그 복음을 잘 설명하고 전파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⁹⁰

6. 신앙의 역동성의 저하

교회 성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다. 양적인 외형적 성장과 질적인 내적인 성숙이다. 물론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항상은 아니다. 그런데 오늘의 전통적 교회는 질적인 성숙보다는 양적 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목회의 성패를 교인의 수와 헌금의 액수 그리고 교회당의 크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⁹¹ 이것은 결국 교회의 질적인 성숙을 등한시하게 하였다. 그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의 본질을 흐리게 됨과 동시에 교회의 세속화를 가속화 시켰다.

결국 교회의 외적인 성장에 대한 관심은 교회를 외적으로 키우는데 일시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점차 교회는 신앙의 역동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신앙의 역동성 상실은 중국에는 교회의 숫자의 감소를 가져오게 하였고, 결국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교회의 숫자적 쇠퇴의 주요한 원인이 되게 하였다.⁹² 결국 전통적 교회의 외형 지상주의는 전통적 교회의 신앙의 역동성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오히려 교회의 외형의 성장이 아니라 교회의 외형적인 쇠퇴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전통적 교회가 어떻게 신앙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통적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90)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The Purpose Driven Church: Growth Without Compromising Your Message and Mission)*, 김현희 역 (서울: 디모데, 2008) 69-70.

91) 김회권,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이후,” *목회와 신학*, 2003년 9월호, 74.

92) 이원규, “사회변동과 한국교회의 미래: 양적 및 영적 성장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목협 제10회 전국수련회 교재*, (서울: 한국기독교목회자 협의회, 2008), 18-19.

새들백교회 담임목사인 릭 워렌(Rick Warren)은 그의 책, 새들백교회 이야기에서 교회의 본질을 다섯 가지로 말한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성도의 사랑의 교제, 예수님을 닮은 제자 훈련, 은사에 따른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말한다.⁹³ 한국 전통적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동성을 상실한 주요한 원인은 이러한 교회의 본질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는 데에는 지도자인 목회자의 관심과 역량이 지대한 영향을 미침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다. 그런데 목회자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목회자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그 목회의 역량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은 결정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영성이 교회의 영성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 역동성 있는 목회자에게로부터 역동성 있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역동성 없는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의 역동성은 있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쇠퇴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영성은 너무도 교회의 성장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오히려 전통적 교회는 이 영성의 결핍이 나타나게 된다. 전통적 교회 성장의 정체와 쇠퇴 현상의 원인 중에 제일 큰 요인이 영성의 결핍이다.⁹⁴ 영성이란 세속화를 거스를 수 있는 거룩성을 유지하는 능력이며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영적 가치를 지켜내고 현세 지향적 사고가 아닌 내세 지향적 사고를 견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성 결핍의 현상이 목회자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고 평신도에게 전염시켰으며 이로 인해 세속화가 급속히 가속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전통적 교회의 목회자들은 영성의 배양보다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에 치중하다 보니 결국 교회의 역동성은 날로 상실되게 되고 그 결과로 한국 전통주의적 교회의 외적인 성장도 쇠퇴하게 된 것이다.⁹⁵ 실제로 교회의 성장이 최고조에 달하는 1990 년대를 전후로 신학교의 숫자는 늘어났고, 각 신학교마다 학생의 숫자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의 성장에 도

93) Rick Warren, *새들백교회*, 60.

94) 권성수, 양참삼, 이만열, *3인의 석학이 풀어 본 교회성장이야기*, 15.

95) *Ibid.*, 52-57.

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의 본질의 약화와 성장의 정체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⁹⁶

결국 전통적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구현해야 할 목회자들이 집중해야 할 영성보다는 교회의 외적인 성장에 치중하다보니 목회자의 영성은 점점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 결과는 전통적 교회의 신앙적 역동성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는 당연히 전통적 교회의 정체와 쇠퇴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7. 사회 속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전통적 교회의 부정적인 요소들은 결과적으로 사회 속에서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연하게 하였다. 특히, 현대는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정보가 순식간에 공유되는 시대이기에 한 번 퍼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돌리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기 한국 교회는 사회 속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교회와 교인들을 신뢰하였고, 교회를 통해 민족의 소망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현실의 전통적 교회의 이미지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교회는 외적으로 성장하고, 사회는 안정이 되는 가운데 교회 내부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것이 외부에까지 알려지게 되면서 교회는 사회 속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이다.⁹⁷ 전통적인 교회가 한국 사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한 원인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교회 내부의 의사결정의 방법과 그 결과이다. 교회의 의사결정은 구조상 당회가 그 권한을 갖는데 당회와 교인의 의사소통과, 더 나아가 젊은 세대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당회의 결정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다보니 이러한 교회 내부의 제도적인 취약점으로 인한 갈등이 야기된 것이다.⁹⁸ 이런 문제로 인해 교회가 갈등하게 되고 이것이 사회 속에서 교회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든 것이다.

둘째는, 교회 지도자들 간의 분쟁이다. 교회의 의사결정이 당회에서 이루어지며 당회의

96) 권성수, 양참삼, 이만열, *3인의 석학이 풀어 본 교회성장이야기*, 54.

97) 2017년 기윤실에서 기독교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그렇다(20%), 보통(28.6), 그렇지 않다(51.2%)로 나타났다. 현수철,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목회와 신학* 2017년 4월호, 169.

98) 권성수, 양참삼, 이만열, *3인의 석학이 풀어 본 교회성장이야기*, 40-41.

구성은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와 장로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당회원간 즉 목회자와 장로들 사이의 주도권 다툼이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그 갈등은 교회 전반적으로 갈등의 확산을 가져왔다. 이러한 갈등은 교회 내에서만 감추어지지 않고 교회 외부에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되었다. 심지어는 교회가 세상의 법정에까지 교회의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되니 한국 사회 전체에 그 문제가 알려지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교회 내에서 교회의 지도자들 간의 갈등은 한국사회에서 전통적 교회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당회원간의 갈등의 주요 원인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회원들의 개인의 욕심과 아집에 기인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당회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데, 그와는 상관없는 자신들의 이득과 주장을 관철시키는 장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⁹⁹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사회에 보이게 되니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의 이미지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교회의 지도자들의 세속화이다. 교회의 지도자들인 목사들과 장로들이 교회를 몰량주의, 성공주의 등의 세속적 가치 기준을 높이는 현장으로 사용하다 보니, 진정한 인격과 신앙의 영성은 등한시되었다. 그 결과,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이 약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세속화된 전통적 교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윤리 의식의 약화로 물질 문제와 이성 문제로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게 되었다.¹⁰⁰ 이것이 교회 외부에까지 노출되어 교회의 신뢰성은 실추되고 이미지는 급락하게 된 것이다.¹⁰¹ 최근에 명성교회 세습 사건으로 대표되는 교회의 세습은 사회의 교회에 대한 실추에 결정타를 날리게 되었다.¹⁰²

99) 이요한, “한국교회는 왜 성장둔화의 침체에 부딪혔는가,” *월간목회*, 1992년 10월호, 103.

100) *Ibid.*, 99.

101) 조성은, 정재영 편, *그들은 왜 카톨릭교회로 갔을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7), 9-10.

102) 최승현, “교단장 세습현황”, 뉴스앤조이 2018년 8월 20일자. 기사에 의하면, 2018년 8월 현재, 주요교단별 교단장을 역임한 교회에서 세습이 일어난 경우는 기독교한국침례회 11명, 예수교대한성결교회 8명,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7명, 기독교대한감리회 6명,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4명,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4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2명, 기독교대한성결교회 2명,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2명,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1명,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 2명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회세습이 교단의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교단장의 위치에 있는 교단의 대표자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교회세습에 더 앞장서는 모습은, 교회내 성도들의 실망과 함께 사

전통적 교회가 초기에 비록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긍정적인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전환되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 사회 속에서 전통적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어느 누구 혼자 책임이 아니다. 한국 교회 전체의 책임이다. 그리고 그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 그룹인 목회자와 장로로 구성되어있는 당회에 그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지도자 그룹의 당회원들 중 교인의 훈련을 담당할 목회자에게 그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라도 목회자들이 정신 차리고 장로들과 힘을 합하여 교회 전체가 교회의 본래의 사명인 복음에 집중하고,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한다면 한국 전통적 교회는 성장의 침체로부터 벗어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한국 전통적 교회는 지금의 침체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몰락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8. 한국의 전통적 교회의 부정적 요인들 요약

지금까지 살펴본 전통적 교회의 부정적 요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역사 속에서 전통적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충성과 헌신, 교회의 대사회적 지도적 책임감당 그리고 영적 차원에 대한 관심 그로 인한 교회공동체의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성에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영적인 차원이 아닌 외형적인 성장에 치중하며, 영성이 아닌 외형에 치중하는 것은 결국 교회 내부의 영적인 타락과 윤리적 실패를 초래하였다. 이는 더 심각하게 교회의 예배가 삶의 변화와 무관한 시간이 되어졌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삶과 일치하지 못하게 되었다. 경직된 교회의 조직은 교회 구성원의 참여를 배제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교회들의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은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해 있던 젊은 세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의 요구에 반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교회는 과거에 이루어 놓은 성장에 안주하며 내부에서 기득권 쟁탈전을 하게 되었다.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의 기성세대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던 것이다.

회와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되고, 이는 교회의 공공성 상실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통적인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한국 사회 속에 비치게 되니 교회는 자연스럽게 사회 속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전통적 교회의 정체와 쇠퇴를 더욱 가속화 시켰다.

제 5 장

에덴교회의 역사와 현재 및 1기 목회활성화 전략

전형적인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에덴교회에서 처음부터 한 번에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를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장에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동력이 되는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지는 것이 필요한데, 에덴교회가 처한 위치적인 특징과 에덴교회가 처했던 목회의 상황들과 위기들을 살펴보면, 이런 상황 속에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목회 활성화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 평가할 것이다.

제 1 절 에덴교회의 주변지역의 분석

에덴교회는 1972년 8월 13일 설립 이후, 관악구 봉천동 지역에서 여러 번의 교회 이전과 교회 건축을 경험했다. 새들백 교회를 개척한 릭 워렌 목사는 개척하기 전 교회가 위치하게 될 새들백 밸리 지역의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설문 조사를 했다. 거기서 발견한 여러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교회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첫 예배 시에 205 명이 참석하였고, 10 주 안에 82 명이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결과를 이루었다.¹⁰³ 따라서 교회가 지역 사회 교회들에 대한 의견들을 새들백 교회처럼 그것들을 잘 분석하여 교회 전략에 반영한다면, 교회는 지역 사회와 좋은 관계 속에서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울시 관악구의 위치와 역사

서울시 관악구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적인 삼국사기에 기록될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관악구가 서울시로 편입되기 전에는 경기도 시흥군 지역이었다.¹⁰⁴ 시흥군은 삼한 시대에 마한땅이었고, 백제 근초고왕이 정복한 이후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정복하여 잉벌노현

103)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215-217.

104) 관악구, *구정백서* (서울: 관악출판사, 2008), 5.

(仍伐奴懸)이 되었다.¹⁰⁵ 그리고 통일신라 경덕왕 16 년에 곡양현(穀壤懸)으로 개명, 고려 태조 23 년에 금주(衿州)로 또한 조선 태종 13 년에 금천현(衿川懸), 정조 19 년 시흥현(始興懸)으로 개칭되었다.¹⁰⁶

1962 년 11 월 21 일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관악지역이 경기도에서 영등포구로 편입되었고, 봉천동, 신림동 지역은 관악 출장소로 관리했다. 그 후 1973 년 3 월 12 일 대통령령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로 명명했다.¹⁰⁷

2. 관악구의 지리적 특성

가. 관악구의 지리적 특성

관악구의 인구는 서울시 25 개 자치구 중 5 위(53 만 7235 명)인데 반해, 재정 자립도는 35.2%로 아주 낮아 인구는 많은데 벌이는 적어 전형적인 흥부자치구로 구분되어 있다.¹⁰⁸ 관악구의 면적은 29.57 제곱킬로미터로서, 서울특별시 전체의 4.9 퍼센트를 차지하고 3 개의 법정동(봉천동, 신림동, 남현동)과 27 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악구는 1975 년 서울대학교가 관악산 자락으로 이전하고, 1980 년대 지하철 2 호선이 개통되면서 관악구 지역이 주목받으면서 교회 건물도 대형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구 중심부를 남부순환도로와 지하철이 관통하고 있고, 관악구 안에 관악산 자연공원이 있어 푸른 숲 맑은 공기가 잘 보전된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관악구는 서울시 중심에서 벗어나 있고, 특별한 도시 형성 이점 또한 지니지 못한 관계로 도시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다. 따라서 산세를 이용해 녹지를 중심으로 도심이 형성되어 주거 형태도 아파트보다 연립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중하층인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다. 이런 지리적인 특징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 안에는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옮기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105) 관악구, *구정백서* (서울: 관악출판사, 2008), 5.

106) Ibid.

107) Ibid., 8.

108) Ibid.

나. 젊은 인구 밀집지역

최근 관악구가 서울에서 3대 상권 중 하나로 급부상하면서, 상업적인 건물들이 많이 등장하였고, 교통의 발달과, 인근에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총신대학교, 백석대학교 등 대학교의 밀집과 거대한 고시촌의 형성으로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지역이 되었다. 50여 개의 초, 중, 고 교육시설이 있으며, 대학동 주변에 고시학원 등이 밀집되어 고시촌이 활성화 되었으나, 로스쿨 시행으로 학생들이 떠나고 주변 상권이 쇠퇴하는 등 고시촌의 슬럼화가 우려되고 있다.¹⁰⁹ 서울시 인구의 5.2%에 해당하는 관악구 인구는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503,297명이다.¹¹⁰ 서울시의 5.1%에 해당한다. 평균 연령은 서울시 평균연령인 36.5세보다 낮은 33.5세가 될 만큼 젊은이가 밀집한 지역이다. 하지만 2013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59,333명으로 인구비중은 11.5% 고령화 사회이다.¹¹¹ 젊은이 인구가 많으며 동시에 인구구성비가 고령화 사회가 말하는 것은 관악구 안에 젊은이와 노년의 인구가 공존하고 있지만, 젊은이는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이고, 노년의 인구는 오랫동안 관악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악구는 전국에서 모여든 대학생 및 고시생, 젊은 회사원들로 인해 젊고 발달한 곳이 되었다. 이로 인해 원룸 및 오피스텔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더욱 나은 인생을 준비하기 위한 건전한 휴식 공간과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런 부족 현상은 젊은이들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유흥가로 향하게 하고, 특히 신림동사거리에 밀집한 유흥가로 인해 술 마시고 새벽까지 배회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2016년 관악구에 속한 사업체 27,432곳 중에 숙박 및 음식점을 하는 사업체가 5,769곳으로 전체 사업체 중 21%로 늘어났다.¹¹² 이런 환경에서 관악구에 속한 교회들이 서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젊은 기독교인들의 건전한 문화를 소개하고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에덴교회가 속한 행운동(봉천 6동)의 젊은이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적인 접근의 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가 에덴교회에 사역할 당시, 성도들의 평균연령이 이미 60세이었고, 수년간의 목회

109) 관악구, *관악구 민선 6기 일자리대책 종합기획*, 2014년 11월, 6.

110) 관악구, *구정백서*, 7.

111) 관악구, *관악구 민선 6기 일자리대책 종합기획*, 8.

112) 관악구, *관악통계연보* (서울: 관악출판사, 2016), 40.

활성화 전략으로 인해 에덴교회의 평균연령이 점차로 낮아지는 추세였지만, 젊은 인구의 유입은 제한되어 있고, 그나마 기존의 교회 안의 젊은 세대도 이러한 주변 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젊은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한 기독교 문화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

다. 매년 전출입 인구와 유동인구가 높은 지역

서울시 주요 도로인 남부 순환도로와 지하철 2 호선을 통해 관악구를 지나는 하루 유동 인구가 60 만이 넘는다. 이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움직인다. 대부분의 거리나 상점에는 항상 젊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활기찬 힘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 그러나 관악구는 매년 구민들의 전출입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첫 번째 이유는, 구민의 55%¹¹³가 전월세입자들이기 때문에 거주기간이 짧아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1-2 년마다 이사해야 한다. 관악구 통계에 따르면, 매년 전출입 인구가 32-35%라고 한다. 빈번한 이사는 서울의 변두리 지역에서는 늘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관악구는 유독 높은 편이다.

두 번째 이유는 관악구 인구의 35%에 해당 하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대학생들과 거대한 고시촌을 중심으로 한 고시 수험생들이 학교 진학과 취업, 그리고 각종 고시 및 새로운 진로를 따라 많은 이동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관악구를 잠시 머무는 지역으로 생각하다 보니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낮은 편이다. 가능한 결혼이나 취업을 통해서 관악구를 벗어나려는 심리가 강하다.

이런 성향은 이런 배경을 가진 지역사회에 속한 에덴교회를 비롯한 관악구에 속한 교회들의 성도들에게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젊은 층의 성도들이 몇 년 단위로 지나가는 교회라는 인식이 강하였고, 기존 성도들과의 유대감 형성 및 교회에 대한 소속감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기존 성도들의 자녀들도 관악구 지역은 취업과 결혼으로 떠나야 할 곳으로 인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 에덴교회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교회를 옮기거나,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라. 관악 지역에 대한 자부심 부족

관악구는 주민 80% 이상이 다른 지역을 고향으로 두고 있으며, 결혼한 대부분의 사람은 작은 다세대 주택에서 맞벌이로 살고 있다. 이들에게 느끼는 공통적인 특징은 관악 지역

113) 관악구 구정백서, 9. 자가 주택 보급률은 45 퍼센트, 전월세입자들 55 퍼센트에 달하였다.

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에 대한 소속감도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그 이유는 현재는 상당히 발전되어 있으나,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인식은 청계천으로부터 철거민들이 집단 거주한 달동네였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리고 일정 기간 학업과 취업으로 인해 관악구에 머무르고 있던 청년들도 졸업이나 취업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지역을 떠나간다. 따라서 이들에게 이사 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꿈꾸는 미래와 연결되어 있고, 이사를 통해 곧 교회를 떠난다는 것과 연결된다.

더군다나 20% 정도의 관악구 지역 토박이들은 서로에 대한 강한 연대감으로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이런 성향은 새 가족들이 기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정착하려 할 때도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에덴교회가 속한 관악구 지역은 인구의 유동이 많고, 새 가족들의 정착 기간이 짧고 쉽게 교회를 떠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성장하기에 어려운 요건들로 둘러싸여져 있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인구가 아직 많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높은 수용성과 이웃들과의 서로간의 관계 형성이 잘 되어 있다. 교회 안에서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져 가고, 그 삶의 모습들이 이웃들에게 전해 질 때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 재고와 관심 및 그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3. 관악구의 인구분포와 종교적 현황 (특징)

관악구 봉천동의 대다수 주민은 1-2 년에 한 번씩 잦은 이사로 변화를 겪고 있는 중하 위층 전세 세입자 들이다. 이와 같은 삶의 조건들로 인해 관악구 주민들은 피터와그너가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경험할 때 복음에 대해 수용성과 복음화율이 높아진다.”¹¹⁴ 라고 말한 것처럼, 다른 지역보다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복음화율도 높은 편이다.

초기 관악구 주민들은 1960 년대 중반부터 청계천으로부터 집단 이주된 철거민과 이주민들로 이곳을 찾았고 정착촌을 형성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¹¹⁵ 그 당시 교회들은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마음에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이로 인해 교회가 1950 년대 세워진 교회가 1 곳이었던 것에 반해, 1960 년대에 약 30 개의 교회가 설립되었고, 1970 년대는 60 개의

114) Peter Wagner, *교회성장전략 (Strategies for Church Growth)*, 명성훈 역 (서울: 나단 1995), 88.

115)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편, *서울민족대관* (서울: 예문사, 1996), 749.

교회가, 이후 교회의 설립이 급격히 증가되어서¹¹⁶ 현재 385 개의 교회가 되었다.¹¹⁷

관악구에 속한 교회수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현재의 교회들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매우 미약하다. 그 이유는 사회가 급속히 발달하면서, 교회가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의 중심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장기적으로 관악구는 일부 상업지역과 대부분의 주거지역이 함께 공존하며 성장하는 지역이 된다. 그리고 에덴교회와 인접한 주변 지역까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어서 지역사회는 더욱 발전할 것이다.

4. 관악구의 미래 전망

관악구 지역의 미래 목회 상황을 전망하기 위해서 관악구청에서 실시한 관악구에 대한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소) 분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관악구에 대한 SWOT 분석¹¹⁸

강점 (Strengths)	약점(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사회적 경제조직 및 사회적 경제 생태계 기반조성 • 서울대 위치로 우수 인재의 지역사회 유입 및 활동 활발 • 강남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인 이하 영세업체가 다수 차지하여 일자리 창출 인프라 부족 • 높은 구직수요에 비해 낮은 구인수요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치 • 공공일자리에 의존하는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 다수 거주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와의 학관 협력으로 지역 재생을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보육, 기초연금제도 시행 등 예산 부담

116) 관악구편찬위원회, *관악20 년사* (서울: 지성사, 1996), 545-546.

117) 관악구, *구정백서*, 11.

118) 관악구, *관악구 민선 6 기 일자리대책 종합기획*, 16.

<p>한 각종 사업 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천지역 중심의 도시계획 통과, 신림사거리, 난곡사거리, 시흥 IC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신규 지정등 대규모 상업 건축물 건립기반 조성 • 서울대의 삼성 R&D 센터 건립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입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p>분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공장, 기업, 사업장 등이 다수 소재한 금천, 구로 등의 인근 상업지구 존재 • 로스쿨 제도 시행으로 인한 고시촌 쇠퇴
---	---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교통 등 지리적인 위치와 낮은 임대료 등 관악구가 처한 입지적인 조건은 좋지만, 동시에 이로 인해서 오래 정착하는 인구보다 짧게 거주하는 인구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여 든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짧게는 4년에서 10년 사이에 머무는 인구가 많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제2절 에덴교회의 역사와 1기 목회활성화전략

필자는 에덴교회 47년의 역사를 교회연혁에 따라 그동안 시무한 담임목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한국전통교회의 특성상, 교회의 활성화는 담임목사의 리더십에 많은 부분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앨런 벨슨과 진 아펠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쨌든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려면 리더십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도자는 변화의 핵이다.”¹¹⁹ 따라서 에덴교회의 역사를 역대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119) Nelson and Appel, *교회를 살리는 교회 개혁 (How To Change Your Church)*, 조계광 역 (서울: 생명 의말씀사, 2002), 174.

자 한다. 이에 앞서 설립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 에덴교회의 설립동기와 교회설립 초기의 사건들

에덴교회는 2018년 현재까지 4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에덴교회의 개략적인 역사와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교회 요람, 주보 영인본 및 개적 당시 교인인 A, B 장로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가. 교회 설립 동기

1972년 8월 13일 봉천 3동에 소재한 봉성교회에 출석하던 20여 명의 성도가 봉성교회 담임목사의 분명치 않은 신학 및 신앙고백의 문제로 K 장로의 주도로 봉천 2동 7-126번지, 상가건물을 얻어 봉성교회로부터 분리하여, 에덴교회를 설립하였다. 에덴교회의 처음 출발부터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은 관악구 지역에 건강한 신학과, 건강한 신앙고백에 선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나. 교회 설립 초기 사역들

1972년 에덴교회 성도들은 당시 총신대학교 교수로 봉직하고 있던, 김의환 교수를 설립목사로 모시게 되었고, 당시 명망이 있었던 대학교 교수가 담임목사로 부임했다는 소식은 지역사회에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총신대학교, 서울대학교, 숭실대학교 재학생 및 많은 지역주민들이 에덴교회로 등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20여명의 성도로 시작한 개척교회에서, 김의환 목사 부임 1년 만에 장년 성도 250명으로 급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다.¹²⁰ 계속되는 교인 수의 증가로 상가건물 예배당은 협소해졌고, 1973년 10월에 교회 건축위원회를 조직하여 건물과 대지를 구입하여 1974년 1월에 봉천 6동의 현 교회당 장소로 옮기게 되었다.

김의환 설립목사는 솔직 담백하여 성도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총신대학교 교수라는 명성으로 모든 부분에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었다. 당시를 회고하는 A 장로는 김의환 목사는 “어려운 관악구 지역 환경을 반영하여, 현실에 어려움이

120) 에덴교회 주보영인본 1973년 (서울: 에덴교회, 1973), 11월 교인통계.

있더라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는 설교자였다”¹²¹고 회고 하였다. 하지만 김의환 설립목사는 개인상의 이유로 1975년 9월 18일 돌연 에덴교회를 사임하고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다.¹²²

영적인 권위와 명망을 가지고 목회를 잘하고 있던 김의환 설립목사의 돌연한 사임은 에덴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했다. 이 혼란의 시기에 역시 총신대학교 교수로 봉직하던 김희보 목사가 1975년 10월에 설교 목사로 부임했다.¹²³ 김희보 목사는 약 7개월 간을 설교목사로 있으면서, 에덴교회의 어려운 시기를 잘 이끌었고, 성도들도 명망이 있는 총신대학교 교수가 설교목사로 있다는 데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김의환 설립목사, 김희보 설교목사가 있던 약 4년여의 세월은 이후 에덴교회 역사에서, 오랫동안 명망이 있던 신학자이자 교수를 담임목사로 모시고 있었던 전통과 명성이 있는 에덴교회라는 의식을 에덴교회 성도들에게 주게 되었고, 앞에서 살펴본 전통적인 교회의 특징처럼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다. 교회 분립

에덴교회는 1976년 4월 윤석봉 목사를 임시목사로 청빙했다. 윤석봉 목사는 청빙 당시부터 시무장로 중 한 명과의 불화를 이유로 교회 분립을 추진하였고, 부임한지 1년만인 1977년 8월에 담임목사에게 우호적인 120여명의 교인들과 함께 에덴교회를 떠나 지근거리 에 있는 봉천3동에 K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 교회분립 사건은 김의환, 김희보 두 목사의 명망과 교인들의 노력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던 에덴교회에 큰 타격을 주게 되었고, 이후 교회 성장의 동력을 상실하고 오랜 기간 정체기에 빠지게 만든 사건이었다. 교회 성장의 동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 분열에 대한 깊은 상처를 교인들에게 주었고, K교회로 분립한 교인들과 비교하여 패배의식과,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버린 목회자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만든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런

121) 에덴교회 A 장로와의 인터뷰 중.

122) 에덴교회 주보영인본 1975년 (서울: 에덴교회, 1975), 9월.

123) Ibid., 10월.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중직자들의 가족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2. 1대 위임목사 사역시기 (윤낙중 목사: 1977년 9월 - 2006년 2월)

가. 1대 위임목사 윤낙중 목사 부임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의 시기에 당시 정릉 성천교회를 담임하던 윤낙중 목사가 1977년 9월에 부임하였고, 12월에 에덴교회 1대 위임목사가 되었다.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은 어려운 시기였고, 설교 및 모든 사역이 설립목사였던 김의환 목사와 비교, 평가가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젊고 유능했던 윤낙중 목사는 열정적인 목회로 위기상황 등을 하나씩 극복해 나갔다.¹²⁴ 1982년 3월에는 에덴선교원을 설립하여 교회 밖의 지역사회로 한 걸음 다가서기도 하였다.¹²⁵ 윤낙중 목사는 영등포교회 담임목사였던 방지일 목사의 제자로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스승 방지일 목사의 영향과 멘토링으로 성도의 어려움을 먼저 돌아보고, 목회의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갔다.

나. 목회의 위기와 극복

힘든 상황에서도 목회를 잘 감당하던 윤낙중 목사는 두 번의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첫 번째 위기는 1983년 3월 윤낙중 목사의 부인인 손영자 사모가 소천한 것이다. 교사로 재직하던 손영자 사모의 퇴직금 전액은 교회 장학헌금으로 기탁이 되었고, 1982년 4월 에덴장학위원회가 설립되었다.¹²⁶ 이때부터 시작된 에덴장학기금은 36년 동안 꾸준히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¹²⁷ 교회설립에 남다른 열정이 있던 윤낙중 목사는 1984년 9월 육군 제 7789 부대 박종규 집사를 중심으로 제 7789 부대 안에 한마음교회를 설립하였고, 1985년 11월에는 제곡 에덴교회를 설립하여 윤만식 목사를, 1989년에는 동해에덴교회를 설

124) 에덴교회 A 원로장로와의 인터뷰 중.

125) 에덴교회 주보 영인본 1982년 (서울: 에덴교회 1982), 3월.

126) Ibid., 4월.

127) 필자도 에덴교회에서 목회사역을 하던 중에, 에덴장학회 해외유학생 신분으로 풀러신학교에 유학을 오게 되었다.

립하여 문창식 목사를 담임목사로 파송하였다.

하지만 윤낙중 목사는 손영자 사모의 소천 이후, 목회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영향은 교세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에덴교회 주변에 대규모의 재개발 소식이 전해졌고, 재건축 허가를 받은 에덴교회는 윤낙중 목사가 개인 사택을 건축현금으로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십시일반 하여, 1995년 3월 기공 예배를 드리고, 2년 후인 1997년 3월 입당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동시에 교회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었고 약 만 오천 세대가 입주하였지만, 보수적인 성향과 지역 중심적 사고로 인해 기존 교인들과 새로운 등록 교인들 간의 갈등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설립의 비전은 계속되었고, 2000년 2월 아산 에덴교회를 설립하여, 김갑석 부목사를 담임목사로 파송하였다.

두 번째 위기는 2005년에 찾아왔는데, 당시 윤낙중 목사는 목회에 열정을 많이 잃어버리고 교단 및 교회 외부활동에 집중하는 사이, 성가대 지휘로 부임한 P 모 전도사가 약 2년의 시간 동안 성경공부 및 제자훈련을 인도하였는데, 교회의 일꾼이 되는 제자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추종자를 만드는 내용으로 진행하여, 교회의 부정적인 부분들과 담임목사의 목회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에 선동하였고, 이후 에덴교회는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P 전도사가 용인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성도들 마음속에 뿌리내린 불신과 다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이 사태를 중직자를 세우면서 극복하려 했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태에서 일꾼을 세우는 일¹²⁸은 오히려 윤낙중 목사의 조기 은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후에도 교회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고, 교인들 사이에 다툼과 분열은 물론 이 사건을 옆에서 지켜본 중직자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직간접적인 요소가 되었다. 윤낙중 목사는 에덴교회에서 29년을 시무하고 2006년 4월 원로 목사 추대를 받았는데, 한 달 뒤 2006년 5월 윤낙중 목사의 고향인 전라남도 함평 사매원에 11명의 성도와 함께 방문하다가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 성도 3명과 함께 소천하였다.¹²⁹

128) 목회사역의 돌파구가 필요했던 윤낙중 목사는 많은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4년 한해에만 5월, 12월 두 번에 걸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임직하고 취임을 강행하였다.

129) 김진한, 크리스천투데이, 2006년 5월 2일자.

다. 1대 위임목사 윤낙중 목사의 사역과 평가

에덴교회는 초창기 김의환 목사, 김희보 목사와의 같은 탁월한 인물이 설립, 시무했다는 자부심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왔다. 이후 1977년 분열과 P 전도사의 잘못된 제자훈련 및 개척 등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목회자에 대한 불신, 교인들 간의 갈등 및 상처가 많이 남게 되었고, 재개발로 인해서 주변 지역은 급속히 발전하였지만 교회가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착화 되어 있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새 신자 그룹이 교회에 방문하였을 때, 기존의 교인들과 함께 어울리기 어렵다는 단점과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지 못하고, 고립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앞서 전통적인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요소들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툼과 분열의 과정의 중심에 있었던 성도들의 가족, 자녀들이다.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 보면서, 누구보다 더 교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었고, 교회를 등지고 떠나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신앙을 버리는 일도 일어나게 되었다. 교회의 활성화 전략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하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윤낙중 목사의 사역에 긍정적인 평가도 공존한다. 먼저 부임 초구나 부임 말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목회를 감당하며, 지교회들을 개척하고, 새로운 교회당을 건축하며 목회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하였다. 교회 외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예장개혁 교단의 총무 및 2004년 8월 교단총회에서 87차 총회장을 역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던 CTS 기독교방송국을 위해 초교파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정상화하는 일에 큰 공헌을 하였고, 2005년 예장합동교단과 예장개혁교단이 평화롭게 합동하는 일에 큰 공헌을 하고, 합동하는 당시에 예장개혁교단을 대표하여 합동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교단 합동 후에도 합동총회 평양대부흥 1백주년 기념대회 공동기도문을 작성하는 등 왕성히 활동했다. 교단 내의 활동은 물론 한기총 공동회장, 전국목회자포럼 공동대표,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공동회장 등 교계에서도 중직을 역임하는 등 교단의 발전에 큰 역할을 감당하였다.

하지만 담임목사의 이런 외부활동은 초창기 김의환, 김희보 목사가 사역했던 사실에 더

하여, 교단 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자부심으로 허울 좋은 명성에 기대게 하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3. 2대 위임목사 곽성덕 목사 부임과 목회활성화 준비 (2006년 2월 - 2006년 12월)

곽성덕牧사는 예장합동교단 출신 목회자로, 예장합동교단과 예장개혁교단의 합동 이후, 2006년 2월 에덴교회에 2대 목사로 위임을 받게 된다. 곽성덕 목사가 부임하던 2006년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이를 돌파하기 위한 목회 활성화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던 시기였다. 더군다나 부임 후 얼마 되지 않아 교통사고 때문에 윤낙중 원로 목사와 성도 3명이 소천하는 사건으로 교회 전체가 큰 슬픔에 빠져서, 어려움을 빠져 나가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했다.

가. 교회의 어려움과 목회 활성화의 요구

곽성덕 목사가 부임하던 당시 에덴교회의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화를 거부하는 노령화된 성도들의 존재이다. 곽성덕 목사 부임 당시 중직자들의 평균연령이 60세 이상으로 노령화되어 있었다.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의 특징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변화를 거부하는 지역적인 특색과 오랜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지켜왔지만, 그로 인해서 마음에 깊은 상처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는 특징이 있었다. 젊은이가 밀집되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항상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자신의 기득권이 침해를 당한다고 여겨지면, 이에 반발하여 갈등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갈등 속에서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물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던 젊은이들도 교회를 떠나는 일이 계속 발생하여, 교회 안에서 세대 간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다. 이런 교회 안의 갈등회복을 위한 목회의 전략 수립 및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회계획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둘째, 교회가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현상 유지에 급급한 상황이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성도들의 숫자뿐만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의 힘,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릭 워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회는 살아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다면 성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회는 몸이며 사업이 아니다. 교회는 생명체이지 조직이 아니다. 교회는 살아 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죽은 것이다.¹³⁰

교회는 현상 유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교회지도자들이 성장의 방해물을 점검하고 제거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¹³¹ 지금까지 에덴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비전이 명확하지 않고, 열정도 많이 사라졌으며,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에도 실패하여 단지 지역의 특징을 가진 동우회, 향우회와 같은 모임만이 활발할 뿐이었고, 기존 성도들 간의 결속력만 단단하여, 새로운 성도들이 그 모임에 들어오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도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도 부족한 구조였다.

잃어버린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일예배의 철저한 준비와 예배에 임하는 자세의 점검, 주일에 드러지는 예배와 일주일간의 삶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셋째, 서로에 대한 갈등과 불신이 팽배한 분위기였다. 교회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완전한 의인의 모임은 아니다. 따라서 갈등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갈등을 풀어가는 당사자들이 믿음으로 갈등을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하여 교회 구성원 사이에 큰 상처와 마음의 앙금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¹³²

곽성덕 목사 부임 당시 대부분의 에덴교회 성도들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적인 교제를 바탕으로 한 만남보다는 개인적 친분, 유대관계에 집중하는 교제 모임에 익숙했다. 그런

130)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25.

131) Ibid.

132) Peter Wagner, *교회 성장의 벽을 극복하라 (The Everychurch Guide to Growth: How Any Plateaued Church Can Grow)*, 오수현 역 (서울: 침탑, 2008), 31.

모임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서로를 칭찬하는 말 보다는, 다 들어지지 않은 말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모임 중에 갈등이 계속 반복되었다. 이런 갈등이 발생하며 서로 이 갈등을 해결하면서 더 가까워지는 계기로 삼기는커녕, 갈등이 생긴 모임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었다.

이렇게 갈등과 불신이 팽배한 분위기 속에서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인 담임목사와 장로들을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불신과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쉽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모습은 자녀들에게도 악영향을 주어서, 자녀세대도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넷째,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의 부재, 에덴교회는 주일예배 외에 주중의 다른 교육 및 훈련이 전무하였고, P 전도사의 개인의 목적을 위한 잘못된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의 여파로 영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결과 주일과 6일의 삶이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사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런 영적인 분위기는 장년층에서부터 청년, 청소년부 어린이부서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그동안 잘못된 훈련으로 인한 여파를 바로 잡는 일도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광성덕 목사 부임 후 목회활성화 전략 시도

(1) 청빙과정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광성덕牧사는 2006년 2월 5일 에덴교회 제 2대 위임목사로 부임하였다.¹³³ 에덴교회가 윤낙중 목사의 은퇴를 결정하고, 후임목사 청빙을 위해 청빙위원회¹³⁴를 조직하여, 1년 6개월이 지난 후였다. 1년 6개월의 시간동안 에덴교회는 여러 번의 청빙 절차를 거쳤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이는 교인들에게 위기의식으로 다가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해 온 성도가 한마

133) 에덴교회 요람 2007, (서울: 에덴교회, 2007), 2.

134) 에덴교회 당회록 2004, (서울: 에덴교회, 2004), 20.

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여 힘을 썼는데, 이는 훗날 에덴교회의 재도약을 위한 영적 원동력이 되었다. 이 시기에 2005년 9월 28일 90회 예장합동총회에서 예장합동교단과 예장개혁교단이 합동하는 것이 전격 결의되었는데,¹³⁵ 교단 합동 결의 후, 에덴교회 청빙위원회는 합동교단 출신 목회자를 청빙하기로 결정하고 곽성덕 목사를 추천받았다. 곽성덕 목사는 2006년 1월 첫째 주일에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설교를 하였고, 다음 주 공동의회에서 높은 찬성률은 아니지만, 에덴교회의 모든 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찬성률로 에덴교회 2대 위임목사로 청빙이 결정되었다.¹³⁶ 2006년 2월 첫 주에 담임목사로 부임 설교를 하였다. 에덴교회의 거듭되는 청빙 실패의 과정은 거듭되는 아픔과 실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 이 시간을 통해서,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동안 상처만 주었던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에덴교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다.

(2) 교회 활성화를 위한 준비

곽성덕 목사는 부임 당시 약 40년이 된 에덴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상의 회복, 영성의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의 뒷받침이 필요함을 절실히 공감하면서 목회 활성화를 위한 준비를 다음과 같이 시작했다.

첫째, 교회 활성화를 위한 조직을 정비하였다. 곽성덕 목사 부임 당시에는 서로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깊은 감정이 골이 형성되어 있었고, 위임식 직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윤낙중 원로목사 및 교인들의 사망 사건으로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 위기가 곧 기회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활성화를 위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장로와 안수집사들 27명 전원을 활성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먼저 직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¹³⁷ 매 주일 오후 예배 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양육을 겸한 모임을 가지면

135) 김진한, “합동개혁 26년 만에 ‘전격 교단 통합’”, 크리스천투데이, 2005년 9월 27일자.

136) 에덴교회 후보 영인본 2006, (서울: 에덴교회, 2006), 1월 15일자 후보. 2006년 1월 8일에 있었던 공동의회의 결과이다.

137) 김석년, *패스 브레이킹*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99-100. 그는 교회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큼,

서,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을 함께 공유하며, 직분자로서 기본적인 소양 교육과 인간관계에 대한 교육,¹³⁸과 교회사역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담임목사와 중직자들과의 영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었고, 함께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 이후 앞으로 에덴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며, 직분자로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나누는 소그룹으로 이어졌다.

교회 활성화를 위한 특별 위원회는, 2006년 10월 15일 주일예배 후 전교인을 대상으로 한 목회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지고, 교회로고(CI)를 새롭게 만들고 2006년 11월부터 홈페이지(www.eden21.org)를 개설하였고, 교회 후보디자인의 교체, 서울대입구역과 지역 노선 버스에 교회홍보물 게시, 광성덕 담임목사의 CTS 방송 설교 출연 등, 전통적인 사고를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담임목사와 중직자간에 형성된 영적인 공감대가 교회 전체로 흘러가게 되었고, 교인들 모두가 다시 할 수 있다, 해보자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는 목회 활성화를 시도하면서 실질적인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중보기도특공대를 작성하고, 담임목사와 교회활성화위원 27명에 각각 3명씩 기도 후원자를 작성하여,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가지며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회를 위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인들 간의 영적 관계가 개선이 되었다. 기도 모임을 통해 담임목사와 중직자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생기고 리더를 위해 전교인이 함께 기도해야겠다는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고, 목회의 비전과 철학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동역자를 세우는 일을 귀히 여긴다. 따라서 처음부터 동역자인 사람은 없다. 관심어린 보살핌과 사랑, 그리고 강한 훈련을 통해 동역자를 키워내야 한다. 이는 작은 교회일수록 개척 멤버의 태도가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할 뿐 아니라 교회의 비전, 영적 수준, 사명의 성취 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138) Ibid., 80. 그는 인간 관계를 귀히 여겨 “뛰어난 대인 관계는 성공요인의 85 퍼센트이다”라고 했다. 따라서 신뢰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인정하고, 배려하며 팀워크를 이루어 함께 일하는 것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한다.

(3) 목회철학과 비전 수립

(가) 에덴교회의 비전 세우기

교회 활성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공동의 목표인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릭 워렌은 “의기소침한 교회를 생기 왕성한 교회로 바꾸는 데는 교회의 목적을 다시금 발견하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은 없다”¹³⁹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담임목사의 삶에 명확한 비전을 부어 주시면 그때부터 그의 삶은 엄청난 변화를 체험하게 되며,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줄줄이 그의 비전에 전념이 되기 때문이다.¹⁴⁰ 곽성덕 목사는 이 점을 착안하여 교회 활성화 위원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관악구에 에덴교회를 세우시고, 에덴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찾으려 하며, ‘모든 성도들이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고 다음세대를 준비한다’라는 핵심가치를 찾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가져야 할 4가지 공동체의 모습을 선포하였다.

첫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교회구성원 중에는 주중에는 가족과 떨어져서 지방에서 생업에 종사하거나, 주일에도 생업과 학업 등에 관계된 일로 주일예배 참석이 불규칙한 사람이 상당수였다. 따라서 주일 오전 예배가 이들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나마도 11시 예배에 꼭 참석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없다.

따라서 매시간 예배에 목회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 무엇보다 영감 있고 생동감을 지닌 예배를 통해 어느 시간에 예배를 참여해도 주일 낮 예배(11시)와 같은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예배의 차별화와¹⁴¹ 복음주의 신앙에 기초한 강한 메시지를¹⁴² 담은

139)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99.

140) 정인수, *영혼을 혁신하는 목회 리더십* (서울: 두란노, 2008), 39.

141) 에덴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의 성격과 형식을 다양하게 디자인 하였다. 1부예배는 말씀의 목상이 중심이 되는 예배, 2부예배는 전통적인 형식의 예배, 3부예배는 젊은이 중심의 열린 찬양예배 (주일 오후 예배의 이름을 3부예배로 바꾸었다), 수요일예배는 권별 성경강해 설교로 진행하고, 새벽예배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1부는 5:30분에 기존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2부는 직장인들이 출근직전에 드릴 수 있도록 6:30분으로 정하였다.

142) 박용규, *한국교회를 깨운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152. 그는 “성경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말씀 증거를 통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은혜를 받아 자발적으로 다른 예배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인이나 소그룹에서 매일 성경 본문을 묵상하고, 체계적인 양육과 성도들의 합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성도들이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새벽 2부 예배를 신설하였고, 새벽예배의 본문을 매일성경¹⁴³과 같은 본문으로 진행하며, 새벽기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같은 본문을 각자의 삶 속에서 함께 묵상하고, 적용하고 소그룹 나눔을 통해 영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이혼과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가정의 해체는 더는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지 못할 만큼 보편화 된 사실이다. 이런 가정의 해체는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 모두가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정작 건강한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적다. 기회가 있더라도 남의 눈을 의식하는 한국인의 체면 문화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될까 두려워서 교육이나 상담을 받기를 꺼린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했다. 매년 부부행복학교와 아내행복교실을 시작하였다.

부부행복학교는 담임목사부부가 직접 행복한 부부의 모델이 되어서 하이패밀리에서 제공하는 12과 교재를 에덴교회 실상에 맞게 4주 과정으로 재편하여¹⁴⁴ 4주간의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4주 세미나 후에 5주에는 한강과 남산타워, 혹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부부끼리 식사하며 친밀감의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부의 실제적인 결혼 생활이 많은 부분 노출되어, 부부행복학교를 시작한 처음에는 안타깝게 중도 탈락하는 가정이 많았다. 그래서 부부행복학교를 진행하면서 함께 하는 다른 가정들에 대한 비밀을 지키는 부분과 서로 격려하여 마지막까지 과정을 마치는 일에 힘썼다.

에 기초한 설교처럼 청중을 움직이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 앞에 복종 할 수 있도록 결단을 촉구 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믿는다.

143) 성서유니온에서 발행하는 월간 성경묵상집이다.

144) 1과 애정과 존경, 2과 남녀의 차이, 3과 자아상, 4과 예배와 세상.

아내행복학교는 에덴교회의 여성사역자가 하이패밀리의 교재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총 5 과로¹⁴⁵ 구성되어 있고 2 기부터는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부행복학교를 수료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부부행복학교와 아내행복학교가 진행됨에 따라 처음에는 가정의 문제로 목회상담을 하는 것에 어색해 했지만, 점차 익숙해져서 함께 가정의 고민을 나누고, 기도하는 통로가 되었다.

에덴교회의 가정 사역을 시작하면서 “에덴교회만 가면 가정이 변합니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가정 사역의 목표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 성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 먼저 부모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가지게 하고, 부모와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의 회복의 필요를 느꼈다. 성경 안에서 보여주는 아버지상, 어머니상을 통해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과 강조, 예비 부부 교육 및 결혼주례, 신혼 가정 심방, 출산 가정, 이사 심방, 첫돌 감사, 장례 예배에 힘을 쓰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가정을 전하고, 각 가정에 예배와 축하, 위로, 격려하는 일에 힘을 쓰며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기존에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자녀세대들의 인식 개선이 일어나게 되었다.

셋째, 전도로 열매 맺는 교회,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성숙한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 이를 위해서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힘을 써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 정체나 감소 현상의 원인은 일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지 않아서 이기 때문에¹⁴⁶, 믿지 않는 가정 식구들과 친구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적절한 시점에 그들을 초대하는 ‘투자과 초대’ 전략을¹⁴⁷ 가져야 한다. 영적 성숙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과의

145) 1 과 돕는 배필의 일곱 가지 선언, 2 과 남편 바로 보기, 3 과 쓴 마음의 치유, 4 과 관계건축가로서의 아내, 5 과 꿈이 있는 가정 꾸미기.

146) 박영철, “진력할 목회의 목표, 전도와 새신자 양육,” *목회와신학*, 2004년 7월호, 85.

147) Andy Stanley, Bill Willits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노스포인트 교회 전도전략 (Creating Community: Five Keys to Building a Small Group Culture)*, 이중순 역 (서울: 디모데 2006), 67.

관계 맺음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계전도에서 울타리를 사이에 둔 이웃 관계에서 가까운 친구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¹⁴⁸ 그러기 위해 직업, 취미, 스포츠, 레저활동과, 가족 활동, 휴가, 자녀들의 활동과 특기, 종교 배경, 개인의 소유 곧 차, 애완동물, 정원¹⁴⁹ 등에 관한 적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을 권고한다. 일상생활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에덴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소문과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이를 위해, 성도들이 믿지 않는 이웃과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성도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전도의 안목으로 볼 수 있고, 전도의 안목으로 관계가 형성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했다.

매주 목요전도대를 통해서, 매년 10 만 잔이 넘는 건강차와 커피를 나누며 전도하고, 매주 토요일 청년들이 지하철에 커피와 요구르트를 나누며 전도하고, 주중에는 주변 캠퍼스를 심방하여 1:1 전도를 실시하였다. 매년 상반기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초대하는 가정초대전도 주일과, 하반기에는 1년 동안 기도로 작정한 태신자들을 전도하는 새생명큰잔치를 통해 가정의 복음화 및 에덴교회 주변지역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힘든 에덴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하는 일에 힘을 쏟았으며, 국내 농어촌 및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¹⁵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 해외각지에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며,¹⁵¹ 선교지의 교단과 연계하여 현지인 목회자가 목회할 수 있는 교회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¹⁵²

148) Joseph C. Aldrich, *생활전도 (Lifestyle Evangelism: Learning to Open Your Life to Those Around You)*, 오정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221-222.

149) Ibid., 221-223.

150) 에덴교회는 2018년 12월 현재, 동해지역의 1개의 지교회의 교회운영비와 목회자 사례비를 감당하는 일과 13개의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9개의 기독교단체 및 기관을 후원하고 있다.

151) 2018년 12월 현재 9명의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다.

152) 에덴교회의 교회 설립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에도 설립되었는데, 인도네시아 웅아란지역에 웅아란 에덴교회를 설립하였고, 캄보디아 스와링 지역에 브레이 롬텅 에덴교회와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

에덴교회는 성도들을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 이웃을 섬기는 자로 계속 훈련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 사회 봉사활동과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는 활동, 에덴어린이집, 에덴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공부방, 특수학교, 경로대학 개설 및 장애인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들도 계속하고 준비하는 중이다. 이런 사역들을 통해 관악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넷째,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들은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복음의 가치는 변함이 없지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하는 고민과 함께 교회는 미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미래 시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은 중요하다. 젊은이 중심의 사역 확대와 가정과 교회학교와 연계한 교육, 장학금 지급을 통한 인재양성,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준비된 지도자로 목회자양성 등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

4. 광성덕 목사 사역 1기와 목회활성화 전략 (2007년 1월 - 2010년 12월)

에덴교회의 목회 활성화를 시도하면서, 먼저 핵심대상 그룹을 설정하였다. 에덴교회 주변의 평균 연령은 32-35 세가 될 만큼 젊은 인구가 많은 지역이지만, 광성덕 목사 부임 당시 성도들의 평균 연령은 59 세였다. 지역사회를 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지역 평균 연령대인 32-35 세 젊은 직장인을 핵심대상으로 두고 시작했다.¹⁵³ 따라서 모든 목회활성화 계획은 젊은 직장인과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교회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초점을 두었고, 일상에 지친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해 삶의 감동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에덴교회 목회 활성화 비전을 ‘삶의 감동이 회복되는 교회’로 표현하게 되었다. 에덴교

에 다바오 에덴교회를 설립하고 현지의 건전한 교단과 연계하여, 현지인 목회자를 세워 목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비정기적으로 현지인 목회자와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그들의 체류비 전부를 지원하며, 목회에 힘과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지원하고 있다.

153) 핵심 그룹을 설정함은 다른 그룹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 정하는 것이다.

회의 목회활성화 계획은 다음의 목회 활성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다.

가. 새 생활영성훈련

목회 활성화를 시작하면서, 먼저 그 대상이 되는 성도들의 의식 변화와 가족과 성도 및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생활 영성에 대한 훈련을 시작하였다.

(1) 미인대칭 캠페인

모든 예배와 양육 시간을 통해 미인대칭 캠페인을 교회와 가정에서 시작했다. 미인대칭이란 미소, 인사, 대화, 칭찬을 말하며,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인색하고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훈련해 나갔다.¹⁵⁴ ‘미소짓기: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인사하기: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 자연스럽게 인사가 나와야 한다. 대화하기: 대화가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귀가 열린다. 칭찬하기: 늘 칭찬하고 격려하며,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자.’¹⁵⁵ 교회의 가정과 벽면에 표어를 부착하고, 모든 양육과 주일예배 설교 전에도 1분 동안 옆의 사람들과 미인대칭을 통해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정에서부터 자녀들과 눈을 마주치는 대화와 칭찬을 통해, 차츰 서로의 마음이 열리고 축복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¹⁵⁶를 전교인 필독서로 지정하여, 함께 읽고 모든 대화를 칭찬으로 시작하여 칭찬으로 마치게 하는 것을 강조했다. 미인대칭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오랜 세월 마음의 내면에 자리했던 쓴 뿌리들, 열등감, 상처, 분노 등이 성령의 역사로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성도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은혜로운 대화들과 영적 분위기가 형성되기

154) 이상만, *12 단계 오이코스 전도* (서울: 오이코스코리아, 2005), 70.

155) Ibid., 70.

156) Kenneth Blanchard,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Whale Done!: The Power of Positive Relationships)*, 조천제 역 (서울: 21세기북스, 2002). 이 책은 칭찬과 긍정적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고래 반응에 비유한다. 무게가 3톤이 넘는 고래가 관중들 앞에서 열정적이고, 멋진 쇼를 펼쳐 보일 수 있는 것은 고래에 대한 조련사의 긍정적 태도, 그리고 칭찬과 격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긍정적 사고와 칭찬의 위대한 힘을 증명하는 책이다.

시작했다.

(2) 내적치유

성도들의 마음의 쓴 뿌리와 상처의 치유에 대한 치료의 필요함을 발견하고, 공예배 설교 후 바로 자신의 왼손을 가슴에 얹고 마음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고, 오른손은 아픈 환부에 올리고 뜨겁게 기도를 시작했다. 또한 수요일예배 중 6주간의 특별과정을 통해 성경에 실패를 경험했던 인물들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며 내적치유를 했다.¹⁵⁷ 또한 매년 1회 이상 1박 2일 동안 회원 20명을 정원으로 하여 내적치유수양회를 개최하였고, 참여자들은 내적치유 세미나를 통해 자신의 죄와 상처에서 자유하게 되고, 영성 회복 및 은사와 비전을 발견하는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¹⁵⁸

(3) 긍정적인 사고와 언어훈련

감동이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목회자 및 중직자들이 다른 곳을 방문했다.¹⁵⁹ 이를 통해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전문승무원을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하였고, 교회의 인쇄물과 안내위원, 주차위원의 유니폼을 밝고 세련된 것으로 교체했다. 2006년 한 해 동안 30주를 ‘말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격려의 말, 희망의 말, 긍정적인 말, 생명의 말을 하는 것 등, 언어훈련에 대한 설교를 하였다. 이를 통해 교인들이 점점 언어의 강력함을 깨닫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되었고, 이전에는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소문이 날까 이야기를

157) 6주간 진행된 내용은, 인생의 방향을 잃은 아합과 이세벨, 두려움에 빠져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버림받은 사울 왕, 외형주의에 빠져 외식하다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살은 실수를 매전 거듭하면서 모든 것을 잃은 삼손, 과거에 얽매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이들에게서 배우는 인생의 원리를 개인의 삶에 적용하며 치유사역을 진행 했다.

158) 내적치유수양회의 강사는 담임목사와 내적치유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강의가 진행되었고, 내적상처와 치유,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랑, 성령과 치유, 분노와 우울치유, 하나님의 음성듣기와 영적전쟁, 영성회복과 은사관리, 소그룹 토의와 발표 등으로 진행되었다.

159) Mark L. Waltz, *감동이 있는 교회는 첫인상부터 다르다 (First Impressions: Creating Wow Experiences In Your Church)*, 서진희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44-45.

하기를 꺼렸지만, 이제는 속마음을 터놓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기 시작했고,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4)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교육

공 예배 와 양육프로그램 및 교회의 각종 모임마다, 목회자와 장로들을 위한 기도를 빠지지 않고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목회자, 장로, 부모에 대한 영적 권위를 강조하는 교육을 계속 시행하였다. 장로들도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솔선수범하여 성도들을 심방하고 겸손히 섬기는 일에 앞장섰다. 매년 5 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세미나를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어른들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 줄 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을 강조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나. 현대적 감각의 교회건물 리모델링

곽성덕 목사 부임 당시, 에덴교회는 1997 년에 본당 입당과, 2004 년 교육관 준공예배¹⁶⁰ 이후에 재정 부족으로 10 년의 시간 동안 예배당의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매년 여름에는 비가 새고, 어두운 교회 내부로 인해 교회 전체가 우울한 분위기로, 교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과 새 가족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없는 상태였다. 밝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위한 리모델링은 필수였다. 하지만 많은 예산으로 인해 고민하던 중에, B 집사가 오랜 기간 기도하면서 모았던 적금통장이 만기가 되면서, 교회의 필요한 부분에 헌신하고자 기도하던 중에, 리모델링 계획을 알게 되었고, 교회 강대상을 위한 헌물을 하였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위 강단과 아래 강단으로 이루어져 있던 강단을 교체하는 작업과¹⁶¹ 말씀을 전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음향교체 작업, 고령층의 성도들과 장애우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등 전체적인 리모델링 작업을 할 수 있었다.

160) 에덴교회 요람 2018, (서울: 에덴교회, 2018), 2.

161) 권위적으로 보이던 강단을 넓고 크게 한 단으로 만들고, 강단 뒷 배경도 화려하게 만들어서 강단에서 예배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곳에서 지역민을 위한 음악회와 콘서트, 다양한 문화 공연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교회의 리모델링 작업은 교회 전체를 밝고 역동적인 첫인상을 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오랫동안 예산 부족으로 진행하지 못하던 일이었지만, 믿음으로 일을 진행하면 하나님께서 나 머지 일을 채우시고, 진행하신다는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첫 번째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교회 성도들과 에덴어린이집 학부모들 및 지역주민을 위한 ‘에즈하임카페’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고, 2018년에는 오래된 좌식의자들을 현대식 식탁과 의자로 설치하는 등 계속되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젊은이들에게 찾아오고 싶은 교회를 만드는 데 주력하여, 복음 전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다. 역동적이고 차별화 된 예배와 기도훈련

교회 리모델링과 함께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

(1) 영감 있고 차별화된 예배의 활성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생업의 문제로 인해서 주일예배에 대한 참석률도 저조하고, 예배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도 낮은 상태였다. 그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배의 갱신과 활성화가 필요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는 교회의 우선적인 의무이며¹⁶² 모든 변화의 기초이다.¹⁶³ 예배에 대한 성도들의 고정 관념은 예배 갱신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뜨겁고 영감 있는 예배가¹⁶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다음의 특성을 고려하며 에덴교회의 예배의 갱신을 시작했다. 기존의 예배의 순서가 지

162) John R. W. Stott, *살아있는 교회 (The Living Church: The Convictions of a Lifelong Pastor)*, 신현기 역 (서울: IVP, 2009), 42.

163) 권준, *우리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서울: 두란노, 2007), 33.

164) 김석년, *패스 브레이킹*, 159. 성장하는 교회의 핵심적인 기준은 영감 있는 예배이다.

루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3 번에 걸쳐서 예배순서를 갱신해 나갔다.¹⁶⁵ 역동적인 예배 모델을 조사 연구하여, 영광송으로 시작하여, 시편낭독, 신앙고백, 찬송, 대표기도, 성경 봉독, 성가대의 찬양, 광고, 설교, 봉헌송, 목회기도, 마무리 찬송, 축복기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예배순서를 바꿈에 있어서 대부분의 교인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의외로 예배 갱신을 통해서 예배 시간이 단축된다는 점이었다. 결과적으로 역동적인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역동적인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은 과감히 개혁해 나갔고, 장로들도 미리 기도문을 작성해서, 준비된 기도로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동참했고, 예배 시간에 손을 들고 찬양과 기도를 하고, 일어서서 찬양을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수요일예배가 차별성 없이 비슷한 형태로 드러지던 것을 개선하여, 주일 오전예배는 성도들의 삶에 밀접한 부분과 관련이 있는 본문 중심으로 설교하며, 예배 중에 삶의 문제에 해답을 주는 설교를 하였고, 주일설교 내용을 주중 목장모임의 교안으로 연결하여, 말씀과 함께 고민한 문제들을 소그룹 안에서 삶을 나누도록 연결하였다. 주일오후예배는 열정적인 찬양과 본문을 중심으로 한 깊은 묵상이 있는 강해 설교 중심으로, 수요일예배는 권별 성경 공부 형식으로 말씀을 들은 후에 20 분 이상 뜨거운 영적 기도회로 연결시켰다. 그 순간 성도들이 모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하기 시작했고, 예배가 성도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 더욱이 젊은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결과도 가져오게 되었다. 인간은 말씀에 대하여 밭과 같은 존재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 열매를 맺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 생명을 가진 말씀이기에 듣고 영접한 사람에게 반드시 살아서 역사한다. 설교를 들을 때 영접된 말씀은 허공에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몸과 영과 혼과 골수를 찢러 쪼개어 스며들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조형해 간다.¹⁶⁶ 각 예배를 특성 있게 개선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기대할 때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

(2) 기도 훈련의 활성화

165) 변화를 두려워하고, 보수적인 한국교회에서 한번에 예배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166) 김희권, “설교, 말씀을 진지하게 선포하는 사역으로,” *목회와 신학*, 2004년 7월호, 75-76.

전통적인 교회를 활성화하는 일은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 목회 활성화는 기도운동에서 시작해야 한다. 기도훈련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4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첫째, 중보기도학교와 중보기도 특공대 운영, 기도훈련의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체계적인 기도훈련이 필요했다.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을 하였다.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개인과 교회를 위한 기도를 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중보기도 학교를 수료하면, 자동으로 중보기도특공대로 이어지게 하였다. 중보기도 특공대는 매주 월요일, 정기 중보기도모임을 가지며, 담임목사와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둘째, 온 가족이 함께하는 20 일 특별새벽기도회와 금식기도, 광성덕 목사 부임당시 20 일 특별새벽기도회를 하면서,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말씀을 전하고, 가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와 온 가족이 함께 서로에게 손을 올려 축복하며 기도하는 운동을 실시 할 때, 가정 안에서 서로 치유하고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에덴교회 성도들은 금식기도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금식기도를 하면서 한 끼 금식한 돈을 현금하여 지역사회를 돕는 일에 사용하였다. 고난주간에는 금식하여 드린 현금으로 꽃 화분을 구입하여, 부활절 주일에 온 성도들이 주일예배 후에 꽃 화분을 지역사회에 전달해 주며 부활의 기쁨을 전하였다. 지역사회의 호응이 매우 좋아 에덴교회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교회에 대한 관심과 교회 방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새벽기도회가 있으면 성도들이 미리 금식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게 되었다.

셋째, 새벽기도 십일조 운동과 1, 2 부 새벽기도 운영, 2006 년 2 월 4 일부터 새벽기도 십일조 운동을 시작하였다.¹⁶⁷ 평소에 새벽기도에 참석하기 어려운 성도들도 매월 첫째 주 3 일간은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면서, 교회 전반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되어, 목회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기존에 5 시에 한번 드리던 새벽예배를 5 시 1 부에 기존 성도

167) 에덴교회 주보영인본 2006. (서울: 에덴교회, 2006), 2 월. 새벽기도 십일조 운동은 한 달 수입의 물질의 십일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의 십일조 30 일중 3 일을 새벽기도로 드리자는 운동이다.

들을 대상으로 한 새벽예배와 6시 30분 2부를 신설하여, 잠이 많은 교회의 청년들과 인근 지역의 청년들 성도들과 직장인들이 출근 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새벽예배 후에 간단한 음식을 먹고 직장과 학교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다. 새벽예배 본문은 매일성경 본문을 사용하여, 개인 사정으로 인해 새벽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하루의 시간을 구분하여 같은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여,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을 쏟았다.

넷째, 금요심야기도회와 기도 정병단,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금요기도회는 처음에는, 짧은 기도에도 익숙하지 않아 그냥 눈만 감고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다. 뜨거운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기도와 관련된 본문으로 설교를 하며 설교의 적용이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통해 뜨겁게 부르짖으며 강력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의 장이 되었고, 성도들 개인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묻고, 중요한 기도 제목은 사전 동의를 얻어 금요기도회중 공개적으로 합심기도를 하였다. 처음에는 다른 성도들에게 소문이 날까 기도 제목을 감추었지만, 점차 개인의 기도수첩을 들고 다니며, 다른 성도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이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일들이 많아졌다.

기도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주일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인 기도정병단도 생기게 되었다. 주일예배 40분 전에 모여서 예배와 설교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모임이다. 이런 기도의 운동들을 통해, 전 교회적으로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영적교제가 활성화 되자, 자발적으로 성도들의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늘어나게 되었다.

라.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양육과 말씀훈련

에덴교회에는 오랫동안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이 없었다. 그래서 먼저 전교인을 대상으로 한 양육을 계획하였고, 2010년부터는 모든 직분은 기초양육 및 성장양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만 직분자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을 당회 통과 후에 주보에 공포했다.¹⁶⁸ 주일 오전 예배 후 대부분, 성도들이 기초양육에 참여하였고, 양육이 시작된 지 2년이 흐르자 약 300명의 성

168) 에덴교회 주보영인본 2006, (서울: 에덴교회, 2006), 6월 4일.

도들이 기초양육과 성장양육을 수료하게 되었다.¹⁶⁹ 기초양육교재는 새들백교회에서 사용하는 목적이 이끄는 양육을¹⁷⁰ 에덴교회 상황에 맞추어 제작하여 사용했다.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한국교회 상황과 에덴교회 상황에 적합한 내용이었고, 인도자용 교재가 있어 사용이 용이했다.

새 가족 양육 정착을 위해서 바나바 제도를 도입하여 정착 멘토링 시작을 준비하였다. 정착 멘토링이 필요한 이유는 새 가족은 영적으로 아직 어리기에 새 가족의 영적 수준에 맞는 눈높이 양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¹⁷¹ 바나바 사역을 위해, 양육자를 위한 3 주간의 교육을 했고, 바나바들이 새 가족 교육을 위한 교재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였다.¹⁷²

2007년 1월 1차 바나바 양성 교육을 3주간 실시했고, 12명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았고, 3월에 2차 바나바 양성 교육을 통해 13명이 참석하여서, 총 25명의 바나바가 훈련되었다. 훈련된 바나바들을 중심으로 바나바 사역부를 만들어서 성별, 연령에 따라 새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바나바를 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에덴교회에 처음 방문한 새 가족들은 4주간의 새 가족 교육을 받은 후, 3주간 바나바의 만남을 통해 교회에 대한 친밀감을 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초양육과 성장양육으로 넘어가도록 하였다. 새 가족중에서 초신자는 4주의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하지만, 기존의 신앙생활을 경험하신 분들은 담당교역자의 판단에 따라 1-2주 교육에 참여한 후에, 바나바와의 만남으로 넘어가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

169) 에덴교회 주보영인본 2008, (서울: 에덴교회, 2008), 10월 26일.

170) Rick Warren, *목적이 이끄는 양육 (Purpose Driven Curriculum)*, (서울: 국제 제자훈련원, 2006). 인도자용은 1권으로 묶여있고, 학생용은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권-등록교인이 되기 위하여, 2권-영적성숙을 위하여, 3권-사역을 찾기 위하여, 4권-삶의 소명을 발견하기.

171) 박건, *멘토링사역, 멘토링 목회* (서울: 나침반, 2006), 109.

172) 새가족교재의 내용은 총 4과 4주과정으로 이루어졌다. 1과-교회소개와 목회철학, 2과-예배시간과 예배 의미와 자세, 3과-교회부서와 교회편의 시설에 대한 소개, 4주는 교육기간동안 느낀 점 을 나누고, 기존 성도들, 바나바와의 만남을 가지는 시간을 가진다.

<표 2> 에덴교회 양육훈련체계

과 정		기 간	대 상	내 용
새가족	바나바	3 주	등록자	에덴교회의 소개와 비전과 목회철학을 함께 나눔
	양육반	4 주	초신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모습과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과정
	환영회	1 주	양육반수료자	
기초양육		20 과	새가족수료자 및 타교회직분자	성도로서 바른 자아상과 균형잡힌 신앙생활을 위한 교육과정
성장양육		40 과	기초양육 수료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 고 그 목적대로 나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과정
제자양육		1 년	성장양육 수료자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 정
성경대학 (선택)		수시로	모든교인	QT 학교, 성경일독학교, 귀납법적 성 경연구과정, 본문성경공부
사역양육 (선택)	바나바훈련	과정별	기초양육수료 자는 가능	에덴교회 사역에 필요한 기술과 방 법, 인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 인 훈련과정
	리더사역훈련			
	전도사명자훈련			
	중보기도사역훈련			
	목자훈련			

마. 평신도 중심 사역개발

에덴교회는 평신도 지도력을 세우는 전통이 부족한 교회이다. 평신도들 스스로도 무엇

인가를 해보려고 시도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서로에 대한 리더십을 인정하려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영역을 목회자들이 전적으로 주도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목회자가 마치 노동자처럼 모든 일을 다 하려고 애쓰게 되니, 지도자가 아닌 노동자가 되어 있다.¹⁷³ 이는 에덴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전통교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하지만 목회 활성화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을 목회자들이 다 감당하기는 불가능하였고, 평신도 동역자들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2006년 10월 이미 양육과정을 수료한 평신도 중에서 평신도지도자 예비군을 선발하고, 10월 동안 매주 수요일예배 후 평신도지도자 양육을 시작하였다. 양육방법은 이미 배웠던 기초 양육 교재 내용으로 다시 교수 방법을 심화 지도하고, 직접 1:1 양육형태로 가르쳐보는 교수 방법, 담임목사와 목회 철학을 함께 공유하면서 소그룹 운영방법을 익히며 평신도지도자 양육을 하였다. 예비후보군이 15명에서 시작하였지만, 2명이 중도에 탈락하고, 2007년 8월, 장로 2명, 안수집사 1명, 서리집사 10명, 총 13명이 에덴교회 평신도지도자로 수료를 하게 되었다.¹⁷⁴ 이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기초양육과정은 평신도지도자들이 주도하고, 성장양육은 목회자들이 지도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목회자와 평신도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영광을 공유한다. 서로를 인정하며 권위를 세워주고, 짐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¹⁷⁵

바. 소그룹 활성화 및 남성과 젊은 부부 소그룹 신설

교회의 기본 구조로서¹⁷⁶ 소그룹의 활성화 없이는 목회 활성화와 부흥이 어렵다고 판단

173) 명성훈, *교회성장마인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1), 348. 노동자 목회의 특징은 모든 필요를 혼자서 채우고, 지나치게 바쁘게 일하고, 그리고 은사 없이 일한다.

174) 에덴교회 주보영인본 2007, (서울: 에덴교회, 2007), 8월.

175) 송인규, “평신도 지도자는 하나님의 목회 동역자,” *목회와 신학*, 2004년 7월, 92.

176) Howard A. Snyder,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기계문명 시대에 있어서 교회의 구조는?* (*The Problem of Wine Skins: Church Structure in a Technological Age*),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6), 159. 소그룹은 기원 후 2세기까지 교회생활을 기본단위였다. 소수의 경건자나 혹은 가정모임, 성경 연구와 토의를 통해 양육되었다.

하여, 교회의 모든 소그룹을 파악하였는데, 성경공부를 위한 양육 그룹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업무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¹⁷⁷ 양육그룹의 활성화를 위해서 첫째, 구역을 목장으로, 구역장을 목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소그룹 리더인 목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매년 1 회 목자영성수련회와 매주 수요일 6 개월 동안, 목자 훈련반을 운영했다. 목자훈련반은 두 시간으로 진행되었는데, 한 시간은 목자들의 훈련과 목장을 위한 기도회를 했고, 또 다른 한 시간은 ‘목자의 삶’¹⁷⁸을 주 교재로 하여 목회 철학의 공유, 목자의 기본 소양 교육 그리고 소그룹 인도법을 함께 교육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친목위주의 목장편성과 명분상의 그룹을 축소, 폐지하였고, 실제 거주지를 근거로 교구를 재편성하여 소그룹 모임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다.

에덴교회의 사역이 여성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남성과 젊은 부부는 사역에서 소외되어 있었다.¹⁷⁹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갓 결혼한 가정부터, 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까지를 대상으로 한 젊은 부부 소그룹을 시작하였다. 주일예배 모임 후에 모여서, 주일 낮 예배 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바로 삶에 적용과 나눔, 그리고 합심기도로 소그룹을 시작하였다. 이 소그룹은 나중에 젊은부부전도회의 모체가 되었다.¹⁸⁰

남성 성도들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남전도회 안에 장기결석자와 새 가족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남성들의 사역에 참여에 대한 강조와 교육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행사에 남전도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나갔고, 점차 남성 성도들의 교회 사역의 참여 비중이 높아져 갔다. 남성 성도들의 교회사역 참여는 가정 안에서는 건강한 아버지상을 만드는 기대를 할 수 있다.

177) Carl F. George,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김원주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7), 131. 양육그룹의 핵심은 구역, 업무그룹의 핵심은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성가대 등이다.

178) 지구촌교회에서 출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목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제작한 교재이다.

179) 에덴교회 교역자회의록 (2006년 5월 9일), 전체 교인 중에서 남성은 15%, 젊은 부부는 5%였다.

180) 젊은 부부소그룹은, 교회를 떠난 젊은 세대들에게 입소문으로 번져서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가교역할을 감당하였다.

5. 광성덕 목사 사역 1기 평가와 과제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과거의 에덴교회는 전형적인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이다. 성도들이 변화를 기대하지만, 실제로 변화가 시작되었을 때는, 두려워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다년간 다양한 목회 활성화 전략을 시도한 결과, 교회 안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었고, 목회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단계의 전략을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가. 광성덕 목사 사역 1기 평가

첫째, 주일 예배 성인 출석과 세례자 증가, 광성덕 목사 부임 후 주일예배의 평균 출석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3> 에덴교회 주일예배 성인 출석 현황 및 세례자 수(2005-2008)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성인예배출석	270	380	490	610
세례자	5	10	44	50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광성덕 목사가 부임한 후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여, 광성덕 목사 부임 전 정체기와 쇠퇴기 중간단계에 있던 에덴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다.¹⁸¹ 특히 세례자의 증가는 교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회심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새 가족 등록현황 및 정착률의 증가이다. 광성덕 목사 부임 전 해인 2005년, 에덴교회의 새 가족 등록 수는 40명이었는데, 그중에서 새 가족반 4주 과정의 수료자는 15명으

181) 관악구 내 연간 주민의 전출입의 비율 25 퍼센트가 넘는 상황에서, 30 퍼센트의 성장률이 나타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로 등록대비, 37%가 수료했다. 2006 년의 새 가족 등록 수는 79 명이었고, 새 가족반 4 주 수료자는 62 명으로서 등록대비 78%가 수료했고, 주일예배 출석 연평균 증가는 110 명 증가했다. 2007 년의 새 가족 등록 수는 91 명이었고, 새 가족반 4 주 수료자는 86 명으로서, 등록대비 95%가 수료했고, 주일예배 출석 연평균 증가는 110 명 증가했다. 2008 년의 새 가족 등록자는 95 명이었고, 새 가족반 4 주 수료자는 89 명으로서 등록대비 94%가 수료했으며, 주일예배 출석 연평균 증가는 120 명이다.¹⁸²

여기서 특이사항은 새 가족 등록자보다, 주일예배 출석자 수의 증가가 훨씬 많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기존의 교인들이 에덴교회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찾아오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직업상 다른 지역으로 근무를 다니는 성도들이 예배의 헌신을 결심하고, 주일성수를 시작했다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는 목회활성화전략의 1 차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내었고, 새 가족들 외에도 이렇게 돌아온 인원들에 대한 목회계획의 필요를 말해주고 있다.

셋째, 남성 및 젊은이의 비율이 증가했다. 2006 년 에덴교회 성도의 평균 연령은 59 세, 남성 성도의 비율은 20%, 20-30 대 젊은이의 비율이 10%였다. 2007 년은 성도의 평균 연령은 57 세로 2 살 낮아졌고, 남성 성도의 비율이 22%, 20-30 대 젊은이의 비율이 12%였다. 2008 년 청장년 성도의 평균 연령은 54 세, 남성 성도의 비율은 29%, 20-30 대 젊은이의 비율은 19%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남성 성도와 젊은이들의 비율 증가는 전 교회적인 관계전도의 활성화로 불신가족이 전도 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나. 광성덕 목사 사역 2기의 도전과 과제들

첫째, 포스트모던 시대에 맞는 예배 활성화가 필요하다. 에덴교회가 지속적인 교회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생동감이 있고 호소력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필요하다. 기존의 장년 성도들 외에도 새 신자 및 불신가족들 온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예배의 디자인이 필요하다.

182) 새가족 등록 및 새가족반 수료자는 37 퍼센트(부임 전 2005 년) -> 78 퍼센트(2006 년) -> 95 퍼센트(2007 년) -> 94 퍼센트 (2008 년)로 증가했다.

많은 목회자들은 기존의 전통예배, 찬양 예배, 구도자를 위한 열린예배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교인들이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되기를 기대했었다.¹⁸³ 하지만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구도자 예배보다 상상력과 이미지를 통한 귀납법적인 말씀 선포와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 세대들의 문화적인 코드에 적합한 다양한 예배의 형식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¹⁸⁴ 또한 공예배 형식을 다양화하고 감동적인 설교와 문화적인 코드와 미디어를 통한 쌍방향적인 예배가 더욱 요구될 것이다.¹⁸⁵ 이와 같은 것에 근거하여 사역 2 기에는 전교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배 활성화에 대한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

둘째, 성경 말씀과 기독교 가치관에 근거한 건강한 기독교 가정들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교회와 가정은 서로 공생하는 관계이다. 찰스 셀은 교회와 가정은 딱정벌레와 개미와의 삶의 관계를 예로 들면서 공생의 관계를 설명할 만큼 둘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¹⁸⁶ 성장하는 미국교회의 공통점은 교회와 가정을 연결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는 발표가 있다.¹⁸⁷ 그러므로 에덴교회는 교인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준비하려고 한다. 그래서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경의 말씀과 기독교 가치관으로 준비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며,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짐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 성장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셋째, 지역의 필요를 채우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필요하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은 관용과 포용이다.¹⁸⁸ 이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설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화에 중점을 두고 생각 할 여유와 기회를 주어 선택하도록 하는 전도방법 개발에 치중해야 한다. 따라서 전도대상자의 구체적인 필요와 복음의 접촉점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말을 통한 복음의 선포보다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복음이 구체적으로 체현되는 것을 봄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쉽게

183) Howard A. Snyder, *교회 DNA (Decoding the Church: Mapping the DNA of Christ's Body)*, 최형근 역 (서울: IVP), 132-134.

184) 김명찬, “21 세기 교회부흥의 7 가지 뉴 패러다임,” 123.

185) 조성돈, “이머징 교회의 아이콘 전통, 신비,” 57.

186) Charles M. Sell, *가정사역*, 9-10.

187) 신상목, “교회 변화 이끄는 미국 두 교회,” 국민일보, 2009년 9월 3일자, 28.

188) 이재훈, “마케팅 원리를 응용한 전도: 맞춤형전도집회,” *목회와 신학*, 2008년 8월호, 84-91.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¹⁸⁹⁾

에텐교회는 오랫동안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고, 목회자의 사례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속해서 미자립교회와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지원하는 일을 해나가야 한다.

넷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학교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기독교적 가치를 지닌 일꾼들을 배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회학교 운영을 책임질 전문 교육책임자의 영입이 필요하며, 교육환경과 프로그램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집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비전의 선포와 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고, 목회자그룹과 교육부 선생님들이 외부 세미나와 연수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하였다.

189) 이재훈, “마케팅 원리를 응용한 전도: 맞춤전도집회,” *목회와 신학*, 2008년 8월호, 86.

제 6 장

에덴교회 2기 목회활성화 전략 : 믿음의 가정 세우기 시도

5 장에서는 에덴교회라는 목회 현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전통적인 교회에서 목회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법들이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목회 활성화 전략을 시행한 후에, 다음 단계로서 건강한 가정들을 세우기 위한 준비와 과정, 훈련프로그램의 내용과 모임의 진행의 형태 등,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실제 사역 등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사역들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자. 끝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인 에덴교회의 향후 과제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하고자 한다.

제1 절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전통적인 교회를 갱신하면서 예배의 활성화에 대한 필요가 발생하였다. 기존의 장년들은 전통적인 분위기를 벗어나서 역동적인 예배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그룹과 새롭게 교회 정착하게 된 그룹, 그리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까지 온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1. 세대 간의 단절 된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

지난 1990년대 초순까지만 해도 한국교회가 급속한 성장세를 이어갔었다.¹⁹⁰ 그러나 1990년대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한국교회는 정체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성장이 감소하는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공동체성의 약화를 들 수 있다.

기성세대로 일컬어지는 50-60대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이제는 정보화

190) 국민일보, 2003년 4월 21일자.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세대가 경험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정보화 시대에 태어나,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가고 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세대의 아픔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들 역시 자녀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은 세대 안의 문화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세대 안에서 문화의 단절은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고, 부모세대의 장점과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게 하는데 장애가 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단절된 가정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세대 간의 단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의 가정들에서 세대 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세대 간의 예배 문화의 차이가 있다. 예배의 형식에 차이에서 시작해서, 문화의 차이와 더 나아가 믿음의 차이까지 가져오게 되었다. 자녀세대들은 1980 년 후반부터 시작된 찬양 중심의 열린 예배에 익숙해져 있고, 부모세대는 기존방식의 전통적인 예배에 익숙해져 있다. 자녀세대들은 멋진 밴드들과 찬양인도자들의 찬양에 함께 열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부모세대는 전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둘 사이의 틈은 생각보다 커서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들 안에서는 열린 예배를 도입하는 문제가 교회 안의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 갈등을 보면서 젊은 세대는 상처를 받게 되었고, 열린 예배의 형식에 익숙한 자녀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전통예배의 형식으로 드리는 장년의 예배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전환 될 때에, 부모와 함께 다니던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는 곧 신앙을 저버리는 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둘째, 교회 교육시스템의 한계가 있다. 온 가족이 한 교회에 나오지만, 부모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부서로, 자녀들은 각자의 교육부서로 가서 각자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한 교회 안에 있기는 하지만, 전혀 소통과 공감미 없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나서야 온 가족이 함께 집으로 향하고, 집에 도착하면 다시 각자의 생활로 흩어지기 때문에 신앙이 전수되지 않고, 세대 간의 단절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

고 할 수 있겠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대 간의 단절을 끊고, 세대 간의 연결점을 찾는 것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먼저 세대간의 예배의 단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 청소년부 대예배 함께 드리는 주일

가. 청소년부 상황과 고민

필자가 에덴교회에 2011년에 부임하여 청소년부를 맡게 되었다. 당시 청소년부는 약 40여 명의 학생들이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청소년부 부임 당시의 상황은 본당 건물과 교육관 건물이 각각의 건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연결통로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건물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청소년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장년층의 성도들과 청소년부 아이들이 상호 교류가 없고,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다. 따라서, 교회에 오래 다닌 중직자의 자녀들이 아니면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동네의 거주하는 아이들인지, 에덴교회의 청소년부 아이들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에덴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고민하였다.

나. 미인대칭 운동과 어른들에게 인사하기 캠페인

먼저 시작한 것은 장년들이 먼저 시작한 미인대칭 운동이었다. 매 주일 예배시간에 설교 시작 전 미인대칭 운동을 시작하였다.¹⁹¹ 장년들이 사용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미소 짓기: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인사하기: 양옆의 두 사람 이상에게 인사하기, 대화하기, 칭찬하기: 칭찬을 포함한 대화를 하도록 하였고, 청소년부 주보 광고란에 ‘미.인.대.칭 운동을 생활화합

191) 에덴교회 청소년부 주보 영인본 2011, (서울: 에덴교회, 2011), 3월 6일. 에덴교회 청소년부는 3월 새 학기를 맞이하여, 시작하는 캠페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미.인.대.칭 운동하기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시다'라는 문구를 매주 포함하였고, 청소년부실 벽면에도 미.인.대.칭 운동 표어를 붙여서 인사하기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둘째로, 어른들에게 인사하기 캠페인을 하였다. 청소년부 안에서는 서로 미인대칭 운동을 통해서 인사와 칭찬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갔고, 어른들에게 인사하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먼저는 집에서 부모님에게 인사하기,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인사하기, 동네에서 어른들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기, 교회에서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하기를 시작하였고. 교사들과 함께, 청소년부 예배 전후로 아이들을 데리고 본당 건물로 가서 만나는 성도들마다 청소년부 아이들이 먼저 인사할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였다.

처음에는 인사를 어색해하던 장년 성도들이 차츰 웃으며 인사를 받게 되었고, 같은 교회에서도 서로 얼굴도 잘 모르고, 관심이 없었지만, 어른들에게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을 통해서 청소년부와 교육부서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와 교육부 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 에덴교회의 비전 공유

미인대칭, 인사하기 캠페인과 다음으로 시작한 것은 에덴교회의 비전공유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 활성화에 있어서 교회의 공동의 목표인 비전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수립된 비전은 공동체 안에서 공유되어야 한다.

청소년부 아이들이 에덴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비전을 공유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첫째는 청소년부 예배 중 사명선언문의 낭독이다. 청소년부 예배순서를 장년 예배와 비슷한 순서로 개편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장년 예배에 사용하는 '사명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에덴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비전이 무엇인지 계속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는 교회의 행사에 함께 참여하였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연중행사에 가정의 달을 제외하고는 교육부는 참여하는 경우가 매우 적었다. 그래서 부모가 에덴교회에 출석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장년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극히 드물다는 것에 착안하여, 청소년부의 행사와 에덴교회의 행사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특별새벽기도회와 부흥회, 신년성경 읽기, 전도 대잔치 등 기존의 장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었던 일들에 청소년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청소년부 주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와 참여를 권유하였고, 부모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서 어색한 경우에는 목회자 그룹과 청소년부 교사그룹 등을 활용하여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아이들에게 청소년부가 아니라, 에덴교회 청소년부라는 의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고,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마음도 더욱 열리기 시작했다.

특히 수요예배와 금요일예배에 함께 참여하면서, 처음에는 어색해했던 아이들이 점점 예배에 적응해 가고, 손을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담임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아멘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필요와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고민은 청소년부 아이들도 충분히 장년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할 수 있다는 확신과 도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라. 대 예배 함께 드리는 주일

청소년부 부임 이후에, 약 6 개월 동안 어떻게 하면, 청소년부 아이들이 에덴교회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였고, 청소년부 교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였다. 이 고민은 청소년부 안에서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목회자 그룹과 성도들의 그룹에서도 함께 고민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일을 연구하였다.

6 개월간의 경험 끝에, 하나의 공동체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배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대 예배 함께 드리는 주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서 약 한 달여 동안 청소년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교사들과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였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반기부터 매월 첫째 주일을 ‘청소년부 대 예배 함께 드리는 주일’로 선포하였다.

‘대 예배 함께 드리는 주일’을 준비하면서, 기존의 ‘교육부 연합예배’와는 차별 점을 두었는데, 이전의 ‘교육부 연합예배는’ 청소년부 예배 시간을 장년 예배로 대체 했는데¹⁹² 청소년부 예배 시간과 장년 예배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집에서 아예 교회에 오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예배 함께 드리는 주일’인 첫째 주일에도 기존 청소년부의 예배순서의 변경이나 단축 없이, 모든 순서를 다 진행한 후에 청소년부 전체가 대 예배 장소인 본당으로 함께 이동하였다.¹⁹³

청소년부 아이들이 대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예배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배 전 찬양단에 청소년부와 청년, 장년으로 구성된 연합찬양단을 구성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였고,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미리 훈련하였던 미인대칭 운동과, 사명선언문 등은 청소년부 아이들이 대 예배에 쉽게 적응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처음에는 본당 제일 앞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워서 예배 중 엎드려 잠을 자거나, 핸드폰 사용 및 잡담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최적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본당과 중 2 층의 여러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 보았고, 비교적 예배 중 움직임이 자유로운 제일 왼쪽 열 중간자리로 정하여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 점차 진행되면서 부모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도 생겨났다.

청소년부의 대 예배 함께 드리는 주일은 2014 년 5 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를 시작할 때까지 약 3 년간 지속하였으며, 청소년부 대 예배함께 드리는 주일에서 얻은 경험들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의 좋은 밑바탕이 되었다.

대 예배 함께 드리는 주일에 꾸준히 참석한 아이들과 참석하지 않은 아이들의 차이는 청소년부 졸업 후 청년부 정착물에 확연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192) 에덴교회의 청소년부 예배는 주일 오전 9 시에 시작하고, 주일 2 부예배는 오전 11 시에 시작한다.

193) 대예배 함께 드리는 주일에 집중하고, 참석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매월 첫째 주에 하던 행사와 모임들은 다른 주로 미리 조정하였다.

<표 4> 에덴교회 청소년부 대예배 참석과 청년부 정착률¹⁹⁴ (단위:명)

	청소년부 졸업생	청년부 정착인원	대 예배주일 경험자
2011 년	6	4	3
2012 년	5	3	3
2013 년	5	4	3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 예배 주일 경험자의 숫자와 청년부 정착 인원의 숫자가 거의 일치하였다. 이는 대 예배 함께 드리는 주일을 통해서, 장년 예배를 미리 경험하고 청소년부 외의 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한 경험이 청년부에 쉽게 적응하도록 도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청소년부의 대 예배 함께 드리는 주일을 진행하면서, 에덴교회 목회자 그룹에서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고민이 계속되었다. 고민이 진행이 되면서, 예배를 통한 영적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에 뜻을 모으고, 에덴교회의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목회자그룹과 당회, 그리고 교육부 부장단 모임에서 오랜 논의 끝에 이전의 ‘교육부 연합예배’와 차별을 두기 위해서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명칭을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정하였다.¹⁹⁵ 첫 예배는 건강한 가정을 세운다는 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2014년 가정의달인 5월 첫째 주에 첫 예배를 드리기로 날짜를 정하고 준비를

194) 에덴교회 청소년부 회의록 (2014년 2월 23일).

195) 설동주 목사는 웨마컨퍼런스를 통해 ‘3대가 드리는 예배’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지만, 가족의 구성상 3대가 함께 있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3대라는 용어가 상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 가정의 의미를 살리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일반적인 ‘가정예배’와 구별을 두기 위해서, 온 가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용어를 정하였다.

진행하였다.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지는 않았고 기존의 예배순서에 교육부서의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준비하였다.

아이들이 담당하게 된 순서는 매주 낭독하는 사명선언문과 성경 봉독, 봉헌을 담당하였고 아이들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소년부 저학년 들은 성경 봉독을 담당하고, 유소년부 고학년 및 청소년부는 사명선언문을, 그리고 청소년부와 청년들은 봉헌을 담당하도록 배정하였다. 예배순서를 담당하는 것 외에도, 예배 전 찬양단에는 음악의 재능을 가진 청소년부, 청년들이 장년층과 함께 섬기게 되었고, 유소년부 아이들은 성가대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였다.

예배 중에는 가정단위로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 사정상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녀들은 교회학교 교사 및 청년들과 함께 앉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

매월 첫째 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는 모든 것이 가족 중심으로 준비와 기획, 진행이 이루어졌고, 이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과, 기독교 가치를 지키는 가정들이 세워지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서 매달 첫째 주 설교 메시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기능, 가정의 목적, 가정의 현안, 가정의 문제들, 자녀들이 고민하는 문제, 자녀들의 미래와 비전 등, 가정에 필요한 주제들로 메시지가 선포 되었다. 이 선포된 말씀이 예배에서 그치지 않고, 가정으로 이어지는 고민과 실제적인 실천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보에 ‘믿음의 가정 세우기’라는 코너를 추가해서, 설교 메시지의 내용과 가정의 문제들이 연관되는 묵상 나눔, 고민 질문, 실천사항 등을 게시하여서, 가정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설교 말씀을 들은 후에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손이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시간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들 간의 양금들을 해결하고, 가정에서 부모의 영적 권위를 세우는 일도 함께 시도하였다.

또한 가족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가족과 관련된 행사들은 모두 일정을 조정하여 첫째 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진행하였다. 이때 진행하는 가족과 관련된 행사들은 다음과 같다. 신생아 축

복기도¹⁹⁶, 유아세례, 세례식, 새 학기 축복/안수기도, 장학금 수여, 성찬식 등 이다. 이전에는 장년부서만 진행하였거나,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행사들을 온 성도들이 함께 진행함으로써, 교회의 비전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였고, 온 교회가 가정의 일들을 함께 기뻐하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정들은 가정의 회복을 위한 소망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지나쳤던 교회의 행사들에서, 각각의 가정과 연결된 의미들을 재확인하고, 점검하는 일들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며,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다.

또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바뀐 점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예배의 순서를 맡은 담당자는 한 달 전에 미리 선발하여, 담당 목회자와 교사들이 사전교육을 하고, 부모들에게 그 내용을 가르쳐 주었다. 각 가정에서 한 달 전부터 담당 순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고, 예배 전에 일찍 와서 리허설을 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또한 자녀들이 순서 맞은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교회를 다니지 않던 가족들도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전도의 효과도 가져오게 되었다.

신생아 축복기도는 이전에는 담임목사가 신생아를 축복하는 기도가 전부였지만, 형식을 바꾸어서, 부모 중 아버지가 먼저 기도문을 준비해서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한 후에, 이어서 담임목사가 축복기도를 하게 하였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가정에 축복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2월 둘째 아이의 신생아 축복기도를 준비한 J 집사는 2012년 첫째 아이의 축복기도를 받을 때는 부모님이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억지로 나왔는데, 둘째는 부모가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니깐, 마음가짐이 달라졌고, 자녀를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¹⁹⁷는 고백을 하였다. 이외에도 신생아 축복기도를 전후로 해서 교회에 소홀히 하던 젊은 부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젊은 부부 소그룹의 활동으로 연결이 됐다.

197) 2015년 2월, J 집사와의 인터뷰 중

4. 다른 교회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현황

다른 교회들의 세대 간 통합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분석하려고 한다.

가. 국수교회 (김일현 담임목사) 세대 통합예배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국수교회는 초기부터 전 성도가 고르게 참여하는 예배를 지향해 왔다. 본격적으로 세대 통합예배를 드리고, 가정으로 그 영역을 확장한 것은 현재의 성전이 완공되어 입당한 2005 년부터이다. 국수교회의 세대 통합예배의 특징은, 일 년에 몇 차례 혹은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국수교회 담임 목사인 김일현 목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주일학교교육이 전문화되면서 아이들의 신앙 지도를 교회에 일임하는 현상이 생기더군요. 저는 아이들의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분히 편의를 위해 어른들과 아이들이 예배를 나누어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전통이 아이들에게 예배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¹⁹⁸

국수교회는 예배 시작 전 아이들을 위하여 축복기도의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퇴장해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교육부서로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 안덕원은 국수교회의 세대 통합예배를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 첫째, 아이들이 예배 분위기에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함께 한다는 데에 있다. 자연스러운 예배 분위기를 통해서, 아이들에 대한 예배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교회의 교육을 가정예배의 실천으로 연장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¹⁹⁹

국수교회는 가정예배를 강조하는데, 가정예배를 돕기 위한 ‘디모데 가정예배’를 매주 받

198) 안덕원, “소박한 동네교회의 탁월한 음악과 세대통합예배,” *목회와 신학*, 2018년 3월호, 88.

199) *Ibid.*, 88-89.

행하는데, 여기에는 해당 주일의 설교 내용, 묵상 자료, 이야기, 찬양, 그리고 질문이 담긴 자료로서 각 가정에서 예배와 신앙교육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부모가 먼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같은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의 감격을 나누며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나. 수원 동원교회 (이종문 담임목사)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수원 영통구에 위치한 동원교회는 장년 성도 기준 약 140-150 명 정도 모이는 규모의 교회이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교육하여 가정에서 뛰어난 인물을 만들고자는 비전’을 가지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에 교회가 적극 노력하고 있다.

소수의 가족이 중심이 되는 작은 교회의 특성상,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는 약 30 가정, 130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의 예배 모습을 보고 배우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예배를 위한 섬김과 찬양단 등 예배의 순서에도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동원교회의 J 목사는 동원교회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특징을 잘 모인다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 워낙 가족 중심의 공동체성이 강조된 교회이다 보니, ‘3대가 드리는 예배’를 2012년 3월부터 시작할 때부터 모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속적인 예배 등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한 가정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 나성한미교회 (신용환 담임목사) 패밀리 위십(Family Worship)

본 연구는 한국의 전통교회의 상황에서 세대 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민교회는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대 간의 단절 외에도, 언어와 문화로 단절이 되는 암담한 현실을 경험하기에, 필자가 섬기고 있는 미국 한인교회에서 시도하고 있는 세대 통합예배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의 상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성한미교회는 절기를 중심으로 1년에 3-4회 정도 패밀리 워십(Family Worship)을 드리고 있다. 이 패밀리 워십은 교육부와 EM 배경의 영어권 자녀들이 중심이 되는 예배로서, 사전에 많은 회의와 준비를 통해 예배의 포커스를 다음 세대에 맞추고 있다.

아이들이 예배에 드리기 편한 자리를 미리 정해 놓고, 예배 전 찬양은 EM 사역자들이 아이들이 주로 부르는 영어찬양으로 미리 준비한다. 음악적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패밀리 워십시에 함께 찬양단으로 섬기기도 한다. 아이들이 예배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통역팀을 운영하고²⁰⁰, 예배의 모든 자막은 영어자막으로 동시 제공을 한다. 예배 중 메시지는 담임목사와 EM 사역자들이 교대로 설교하며, 교회의 예배 분위기를 경험하고,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패밀리 워십에는 이렇게 한어권 부모세대의 많은 수고와 노력이 담겨져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한어권의 부모의 신앙과 영어권 자녀들의 세대 간의 공백을 줄여주는 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아직은 적은 숫자이지만 패밀리워십이 아니어도 정기적으로 장년예배에 부모와 함께 참석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5. 세대통합예배의 평가

에덴교회에서의 청소년부 ‘대 예배 함께 드리는 주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와 국수교회의, 동원교회, 나성한미교회의 예배에서 알게 된 것은, 비록 교회마다 강조점이 다르고, 특이점이 있지만, 예배를 통한 세대 간의 단절이 회복되고, 가정의 회복이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에덴교회에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4년 5월 처음 시작할 때 60 가정이 참석하였는데, 매월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200) 예배의 통역을 위해서, 주일 설교원고 및 예배의 모든 순서가 예배 전 통역 담당자에게 전달이 되고, 통역 담당자는 설교원고 및 예배의 순서를 직접 영어로 번역하게 된다. 번역된 원고는 다시 예배 담당자에게 전달이 되어서, 최대한 영어권의 자녀들에게 메시지의 핵심이 전달되도록 하는 노력을 한다

꾸준히 증가하였다

<표 5> 에덴교회 매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참석 가정수 ²⁰¹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14년					60	55	50	52	61	65	85	75	62
2015년	72	74	75	88	71	69	58	62	76	78	92	80	74
2016년	75	77	80	95	83	85	88	90	94	95	98	91	87

이렇게 인원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첫째,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던 부모와 자녀들이 다른 가정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둘째, 새로 유입된 새 가족들이 가족 단위로 교회에 등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증가하였고, 에덴교회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매월 첫째 주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인원도 나타나고 있다. 셋째, 교회를 떠났던 자녀들을 꾸준히 초청하여 모든 예배에 참석하지는 않더라도 매월 첫째 주 한 달만이라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꾸준히 예배에 가정단위로 참석하는 숫자의 증가는 예배 전체의 분위기를 갱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였다.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지 않은 장년 성도들도 예배에 참석한 아이들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꾸준히 메시지를 통해서, 장년 세대의 신앙의 모습을 자녀세대가 보고 배운다는 것을 강조한 결과, 더욱 예배에 집중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처음 세대 통합예배를 기획할 때부터, 부정적인 시선으로 우려와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몇 년간 세대 통합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한 결과,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장년 예배를 경험해 보지 못한 것과, 참여하지 않는 것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처음

201) 에덴교회 교육위원회 연간통계. 매년 4월과 11월에는 온 가족 총동원 주일로 드리는데,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고, 가족단위의 여름휴가가 집중되어 있는 7,8월에는 상대적으로 예배의 인원이 감소하였다.

에는 힘들겠지만, 장년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게 되고, 교회의 비전에 동참하며 한 교회라는 공동체성을 회복해 가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가 연구를 진행한 에덴교회에서 부모와 함께 대 예배에 참석한 아이들은 청년부에 진학 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빈도가 높았다. 분화된 교회 생활 경험은 결국 다음세대로 하여금 신앙의 전승과 정체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²⁰² 대예배를 함께 드리는 신앙의 경험은 부모세대가 다음 세대에 최우선으로 행하고 전해주어야 할 신앙교육인 것이다. 온 회중이 참여하는 통합예배를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성인과 아이들 상호 간의 협조와 적응이 필요하다.²⁰³

지속적인 세대 통합예배를 위해서는 첫째로,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 및 교회의 비전이 가정에 대한 목회적 관심과 배려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

둘째, 예배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간과 예배 중에 온 가족이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가정을 진정한 가족애로 묶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세대 통합예배를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가정의 가치를 새롭게 일깨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 온 가족이 함께 공감하고 들을 수 있는 메시지 선포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이 세대통합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²⁰⁴

제 2 절 쉼과교육

한국 기독교 교육의 위기는 교회학교 학생의 수적인 감소뿐만 아니라 기존 기독교 교육을 담당해 왔던 교육기제(educational agency)의 기능 부재에서 기인한다.²⁰⁵ 교회학교가 존재

202) 김선일, “지속 가능한 신앙 형성을 위한 교회의 역할”, 55.

203) Ibid., 56.

204) 배성우,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족 예배를 기획하라,” *가정사역* (목회와 신학 총서 01; 서울: 도서출판두란노, 2010), 304.

205) 김희자, “교회여, 부모를 교육하라!,” *목회와 신학*, 2016년 4월호, 46.

하고는 있지만,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고, 젊은 인구의 감소와 함께 맞물려 교회학교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교회학교가 젊은 세대의 신앙경건훈련의 기능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들의 신앙경건훈련의 모습을 살펴보고 전통적인 한국교회의 교회학교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1. 유대인들의 신앙경건 훈련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의 종교적 전통과 계율을 지금까지도 유지해 오고 있다. 이들은 모세 당시에 행하던 신앙의 경건 훈련을 지금까지도 가정에서 그대로 행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방랑하면서도 이방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그들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온 것은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행한 신앙경건훈련 때문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신앙경건훈련의 최우선 장소이다. 또한 “가정이야말로 그들의 신성한 성전”²⁰⁶이라고 믿고 있다. 유대인이 전 세계를 방랑하면서도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고 조상의 물려준 신앙의 세대 차이를 막았던 핵심교육은 가정교육이다. 유대인은 가정의 질서를 존중하다. 유대인의 가정교육은 군대 이상으로 철저하다.²⁰⁷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신앙경건훈련을 시키는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권위가 자녀들을 정신적으로 조리 있는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믿는다.²⁰⁸ 한편 가정에서 가정의 일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어머니에게 있다.²⁰⁹ 유대인 부부 사이에는 대화의 원칙이 있다. 부부 사이에는 웬만해서는 화를 안 낸다. 부정적인 이야기도 금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만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자녀나 남을 비방하는 이야기보다는 그들만의 장점을 이야기

206)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1권 (서울: 조선일보사, 1998), 204.

207) Ibid., 324.

208) Ruth Shilo, 아들딸은 유대식으로 키워라, 김현수 역 (서울: 민지사 1999), 45-46.

209)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3권 (서울: 조선일보사, 1998), 65.

한다.²¹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경건한 신앙의 자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종교적 토양을 가지고 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하는 일은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다. “자녀에게 사상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이고, 정서 교육은 어머니의 몫이다.”²¹¹

유대인들의 아버지의 교육은 첫째, 그들의 조상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자손 대대로 말씀의 변질 없이 순수하게 보전하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 어떻게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여 의롭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²¹² 아버지는 자녀를 가르칠 때에는 주입식으로 강요하지 않고 지혜를 써서 스스로 따라오도록 한다. 아버지는 자녀가 기쁨으로 율법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유도한다. 유대인들이 자녀교육에 사용된 습관화 된 방법 중에 하나는 자녀를 껴안는 것이다. 유대인의 속담에 “오른손으로 벌을 주었으면 왼손으로 껴안아 주라”는 말이 있다.²¹³ 유대인 부모는 자녀를 키울 때 처벌과 애정 표현을 적절히 조화시켜 가르친다.

유대인의 자녀는 어머니에 따라 유대인이나 아니냐가 결정된다.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다.”²¹⁴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들과 늘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많으므로 어머니가 성경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훈련시킨다(잠 22:26). 유대인 어머니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반복 교육”²¹⁵을 사용한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취침할 때까지 자녀들을 가르치며 반복교육을 통하여 습관을 만들어내고, 유대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철저하게 가르치고 감독한다.²¹⁶ 그러므로 유대인 자녀는 어머니 교육에 의하여 유대인으로 만들어진다.

210)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2권 (서울: 조선일보사, 1998), 81.

211) Ibid., 1권, 257.

212) Ibid., 2권, 52-53.

213) Ruth Shilo, 아들 딸은 유대식으로 키워라, 83.

214)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1권, 121.

215) 현용수, 성공집단 유대인의 인성교육 노하우, 1권 (서울: 서로사랑, 2004), 198.

216)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3권, 131.

유대인 부모는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독특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다. 아이들이 깨어 있을 때에는 자녀들을 악한 행실에서 구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잠을 잘 때는 부모가 그들의 영혼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꿈에서라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지내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 준다. 이러한 경험을 가진 자녀가 성장하여 어머니가 되며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녀에게 잠자기 전 이야기를 들려주게 된다. 이로써 유대인의 신본주의 자녀 교육 방법도 대물림된다. 또, 유대인의 어머니는 자녀들이 잠을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쉼마 기도를 외우게 한다. 쉼마는 유대인의 성경적 자녀 교육의 대명사이다.²¹⁷

유대인의 율법교육은 암기 교육이다. 유대인 자녀가 태어나면 3 세부터 “쉐마”를 암송하기 시작하고, 5 세에 성경 연구, 10 세에 미쉬나 연구를, 13 세에 계명의 완성에 관한 연구를, 15 세에 탈무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학문할 것을 권고한다. 연구의 중단은 성장의 멈춤이며, 죽음이라고까지 말한다.²¹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엄청난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외우면 안 되기 때문에 반복하여 정확히 외운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교육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귀납적 교육방법이 유대인을 어려서부터 천재로 만드는 데 크게 공헌한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의 교육 자료들도 대부분 많은 질문을 한 다음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도록 내용이 전개되어 있다. 유대인 부모는 자녀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빨리 주지 않는다. 그리고는 왜 이 답이 맞고, 저 답이 틀린가에 대해 논리적으로 질문하고 토론하며 스스로 깨닫게 만든다. 따라서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자녀가 고도의 분석적인 사고방식과 분별력 및 창의력을 갖도록 교육한다.²¹⁹ 유대인 부모는 자녀들에게 귀납법적 천재교육 방법으로 쉼마의 말씀을 조상 대대로 전수하고 있는 것이다.

2. 한국 교회학교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17) 현용수, IQ 는 아버지 EQ 는 어머니 몫이다, 3 권, 163-165.

218) Ibid., 2 권, 145.

219) Ibid., 77.

기독교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의 가부장적인 제도에 기반을 둔 봉건 사회적인 가정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외래 종교인 기독교가 한국의 가정들에 파고들기는 쉽지 않았다. 특히 당시의 지도층이었던 양반들은 제사를 거부하는 문제로, 기독교를 거부했다. 양반 중에서 예수그리스도를 믿으면 문중에서 축출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도 가정에서 드러내기 어려웠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주로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후의 한국교회의 신앙경건훈련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교회 중심으로 신앙경건훈련이 진행되었다. 신앙경건훈련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사경회이고, 한국교회는 사경회의 영향을 받아 어린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주일학교와 여름성경학교를 시작했다. 그 이후 한국교회의 교회학교는 주일학교와 여름성경학교가 아이들을 위한 신앙경건 훈련의 대표적 모델이 되고 있다.

가. 교회학교의 시작

한국 교회학교의 시작은 1888년 1월 15일이었다. 서울 정동 이화학당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17명과 부인 3명을 모아 성경을 공부한 것이 우리나라 교회학교의 시초였다.²²⁰ 한국의 주일학교는 처음에는 장년 성경반에 합반되어 성경을 배우는 데 그쳤지만 기독교 교육이 발전을 거듭하여 1890년에 첫 번 유년주일학교가 시작되었고, 1897년에 평양에 유년주일학교 다섯이 설립되었다.²²¹ 1905년(선교사 공의회 설립)부터 1911년까지는 주일학교가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1920년에는 주일학교수가 14,000개로 증가되었고, 1922년에는 조선주일학교 연합회가 조직되었다.²²²

1920년대 초에 교회가 급격히 성장한 것처럼 교회학교도 급격히 성장하였다. 1920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9회 총회에 제출한 주일학교부 보고에 의하면 처음으로 동년 10월 17일

220) 김득용, *주교 교육학* (서울: 정음 출판사, 1973), 31.

221) 대한기독교교육협의회, *한국기독교교육사*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74), 38.

222) 곽안전, *한국교회사* (서울: 기독교서회, 1970), 166-168.

을 “주일학교 진흥주일”로 지키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1921-1922 년 1 개년을 주일학교 성장의 해로 정하고 특별 전도를 하였다. 성장방침으로 “총회에서 노회에 권유하여 각 노회에 주일학교 교사 강습소를 설치하여 교사를 양성하되 사경회 시에 겸하든지 특별히 하든지 반드시 1921 년 4 월 이내로 시작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강습회 예정지 중 서울, 춘천, 대구, 광주, 안동 등지에서 강습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조선예수교 장로교 제 10 회 총회 회의록을 보면 1920 년에 비해 1921 년 주일학교 학생 수가 30%나 증가하였다.²²³

1948 년 3 월 23 일 해방된 기쁨 속에서 “조선주일학교 연합회”를 대한 기독교 교육연합회”로 개칭했고, 6.25 동란이 지나가 각 교단별로 활발한 교회학교 운동을 전개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²²⁴

나. 교회학교 공과 내용

한국교회가 선교 초창기에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글로 된 성경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1887 년 마가복음과 교리문답이 한글판으로 출판되어 보급하였다. 이러한 한글 성서와 소책자와 기도서 등이 모두 교회학교의 교재로 사용되었다. 교회학교는 이외에도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암송하였고, 세례교육과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성경 구절을 암송하도록 하였다.

다. 교회학교의 문제점

전통적인 한국교회의 교회학교들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처음 시작부터 신앙경건훈련의 대부분이 교회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성도들은 목회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다만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 부모가 가족들에게 설교 말씀을 하는 정도였다. 또한 교회 교회학교 중심의 신앙교육의 문제점은 부임한 교역자에 따라,

223) 마포삼열,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 10 회 회의록 (평양: 광문서, 1920), 81-83.

224) 김득용, *주교교육학*, 48.

혹은 교재에 따라서 일관성 없이 진행된다는 것이다.²²⁵ 또한 가정 차원의 교육의 문제는 교육제일주의라는 목표아래 아이들의 시간을 학교나 사교육 시간에 빼앗기게 되면서, 기독교 가치관 교육이 부모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수되지 못하고 신앙의 계대 전승이 붕괴한 것이다.²²⁶ 하나님은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질 장소로 학교를 선택하지 않고 ‘가정’을 선택하셨다. 태초부터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달할 최적의 환경은 뭘니 뭘니 해도 가정이었다.²²⁷ 현대사회의 큰 문제는 가정이 교육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장소로 학교가 더 중요하게 인식되어 버렸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가르칠 핵심가치에서 신앙경건훈련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쉼마말씀을 직접 가르쳐 신앙을 전수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루터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교회와 학교는 교육을 보충할 따름이지 가정을 대신할 수 없다”²²⁸라고 말했다. 가정에서의 신앙경건훈련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들의 교회학교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부모가 직접 가르치는 신앙경건훈련을 통해 신앙의 계승과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주일쉐마교육

이러한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에서 실시하는 교회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주일 쉼마교육이다.²²⁹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학교 교사에게만 맡겨 놓고 있지만, 부모가 보다 적극적으로 교회학교 교육 및 자녀들의 신앙경건훈련 전체에 직접적으

225) 부임한 교역자에 집중되어 있는 주일학교 교육의 문제점은, 일부 대형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회의 현실상 교육부서는 신학교에 갓 입학한 교육전도사에게 맡긴다는 것과, 목회자들의 인식 속에 교육부서는 장년부서로 가기위한 첫 번째 단계정도로 생각한다는 문제가 있다.

226) 김희자, “교회여, 부모를 교육하라!,” *목회와 신학*, 2016년 4월호.

227) Neil Cole, *교회 3.0 (Church 3.0)*, 안정임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12), 335.

228) 지원용, *루터의 사상* (서울: 컨콜디아사, 1961), 306.

229) 유대인들의 신앙경건 훈련에서 핵심이 되는 쉼마라는 단어를 차용하여 쉼마교육이라고 칭하였다.

로 관여해야 한다.

존 칼빈(John Calvin)은 부모들은 반드시 가정에서 그들 자신의 자녀들에게 교리 문답과 기독교 생활양식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목사는 자녀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일상생활을 감독하며,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정도는 각 가정을 심방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부모의 삶과 행동과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을 확인하는 감독을 하게 하였다.²³⁰

교회는 웨마교육을 통해서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기는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내면화하는 시기이므로, 그들이 기독교적 성품으로 변화하는데 가정과 교회의 교육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²³¹

가정 안에서 부모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시키는 감독자의 역할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대물림하는 신앙교육을 할 때, 교회 중심교육 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세워지고, 건강한 가정이 될 것이다. 주일웨마교육의 핵심은 ‘성경 중심 교육’이다²³² 이미 교회에서 하는 이벤트는 전문, 고급화된 사회의 이벤트를 따라가기 힘들다. 또한 각종 선물과 간식으로 교회 등록을 유도하는 것 역시,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내재적 동기를 물질적 보상에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런 행사, 이벤트 중심 교육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중심’ 교육으로 돌아가야 한다. 미국의 사회학자 크리스천 스미스(Christian Smith)는 3000 명이 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음 세대의 종교 생활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의외로 크리스천 자녀들은 부모의 종교에 관심이 많으며, 따르고 싶어 한다.²³³ 하지만 교회는 오히려 이런 자녀들의 관심과는 상관없이 아이들을 교회로 모으기 위해서 이벤트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방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230) C. B. Eavey, *기독교 교육사*, 김근수 역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2009), 163.

231) 김희자, “교회여, 부모를 교육하라!”, 47.

232) 설동주, *네 자녀 네가 가르쳐라*, 216.

233) 김선일, “지속 가능한 신앙 형성을 위한 교회의 역할”, 54.

가. 온 가족이 함께 듣는 주일 쉼마말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진행하면서, 계속되었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자녀들이 집중하여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선포할 것인가? 였다. 이를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다. 젊은 세대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영상물을 사용하고, 쉬운 표현을 사용하며, 설교의 시간이 길어지지 않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하나의 고민은 매월 첫째 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외에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 주에도 어떻게 하면 가정 안에서 말씀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었다.

다른 교회의 사례들을 연구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 끝에, 청년부를 제외한 장년과 모든 부서의 설교 본문과 설교주제를 통일하도록 결정하였다. 1 주일에 하루만 성경 말씀을 듣고, 다시 6 일 동안은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들은 말씀이 주중의 삶으로 연결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 회의를 통해서, 한 달 전에 미리 설교 스케줄과 본문, 핵심주제를 정하였고 영아부, 유치부, 유소년부, 청소년부에서 같은 주제로 설교와 공과를 진행하였다. 다음은 2014년 한 달 동안의 에덴교회 장년부 및 교육부서의 설교 제목 및 본문이다.

<표 6> 2014년 12월 에덴교회 장년부 및 주일학교 설교제목과 본문

날짜	부서	설교제목	본문
12월 7일	장년(온가족예배)	말씀으로 세워가는 공동체	삼상 7:3-12
	청소년부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삼상 7:3-12
12월 14일	장년부	하나님의 나라	마 13:31-32
	청소년부	Kingdom of God	마 13:31-32
	유소년부	하나님 나라가 뭐지?	마 13:31-32
	유치부	하나님 나라가 좋아요	마 13:31-32

	영아부	하나님의 나라	마 13:31-32
12월 21일	장년부	축복된 성탄을 맞이하라	마 2:1-12
	청소년부	응답하라! 성탄절	마 2:1-12
	유소년부	성탄절이 뭐할까요?	마 2:1-12
	유치부	성탄절을 준비해요	마 2:1-12
	영아부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 2:1-12
12월 28일	장년부	한해를 결산하는 질문	고전 4:1-5
	청소년부	잘가요 2014	고전 4:1-5
	유소년부	2014년 어땠나요?	고전 4:1-5
	유치부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주세요	고전 4:1-5
	영아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	고전 4:1-5

위에서 보는 것처럼,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전세대가 같은 주제로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주일 저녁은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주일에 들은 말씀과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사용하였다.

주일쉐마교육의 효과는 주일 저녁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주일쉐마교육을 꾸준히 진행한 사람들 가운데 주일쉐마교육을 시행한 후에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주일쉐마교육을 하기 전 주일은 하루 종일 친구들과 PC 방에서 게임을 하고 집에 와서도 계속해서 게임을 하거나 혼자 TV, 인터넷 등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교회에 늦게까지 계시다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혼자 늦게까지 게임에 몰두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녁은 혼자서 게임을 하면서 컵라면을 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주일쉐마교육을 하면서 주일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부모님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고1,

K 학생)

주일쉐마교육을 하기 전에 저는 우리 아이가 교회에 잘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었고, 임원을 하는 등 교회활동에도 열심이었고, 큰 말썽을 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비전을 발견하고 쉐마교육에 참여하기 시작하니, 그동안 제가 우리 아이에게 참 부족한 부모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말씀에 대한 솔직한 느낀 점을 나누고 아이의 생각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중 3 학부모, P 집사)

주일은 우리 가족들이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지만, 유치부에서 들었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을 듣고, 암송구절을 함께 외우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아이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이가 부모의 많은 것을 관찰하고 닮아가려 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치부 학부모, H 성도)

나. 균형 잡힌 성경 교육 커리큘럼

앞 절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현재 한국교회의 교회학교 들은 부임한 교역자의 역량에 따라, 교재가 정해지게 되고, 담당 교역자의 관심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지게 된다.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역자는 1 년 내내 ‘사랑’만 강조하게 되고,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역자는 1 년의 대부분을 ‘선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역자에게 지도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본의 아니게 신앙이 불균형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한 교회에서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교회학교를 10년 이상 꾸준히 다녔어도, 고등부를 졸업할 때까지 성경 66권 중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성경이 생기게 된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부담당자가 바뀌더라도 혼란을 주지 않고 일관되게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의 교육커리큘럼을 정하였다.

<표 7> 주일쉐마교육 커리큘럼

1.하나님과 나의관계	1.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창조, 말씀, 성령	12 주
	2. 하나님을 경험함 체험, 공동체, 고난	
	3. 하나님과 교제함 예배, 기도, 말씀에 순종	
	4. 하나님에 대한 태도 경외, 사랑, 동행	
2.나와 너의관계	5. 서로를 이해하기 다름, 하나됨, 역지사지	10 주
	6. 서로에게 다가기 겸손과 온유, 진실과 정직, 화평	
	7. 서로를 사랑하기 용서, 섬김과 희생, 짐을 짊어짐, 내 몸사랑하듯	
3.나자신과 의관계	8.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자리, 왕 같은 제사장	9 주
	9. 의인이면서 죄인! 죄인됨, 죄의 결과, 죄와 은혜	
	10. 치유와 회복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삶의 목적, 사명과 비전	
4.하나님 배우기	11. 하나님은 누구신가?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	16 주
	12. 예수님이 하신 일	

	<p>하나님의 나라, 기적과 치유, 십자가, 부활, 승천과 재림</p> <p>13. 성령님이 하시는 일 구원의 보증, 진리를 가르치, 능력 주심, 성령의 열매, 거룩함, 성령의 충만</p>	
5.성경 배우기	<p>14. 성경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의 영감, 말씀의 능력</p>	19 주
	<p>15.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진행, 하나님 나라의 완성</p>	
	<p>16.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언약, 다윗 언약, 새언약에 대한 약속, 새 언약</p>	
	<p>17. 지상명령 문화명령, 구약의 지상명령, 신약의 지상명령</p>	
	<p>18. 말씀대로 살기 들음, 거듭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 말씀의 규율, 말씀으로 인도함 받음</p>	
6.교회생활 배우기	<p>19.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시작,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영적 전투</p>	20 주
	<p>20. 영적성장과 성숙 성장의 필요성, 하나님 형상의 회복, 그리스도를 닮아감, 제자도</p>	
	<p>21. 그리스도인의 의무 예배, 말씀, 기도, 성령과 동행, 성도의교제, 구제와 선행, 전도와 선교, 십일조, 주일성수</p>	

	<p>22. 교회의 예식 세례, 성찬</p>	
<p>7.가정, 사회생활 배우기</p>	<p>23. 가정생활 부모공경, 형제 우애, 믿음의 가정 세우기</p>	<p>10 주</p>
	<p>24. 학교생활 겸손히 배우,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성실, 실력과 섬김</p>	
	<p>25. 사회에 공헌함 하나님 나라와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국가를 위해 기도함</p>	
<p>8.교회절기</p>	<p>26. 성탄절 27. 고난주간 28. 부활절 29. 어버이주일 30. 성령강림절 31. 추수감사절</p>	<p>13 주</p>
<p>9.성경인물</p>	<p>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삼손, 룯, 사무엘, 다윗,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히스기야(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느헤미야, 학개, 에스더, 말라기, 마리아와 요셉, 동방박사, 세례요한, 베드로, 요한, 삭개오, 야고보, 바나바, 바울, 스테반, 디모데, 실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약 23명, 신약 13명, 총 36명 - 인물을 대표하는 구절을 뽑되, 공과는 그 인물의 전 생애를 포괄하도록 구성. - 신구약 인물을 훑으므로 성경의 전체 즐거리를 파악할 수 있게 함 	<p>36 주</p>
<p>총 150 주 (총 150 구절 암송)</p>		

이 주제들은 성경에 근거를 둔 기독교 가치관을 키우는데 필요한 내용들로 선발하였고, 3년 주기로 반복되어 커리큘럼을 시행하는데, 단순 커리큘럼의 반복이 아니라, 3년 주기 후에는 같은 주제의 다른 본문들을 선택하여 심화과정으로 반복진행되도록 하였다.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교육을 한 결과 아이들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을 경험하였다.

다. 성경말씀암송

존 나스(John Knox)는 “가정에서 가족들이 매일 함께 성경을 읽고 중요한 성경 구절을 암송할 것과, 자녀들에게 기독교 교리와 십계명 그리고 시편을 가르쳐야만 한다.”²³⁴고 강조했다.

매주 한 주제에 맞추어 암송할 성경 구절을 정하여, 각 부서에서 성경 말씀 암송을 한다. 강제적인 암송이 되지 않고, 암송하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데 목표를 두었다. 3년 동안 주일학교 과정을 다 마친 학생들은 150개의 성경 말씀을 외우게 되는데, 한글 개역개정판과 영어 NIV로 각각 한글 암송과 영어 암송을 진행한다. 암송구절을 집에서 쉽게 하기 위해서, 암송 CD와 암송 UCC를 제작하여 교회학교와 가정이 이어지는 성경 구절암송교육이 되게 하였다. 이를 통해서, 부모가 자녀들이 교회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관심을 두도록 하였으며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가정에서 암송하는데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회학교에서 암송한 말씀은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성경말씀암송대회를 하기도 하고, 교육위원회 발표회시에 암송을 하여 전교인 앞에서 함께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기쁨을 나누기도 하였다. 매주 한 절이지만, 매주 배운 말씀을 생각하며, 암송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부족함이 없는 장성한 아이들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

234) 방현덕, *기독교가정교육론* (서울: 바울서신사, 2001), 69.

<표 8> 성경말씀 암송 150 구절 중 일부

<p>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p> <p>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Genesis 1:1)</p>
<p>2.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시니라 (요 1:1)</p> <p>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John 1:1)</p>
<p>3.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전 2:10)</p> <p>but God has revealed it to us by his Spirit. The Spirit searches all things, even the deep things of God. (1 Corinthians 2:10)</p>
<p>4.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 34:8)</p> <p>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blessed is the man who takes refuge in him. (Psalms 34:8)</p>
<p>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5)</p> <p>By this all men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love one another." (John 13:35)</p>
<p>6.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71)</p> <p>It was good for me to be afflicted so that I might learn your decrees. (Psalms 119:71)</p>
<p>7.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p> <p>God is spirit, and his worshi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John 4:24)</p>
<p>8.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6)</p> <p>Let us then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with confidence, so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us in our time of need. (Hebrews 4:16)</p>

라. 질문과 대답, 토론하는 분반공부

교회 안에서 젊은 세대가 떠나가면서, 동시에 찾아온 문제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질과 양의 절대적인 부족이다. 그나마 교회학교에 봉사하고 있는 교사들도 아이들을 가르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교사들이 태반이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과를 묵상하며 준비하는 교사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대부분 교사용 교재에 있는 답을 옮겨 적어주는 데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일쉐마교재²³⁵를 도입하였다. 주일쉐마교재와 기존 교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질문과 토론식 교재라는 점이다. 학생들에게도 공과책이 있으나 공과책은 대화를 연결하는 가이드를 할 뿐 답을 쓰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 분반 공부 시간에는 오로지 열린 귀와 마음, 그리고 자유롭게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입만 있으면 된다. 그리거나 만들기 등의 활동 보다는 교사와 학생이 철저하게 대화를 통해 성경을 가르치고 교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현재 교회학교 교사들은 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때문에 학생들이 대답하지 않거나 틀린 대답을 했을 때에 습관적으로 설명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게하고, 학생들이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질문으로 유도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처음 이런 형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다. 교사와 학생 모두 질문형 수업에 익숙하지 않은데, 질문식 수업이 가능할 것인가였다. 그래서 처음 교사들에게 주문한 것은 두 가지였다. 첫째, 정답을 정해주려고 하지 말아라. 둘째, 가능한 아이들이 이야기하게 하라, 교사들은 대화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 질문하는 역할만 하도록 하였다. 처음 한두 달 동안은 교사와 학생들 모두가 어색해하였고, 먼저 훈련받은 담당 교역자들이 도우미의 역할을 하면서, 차츰차츰 대화가 이어질 수 있었다.

235) 주일쉐마교재는 쉘마학당연구원에서 발행한 주일학교용 공과공부 교재이다.

4. 토요가정쉐마교육

가. 아이들의 실제적인 고민을 나눌 교육의 장 필요

주일에 각자들은 말씀을 가정으로 가서 고민을 하였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했다. 주일 하루에 들은 말씀으로 아이들의 1 주일의 삶 모두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아이들이 점점 성경 말씀에 관심과 흥미를 느끼고 열심히 배우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시선에는 성경과 자신의 삶, 성경과 학교, 학원, 입시 등은 여전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²³⁶

성경 안에서 삶의 지혜를 찾을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것과 동시에 이 성경의 말씀을 아이들의 실제 삶의 문제들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있었다.

이런 실제적인 고민 속에서 교회학교와 주일예배 외에 다른 교육의 장이 필요하다는 데서 토요쉐마학당이 시작되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정의 예배는 가정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고민하며,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의무와 필요를 고려하여 토요쉐마학당을 준비하였다.

나. 토요쉐마학당의 준비와 시작

쉐마학당의 시간은 토요일 오후 5 시부터 6 시까지 한 시간으로 잡았다. 놀토로 인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 제일 좋은 시간인면서, 토요일 오전에는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사역들과 결혼식 등 많은 모임이 있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오후 3-4 시 경에 끝나게 된다. 그래서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으로 오후 5 시로 정했고, 토요쉐마학당이 끝나면 오후 6 시가 되는데, 부모와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함께 주일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도록 준비하였다.

236) 청소년부를 사역하면서, 성경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고 할 때,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는 성경에는 대학교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수능 안 봐도 되잖아요 라는 질문이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필자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복음을 아이들에게 전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의 시작이 되었다.

약 2 달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필요한 장소와 기자재들을 준비하였고, 주일예배와 주보 광고를 통해서, 교육부서의 광고를 통해서 토요쉐마학당의 시작과 중요성, 그리고 참여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2014 년 5 월 10 일 첫 토요쉐마학당 모임이 시작되었다.²³⁷ 20 가정이 참석하여 토요쉐마학당의 시작을 알렸다.

다. 토요쉐마학당의 실제

쉐마학당에 참석한 부모와 아이들은 서로에 대해서 고개와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혹시 아이들이 다른 어른들이나, 교역자들을 못 보고 인사를 안 하고 지나 가면 다시 붙어서 인사를 하게 하였다. 이것이 쉐마학당의 처음 시작의 모습이었다.

유치부 아이들부터, 청년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테이블의 분위기는 어수선했고, 아이들의 연령대에 따라서 집중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 시간을 앉아 있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또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한 시간씩 앉아서 대화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한 시간 동안 다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저 연령대의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그런 상황들이 힘들어서 한 두 주 참석 한 후에 토요쉐마학당에 오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시작 후 처음 두달 동안은 적응이 안 된 부모들을 격려하며, 쉐마학당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 집중하였다.

시간이 흐르고, 점차 토론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 저학년의 아이들이 고학년들이 진지하게 쉐마학당에 참여하는 모습에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한번 분위기가 잡히고 대화가 터지기 시작하자, 과연 이 가정들이 대화가 없었던 가정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진행이 되었다. 처음에는 부모와 자녀들 모두가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서 아이들에게 정답을 제시하려고 했지만, 계속되는 훈련과 주일쉐마말씀교육을 함께 병행하는 가정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질문과 토론은 쉽게 정착되어 갔다.

기본적인 교안을 제공하였지만, 교안에 얽매이지 않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

237) 에덴교회 쉐마준비모임 회의록 2014 년 5 월, (서울: 에덴교회, 2014). 2014 년 첫모임은 20 가정이 참여하여 시작하였다. 이중에 목회자의 가정 1, 성도들의 가정 12, 새가족 가정 2, 그리고 부모가 참석하지 못하여 준비된 교사가 인도한 가정 5 이었다.

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사전 부모교육 시간을 통해서 질문하고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인 강의를 하였다. 처음 참여하는 가정의 부모는 가르치는 것 뿐 아니라 특정 주제를 가지고 자녀와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한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얼마 되지 않아 포기하는 가정도 생겨났다. 하지만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서 주일설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필요에 따라 담임목사와 담당 목회자들이 직접 심방하여 건강한 가정세우기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독려했다.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꾸준히 한 달 이상 참여한 부모들은 점점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능숙한 교사가 되어가고, 자녀들과의 소통이 시작되었다. 이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바쁘다고 핑계를 대던 사람들도 자녀들과의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토요쉐마학당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기 시작했다.

라. 토요쉐마학당의 구성

토요쉐마학당의 교재는 귀납적 성경연구 방법에 의해 준비되었다. 첫째로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관찰’과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의미를 발견하는 ‘해석’, 그리고 이 본문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발견하는 ‘적용’의 3 단계로 구성되었다.

쉐마학당에서 다루는 주제는 실천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성경 본문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결심을 유도하게 한다. 모든 문항은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고, 단답형이 아닌 자신의 생각들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여 부모와 자녀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교재는 한과에 6 단계로 구성이 되었다.

첫째, ‘시작 전 질문’이다. 시작 전 질문은 주위를 환기시키고 마음을 여는 질문이다. 쉐마학당의 모든 순서는 부모가 직접 진행하지만, 단 하나, 시작 전 질문은 교역자가 전체 참석자를 대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함으로 쉐마학당의 시작을 알린다. 간결한 한 문장으로

된 이 질문은 참석자들의 마음을 정돈하고, 주의를 집중하여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지 알리는 시작의 역할을 한다.

둘째, 도입 질문이다. 도입질문은 소그룹 운영에서 많이 사용하는 아이스 브레이크(Ice Break)와 같은 역할을 한다. 정답이 없는 가벼운 질문을 통해서, 이미 한 주간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었지만, 다시 1 시간의 대화를 위해서 부모와 자녀들의 말문을 여는 시간으로 사용되었다.

셋째, 성경 읽기 시간이다. ‘도입 질문’을 마친 가정들은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소리 내 본문을 읽기 시작하는데, 전체 진행을 위해서 본문이 길 경우는 1 번, 본문이 짧은 경우는 두, 세 번 반복하여 읽도록 교역자가 안내해준다.²³⁸

넷째, 본문설명 시간이다. 토요쉐마학당 시간 중 유일하게 가르치는 형식을 취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 부모들은 자녀에게 본문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미리 교재를 통해서 부모들은 내용을 숙지해 온 상태이고, 쉐마학당 시작 전 30 분전에 모여서 담당교역자와 부모들이 그날의 본문에 관한 인사이트를 나누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다. 쉐마학당을 진행하면서 부모들이 제일 부담을 가진 것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이었는데, 누구든지 두 번 이상만 읽으면 쉽게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교재가 구성되어 있다.

다섯째, 질문 및 토론 & 핫(Hot) 토론이다. 본문 설명 이후 질문과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대화가 시작이 된다. 부모가 설명한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 이해에 대한 질문과 생활에 적용하는 질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만한 문제들로 구성했다. 아이들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부모들은 정답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 안에서 또 다른 질문을 찾아내어 계속 질문의 고리를 이어가게 된다. 보통 한 과에 7~10 개 정도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시간 동안 모든 질문을 다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사전 부모 교육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할 질문들을 미리 정하도록 하였고, 쉐마학당시간에 다루지 못한 질문들은 자연스럽게 가정으로 이어져서

238) 토요쉐마학당의 특징은 교역자들은 진행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처음 시작할 때의 도입질문과 각 단계별로 진행되기 위한 타임키퍼의 역할 외에 나머지 모든 진행은 각 테이블의 부모들이 주체가 되어서 진행한다.

대화의 고리가 연결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질문과 토론의 시간 다음 마무리는 그날의 가장 관심이 있었던 주제를 가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핫토론이 시작된다. 가능하면 부모들은 자녀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반대쪽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여, 토론이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요구하였다. 이 핫토론의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의 사고가 확장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섯째, 마지막 질문이다. 본문에서 나눈 내용들을 중심으로 실천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거나, 간단한 글, 격언과 명언, 탈무드 이야기들을 소개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한주간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계획하고 다짐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은 웨마학당에서 사용한 주제의 일부분이다.

<표 9> 토요웨마학당 교재의 내용

과	주 제	성경본문
1 과	세상과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창 1 장
2 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출 20:1-17
3 과	나의 꿈은 무엇인가?	창 37 장
4 과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욥 28 장
5 과	시간의 중요성	시 90 편
6 과	돈의 소중함	눅 16:1-13
7 과	감사하며 살자	시 100 편
8 과	좋은 친구가 됩시다	삼상 20 장
9 과	전통의 가치	수 4 장
10 과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약 3 장

11 과	실패를 통해 전진하기	수 7:1-15, 8:1-23
12 과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창 8:13-9:17
13 과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고전 10:23-33
14 과	공동체의 중요성	고전 12:12-27
15 과	인격의 성장	히 11:23-29
16 과	인내력 기르기	약 5:7-11
17 과	닮고 싶은 인물	왕하 2:1-18
18 과	효자/효녀가 됩시다!	막 14:32-42
19 과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되자!	살전 2:1-12
20 과	성실한 사람이 됩시다!	골 3:22-25
21 과	검소한 생활	사 5:31-9
22 과	우리나라의 훌륭한 신앙인	고전 4 장
23 과	창의력 기르기	출 3:1-15
24 과	분로를 잘 다스립시다!	민 20:1-13
25 과	열등감 극복하기	삼하 9 장
26 과	두려움 극복하기	시 23 편
27 과	경청하는 자세	마 13:1-23
28 과	웃는 얼굴로 삽시다!	시 30 편
29 과	형제 자매 우애	창 45:1-15
30 과	최선을 다하는 삶	롬 15:16-33
31 과	건강한 몸	단 1 장
32 과	나라 사랑, 민족사랑	에 4 장
33 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요 4:3-26
34 과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마 6:5-15
35 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요 13:1-17

36 과	영혼을 살리는 전도사	행 8:26-40
37 과	착한 사람 바나바	행 9:26-30
38 과	실수를 용납하신 예수님(베드로)	요 21:9-23
39 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삼상 30:1-25

대부분의 주제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제들로, 토요 웨마학당을 통해서 삶의 고민과 실천이 일어나게 되었다.

모든 주제를 나눈 후 웨마학당의 마지막 시간은 ‘부모와 자녀에게 바람 말하기와 칭찬하기’ 시간으로 맺는다.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바람이 있다면 혹은 칭찬할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말하는 것이다. 생활을 하다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며 자녀에게 원하는 것들을 공식적인 시간을 통해 잔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전달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시간에 자녀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한 주일 동안 미리 칭찬 거리를 준비하여 오는 부모들도 생기게 되었다. 웨마학당에 참석한 한 부모는 자녀들을 칭찬하는 일을 통한 변화를 이렇게 말한다.

이전에는 우리 아이가 사춘기이고, 무뚝뚝해서 엄마와 대화하는 것조차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잔소리만 했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칭찬을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칭찬을 많이 해주니까, 사춘기가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에게 칭찬을 더 많이 해주어야겠어요 (고1 여학생 학부모, C 집사)

또 한 학생은 이렇게 말한다.

엄마는 잔소리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랑 이야기 하기도 싫어서 화를 내고 싸우기만 했는데, 엄마가 칭찬해주니 이상해요, 그래도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네요. 엄마에게 칭찬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저도 노력해야겠어요 (중2, S 학생)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칭찬하고 자녀들이 자신의 바람을 부모에게 말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대하는 자세의 변화와 관계의 회복이 시작되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로, 부모와 자녀의 세대 간의 단절에서 소통과 회복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마. 토요쉐마학당과 부모와 함께하는 활동들

한 주에 한 번 교회에 모여서 하는 토요쉐마활동 프로그램 외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과 교제의 장을 개발해 주는 데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하였다.

첫째는 부모와 함께하는 가족 캠프이다. 전반기와 하반기 방학 시즌을 통해서 기획된 이 캠프는 여름에는 야영장에서 함께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면서 가족의 시간을 보내고, 겨울에는 호텔 및 콘도를 예약하여서 실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하였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녀들과 함께 휴가를 가기도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가족 캠프는 큰 인기를 끌게 되었고, 평소에 발견하지 못했던 가족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과 쉼프로그램에 더 참여를 하게 하는 동기부여의 역할을 하였다.

둘째는 부모와 함께 하는 쉼마탐방이다. 비정기적으로 토요쉐마학당에 참여하는 가족들을 중심으로 서울 시내의 역사 유적지, 순교지 등을 탐방하여 함께 역사를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들을 통해서 역사와 신앙의 교육과 가족의 화목증진 등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5. 다른 교회 토요쉐마학당 현황

토요쉐마학당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회들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의 조사 결과 대부분의 교회는 쉼마학당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순서는 대동소이하며, 실무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쉼마학당이 주는 유익과 장단점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가. 수원 동원교회

수원 동원교회는 2012년 3월부터 토요쉐마학당을 시작하였다. 꾸준히 4-5 가정에 2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모이는데, 전체 교인의 규모가 140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적은 숫자는 아니다. 수원 동원교회에서 쉐마학당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J 목사는 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토요 쉐마학당의 장점을 첫째 부모가 자녀를 일대일로 신앙의 교육을 하는 장점이 있고, 둘째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성경으로 소통이 시작되었고, 셋째,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자녀와 함께 꾸고 가정의 비전을 세워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토요쉐마학당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정기적인 대화의 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단점으로는 전체 교인의 비율로는 적은 숫자가 아니지만, 4-5 가정 20여 명의 숫자가 모이기 때문에, 한두 가정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지게 되었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라앉고 다른 가정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과, 끊임없는 콘텐츠의 개발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더 좋을 것이라는 제안도 하였다.

나. 인천 계산교회

인천 계산교회는 명칭을 ‘토요쉐마학교’라고 명명하였고, 매주 약 30-40 가정 정도가 모여서 토요 쉐마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계산교회 쉐마학교의 특징은 매주 개설되는 것이 아니라, 학기제로 운영이 되며 3-6월 1 학기가, 9-12월에 2 학기로 운영이 되며, 두 학기 동안 집중적으로 토요쉐마학교가 진행이 된다. 계산교회의 P 목사는 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30-40 가정이 모여서 프로그램 진행이 잘되기는 하지만 여러 사정과 형편으로 인해서 고정적으로 출석하는 인원들과 2-3주에 한 번씩 참석하는 인원들이 있어서 그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계속 교육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부모들의 주입식 교육이 되는 경우가 아직은 많이 있다고 하였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법을 위해서 특강을 준비하는 등, 이런 교수법을 잘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대형교회의²³⁹⁾ 특성상 토요쉐마학교

239) 인천 계산교회는 예장 합동측에 속한 교회로서 주일출석 기준으로 장년성도 3000명, 교육부서 15

가 전 교인들의 관심을 끌기보다는 교육부서의 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제3 절 믿음의 가정 세우기 사역 평가

믿음의 가정 세우기 사역을 통한 변화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내용들로 정리할 수 있다.

1. 가정에 일어난 변화

첫째, 말씀을 통한 변화, 믿음의 가정 세우기 전략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기대하였다. 꾸준히 온 가족 예배와 주일쉐마교육, 토요쉐마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아이가 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말씀 안에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모습이 참 대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보다,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이 먼저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또 “내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고민이 되었고, 자녀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말 하나하나에도 조심하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한다. 경건 교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경건의 생활과 삶의 표현에 잘 나타나며, 배어나도록 가르치며,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²⁴⁰

둘째,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와 소통의 회복이 있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많을 때, 자녀의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 집중력은 학업 성취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²⁴¹

그러나 최근 한 포털사이트에서 전국 10-50 대 이상 남녀회원을 대상으로 한 ‘가족관계’

00명 이상 되는 중대형 교회이다.

240) 설은주, *가정사역론*, 83.

241) EBS 다큐멘터리 학교란 무엇인가? 2010년 11월 15일.

를 주제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10 명 중 7 명은 가족과 함께 있지만, 이 중 37.8%는 가족과 하루 20 분미만으로 대화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²⁴² 또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5 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 소재 고등학생 522 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고교생 50.8%가 '가족 간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30 분 이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10 분 이내'가 14.2%, 10~30 분이 36.6%였다. 또 '30 분~60 분(26.4%)', '1 시간 이상(22.8%)'으로 나타났다.' 고교생 절반 가까이가 부모와 하루 30 분도 대화를 채 못 나누고 있다는 것이다²⁴³

그 외 많은 기관들에서 설문 조사를 하지만, 그 수치는 비슷하거나 가족 간의 대화의 시간이 점점 0%를 향해 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시도한 사역들의 핵심은 부모와 자녀가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대화의 시간이다. 주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부모와 함께 생각을 나누고, 토요쉐마학당을 통해서 교회 밖의 문제들과 관심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한 청소년부 학생 A 군은 한 달 동안 주일쉐마교육과 토요쉐마학당에 참여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제가 지난 1 년 동안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시간보다, 지난 1 개월 동안 교회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242)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 (<https://www.alba.co.kr>). 대화시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루 20 분미만이 3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루 30 분 이상 1 시간미만' 19.7%, '1 시간 이상 2 시간미만' 15.6%, '하루 20 분 이상 30 분미만' 14%, '2 시간 이상' 12.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예 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1.4%였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대화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이야기를 해도 가족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지 않아서'가 3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족과 마주칠 시간이 없어서' 18.9%, '가족과 함께하기보다 혼자만의 시간만 갖고 싶어서' 13.5%,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너무 달라서' 13.5% 등의 이유로 대화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43) 인터넷 뉴스, Go 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 2016 년 3 월 11 일, “하루 50 분도 자녀와 대화 못 나누는 가정이 70%”.

또 학부모로 참여한 B 집사는 “내가 우리 아이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해본 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 하고 이야기를 항상 하였지만, 정작 학교공부와 여러 가지 일들에 쫓겨서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내본 적이 없는데, 정말 감사해요”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보조교사로 참여한 청년 D 양은 “정말 내가 담당할 아이의 부모가 된 느낌이에요, 한편으로는 나는 부모님과 이렇게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부러웠어요 이것을 계기로 부모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봐야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들이 바로 해결되는 직접적인 사건들은 아직 없었다. 막혔던 부모와 자녀들의 대화가 시작되었고, 자녀들과 함께 기쁘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모습들은 가정의 회복의 시작 이었다. D 양의 인터뷰에서처럼 다른 가정들에는 ‘우리 가정도 회복할 수 있다, 우리의 가정도 말씀의 회복이 필요하구나’라는 도전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부모와의 계속되는 토론을 통해서 사춘기에 흔히 나타나는 소통단절 현상이 없어지게 되었다.

셋째, 부모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고, 자녀들에게 부모의 지혜를 전수할 수 있게 되었다. 부쉬넬은 신앙양육자는 먼저 부모라고 하였다. 부모는 먼저 자신들이 “주님의 돌보심”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부모 이상 더 중요한 기독교 양육자는 없다고 말한다.²⁴⁴ 여러 가지 주제들을 진행하면서, 삶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은 성경 속에서 찾고, 성경 안에서 삶의 지혜와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 주로 이 문제들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계속되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자녀들은 주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 하게 되고, 부모들은 먼저 겪었던 자신들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게 된다. 비록 부모들 중에서는 성경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삶의 지혜를 자녀들과 나누기에는 충분하다. 지난 인생의 연륜 속에서 부모자신들의 실수와 경험담, 그리고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깨달았던 점들을 자녀와 함께 나누면서, 자녀들과 친밀감도 더 쌓게 되는 효과와,

244) 오인택 외, *기독교 교육사*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8), 349-350.

부모의 지혜를 인정하는 시간들을 통해,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고 자녀들에게 부모의 지혜가 전해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넷째, 효의 중요성과 예절교육의 효과가 나타났다. 말씀을 배우면서 요즘 가정의 아이들은 형제가 없이 혼자 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인성과 별개로 예절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부모에 대한 예의범 20 가지’나 ‘부모 공경 성구 암송’등을 통해서 효와 예절에 대한 내용을 암송하고 실천하는 일등을 통해서 예절을 생활화하는 시도를 하였고, 토요일 쉼마학당 마지막에는 부모에게 인사하기와 같은 시간들을 꾸준히 가지면서 효와 예절을 실천하는데 꾸준한 노력을 하였다. 토요일 쉼마학당의 주제중 효나 예절에 관한 주제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효사상, 성경이 말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토요일 쉼마학당에서 예절 교육을 받은 후 변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토요일 쉼마학당을 하기 전에는 저는 오빠와 자주 싸웠고 어머니와도 자주 싸웠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에게 화도 많이 냈고, 이기적이었고 많이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늦게 오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도 않고 매일 떠들었습니다. 쉼마학당을 통해서 여러 훈련을 받았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앞으로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성격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또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고 1, K 학생)

다섯째, 성품 교육을 통한 변화이다. 쉼마학당을 통해 다른 성품에 관련된 주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인격의 성장’, ‘인내력 기르기’,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등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이러한 자녀들을 통해 자녀들은 인성이 계발되고, 성품이 곧 능력이 됨을 깨닫게 되었다. 부모는 아이를 가르치면서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고, 함께 공부한 내용을 돌아보며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었다. ‘칭찬 말하기’ 시간에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칭찬을 말하면서, 가족 간에 치유의 효과가 일어나게 되었고, ‘바람 말하기’ 시간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고민을 말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그리고 기타하고 싶은 말을 뭐든지 하는 시간이다. 이런 시간

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개인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2. 교회에 일어난 변화

가. 교회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처음에는 수동적인 자세로, 부모나 교사가 물어보는 질문에만 대답하던 아이들이 약 1년여의 시간이 지나자,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질문하는 아이들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어른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아이들이 질문할 때는 모두가 놀라기도 하였다. 토요쉐마학당에 자녀들과 함께했던 부모들이 교회학교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교회학교에 교사로 봉사를 하기도 하고, 주일학교 행사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는 효과도 일어났다. 부모들의 이런 변화는 기존의 변화를 거부하고, 고착화 되어 있던 교사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이 되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나. 교회안의 역동적인 분위기 전환효과

교회학교 안에만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교회학교의 변화의 바람은 곧 교회전체로 분위기가 옮겨가게 되었다. 첫째로 주중에는 어린이집 등하원을 위해 들리는 어린이집 학부모들 외에는 젊은 세대의 발걸음이 거의 없었지만, 토요일 쉼마학당을 위해서 주중에도 부모들이 교회에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의 분위기가 역동적이고 밝은 분위기로 전환이 되었다.

둘째,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대 예배 시간에도 아이들이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예배의 분위기도 밝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가정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장년 세대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배운다는 사실을 강조한 결과 자녀들이 오지 않는 장년 세대들도 다른 아이들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예배 전체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화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셋째, 활력과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사역의 모습, 목요일 전도대 및 교회 전체의 행사에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였고, 아이들을 따라서 젊은 부부들이 함께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대외적으로 교회의 이미지가 젊고 밝은 이미지가 생성되었고, 각 세대 간에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교회사역이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활력이 있는 교회의 모습은 새 가족들이 교회에 방문하였을 때, 좋은 인상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다니고 싶은 교회라는 인식을 통해서, 새 가족들의 정착률을 높이는데도 이바지를 하였다.

넷째, 세대의 조화를 이루어 가고 있다. 이전의 사역의 현장들에서는 주로 50-60 대의 노년층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30-40 대의 젊은 층과, 10-20 대의 청년, 청소년층이 교회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전 세대의 신앙이 유산이 흐르게 되었고, 세대 간의 조화를 이루어 교회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다. 건강한 가정의 세우기 사역의 중요성 인식

약 3 년간의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사역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직접적인 성장의 모습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인식하고,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 서서히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가정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떠나고, 자녀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성도들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미 부모세대를 떠나보낸 성도들은 마음의 쓴 뿌리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런 쓴 뿌리들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남의 집안일에 상관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며, 건강한 가정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와 가정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을 되새기게 되었다. 교회와 가정 사이에는 견고한 끈과 지대한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즉, 가정과 교회는 매우 견고하게 연합되어 있으므로 교회 사역의 성공

여부도 교회내의 가정의 행복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²⁴⁵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세워진 건강한 가정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도약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상관관계를 인식하여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비전의 소중함을 깨닫고 모든 성도들이 기꺼이 비전에 동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라. 건강한 가정 세우기 사역의 한계와 나아갈 길

지금까지 에덴교회에서 실시하였던, 건강한 가정 세우기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세대 간 통합예배,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교회학교 교육과, 주중에 이어지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약 3년간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있기에 이곳에서 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아직은 실질적인 참여하는 가정의 숫자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에덴교회는 장년 성도가 주일 출석 기준으로 약 500명 정도 참석하는데, 3년간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는 약 80-90 정도의 가정과 약 200여명의 성도들이 가정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토요쉐마학당이 진행되는 지난 3년의 시간동안 평균 20가정이 참석하였다.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하여 토요일 오전대로 시간을 변경하기도 하였지만, 참석인원이 많이 증가하지는 않고, 평균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토요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가구가 많은 지역적인 특색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토요쉐마학당이 꾸준히 진행되어서 건강한 가정을 더 세워가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가족을 꾸준히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두 번째는, 주일쉐마말씀교육과 토요쉐마학당이 질문과 토론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새로운 교사가 임명되었을 때나, 새로운 아이들이 찾아올 때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각 부서에 새 가족반 및 토요쉐마학당 초보자반을 개설하여서 단계적으로

245) Charles M. Sell, *가정사역*, 21.

쉐마말씀프로그램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세 번째는, 부모가 함께 참여하지 않고, 자녀들만 참여하는 경우이다. 온가족예배와, 주일쉐마말씀교육, 토요쉐마학당에 참여하는 아이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부모와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인 아이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경우 주일학교 교사들과 목회자들이, 또 중직자들이 대부, 대모가 되어서 함께 참여하지만, 실제 부모와 함께 하는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부모들을 교회로 초청하기 위해서, 문화공연 및 아이들의 발표회, 에츠하임카페 이용과 태신자 초청 큰잔치 등, 교회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

넷째, 목회계획 중 가정의 활성화에 쏟을 수 있는 에너지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에서 목회 활성화 계획 중에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을 진행하였지만, 교회 구성원 중에 사정상 가정들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이 비전을 공유하지만, 실질적인 사역은 일부에만 집중된다는 의견을 감수해야 함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제 7 장 결 론

지금까지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에서 건강한 기독교가정을 세우기 위한 목회활성화 전략을 살펴보았다.

제 1 절 논문의 요약

제 1 장 서론에서는 한국교회가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해지만,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가정들이 동반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세대 간의 갈등과 젊은 세대가 교회를 이탈하는 현실을 살펴보고, 그 이유를 변화를 두려워하고 이전의 방식만을 고수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 제시하였다. 교회가 젊은 세대의 이탈을 막고 건강한 가정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교회 안에서 가정 사역의 방향을 전환하여, 장년 사역에 집중되어 있는 교회의 비전과 예산과 에너지를 다음세대를 살리는 일에 적극 투자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고, 본 연구를 전통적인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에텐교회에서 시행했던 목회 활성화 전략과 건강한 가정 세우기 사역을 통해서 살펴볼 것을 밝혔다.

제 2 장에서 가정에 대해 고찰을 하였다. 가정에 대한 일반적이고 사회학적인 접근과 이해를 통해서 가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고, 성경에 나타난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일반적인 가정들과 기독교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단순히 가정의 유지, 발전, 번영, 지속의 목적을 뛰어넘어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기독교 가정에서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건강한 기독교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이 중요한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제 3 장에서는 건강한 가정의 세우기 위한 목표 설정을 위하여, 가정의 기능에서 조금 더 접근하여 성경에서 가정 안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에서 살펴본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교육적 기능이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자녀들을 종교적으로 신앙경건훈련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한 모델로서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지는 유대인들의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현대의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가정들의 모습은 부모가 이런 교사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에 자녀들을 맡기는 것만으로 만족해하고, 오히려 사교육에만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와 가정의 공통된 관심 영역으로서 교회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과 환경, 프로그램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생각해 보았다.

제 4 장에서는 본연구의 배경이 되는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의 특징에 대한 고찰이다.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발적인 성장에는 암울했던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과의 조화, 암울한 시대 속에 주어진 소망과, 강력한 지도력, 그리고 충성과 열정이 근간이 되어서 성장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대와 상황이 바뀌었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들은 여전히 과거의 성장만을 기억하면서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의 방법을 고수하였고, 변화를 거부하는 안일함 속에서, 교회의 본질이 약해져서 쇠락의 길을 걷고,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인 차원이 아닌 외형적인 성장에만 치중하다 보니, 결국 교회 내부의 영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실패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런 성장과 쇠락의 과정에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1 세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자녀세대들이 교회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모습들이 매스컴의 발달로 사회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한국 사회에 만연하게 되

었다. 교회의 이미지 제고와 재도약을 위해서는 이런 교회 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제 5 장에서는 본 연구의 바탕이 된 에덴교회의 역사화 목회 활성화 전략에 대한 내용이다. 에덴교회는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명성과 영광에만 집착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교회였다. 약 3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젊은 세대가 떠나가고 세대 간의 단절, 가정의 단절이 되는 아픔을 겪는 등, 전통적인 교회의 성장과 쇠락의 길을 함께 하고 있었다.

그런 전통적인 에덴교회에 광성덕 목사가 부임하여 전통적인 교회의 갱신과 목회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소개하였다. 교회 활성화를 위한 준비와, 목회철학과 비전의 수립, 새 생활 영성훈련, 오래된 교회의 리모델링을 통한 교회의 이미지 제고, 역동적인 예배와 기도의 활성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체계적인 양육체계의 확립과 평신도 중심의 사역개발 등 전통적인 한국교회에서 교회의 갱신을 위해 할 수 있는 목회 활성화 전략들의 시행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회의 이미지가 재고되고, 예배가 살아나면서, 낙심하여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불신가족들과 새 가족들이 계속 유입이 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음 단계로의 도약이 필요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제 6 장에서는 교회의 갱신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당면한 과제들 중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한 전략들을 소개하고 있다. 같은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 다른 공간에서 저마다의 예배를 드리고, 세대 간의 소통과 공감 없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디자인하였다. 이를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비전을 공유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참여한 결과, 예배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자연스럽게 말씀 가운데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면서 가정 안에서 말씀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전 교회학교의 체계를 정비하

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외에, 각 부서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장년부부터 영아부까지 성경 본문과 주제를 토의하여,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대한 고민과 토론이 자연스럽게 가정으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성경말씀과 자신의 현실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는 아이들을 위하여 주 1회 토요일에 모이는 토요쉐마학당을 통해서,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고민들을 부모와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만들었고, 꾸준히 참여한 가정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회복 및, 믿음의 가정으로서 부모와 자녀의 신앙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처럼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서,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들이 쇠락의 길을 걷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대되며,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교회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예배와 말씀, 그리고 부모와 함께 고민하는 것을 통해서 가정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질 때,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인재들이 배출되어지고, 건강한 가정들이 동력이 되어서 교회도 다시 한 번 회복과 성장을 하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은 개인과 가정이 하기에는 벅찬 일이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적극적으로 가정을 위한 사역과 프로그램들을 시행해야 하며, 온 교회가 함께 이를 교회의 사명과 비전으로 생각하고 전념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필자는 다음의 영역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다음의 기여가 있기를 희망한다. 첫째,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에서 교회갱신과 목회 활성화를 위한 경험과 전략들이 같은 시도를 하는 교회들에게 하나의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들을 세우는 노력들이 많아지고, 말씀과 기독교 가치관에 세워진 기독교 가정들이 한국교회의 회복과 한국의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1. 국문 서적

- 관악구. *관악구 민선 6기 일자리대책 종합기획*. 서울: 관악출판사, 2014.
- _____. *관악통계연보*. 서울: 관악출판사, 2016.
- _____. *구정백서*. 서울: 관악출판사, 2008.
- 관악구편찬위원회. *관악20년사*. 서울: 지성사, 1996.
- 곽안전. *한국교회사*. 서울: 기독교서회, 1970.
- 권성수, 양참삼, 이만열. *3인의 석학이 풀어 본 교회성장이야기*. 서울: 기독교신문사, 1997.
- 권준. *우리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서울: 두란노, 2007.
- 김득용. *주교 교육학*. 서울: 정음 출판사, 1973.
- 김명찬. “21세기 교회부흥의 7가지 뉴 패러다임.” *목회와 신학*. 2009년 11월호.
- 김석년. *패스 브레이킹*.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2.
- 김선일. “지속가능한 신앙 형성을 위한 교회의 역할.” *목회와 신학*. 2016년 4월호.
- 김세윤.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 서울: 두란노, 2004.
- 김승호. “수직적 리더십을 벗어나 공유 리더십으로.” *목회와 신학*. 2017년 7월호.
- 김영재. *한국교회사*.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2.
- 김진한. “합동개혁 26년만에 전격 교단 통합.” *크리스천투데이*. 2005년 9월 27일.
- 김회권. “설교, 말씀을 진지하게 선포하는 사역으로.” *목회와 신학*. 2004년 7월호.
- _____.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이후.” *목회와 신학*. 2003년 9월호.
- 김희자. “교회여, 부모를 교육하라!” *목회와신학*. 2016년 4월호.
- 대한기독교교육협의회. *한국기독교교육사*.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74.
- 마포삼열.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10회 회의록*. 평양: 광문서, 1920.
- 명성훈. *교회성장마인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1.

- 문숙재, 최혜경, 정순희. *현대사회와 가정*. 서울: 교문사, 2001.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 박건. *멘토링사역, 멘토링 목회*. 서울: 나침반, 2006.
- 박민자. *가족과 한국 사회: 가족의 개념정의,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서울: 경문사, 1995.
- 박상진. *기독교 교육 개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07.
- 박아론. “한국교회 급성장의 원인에 대한 고찰.” *신학지남* 1998년 여름호.
- 박영철. “진력할 목회의 목표, 전도와 새신자 양육.” *목회와신학* 2004년 7월호.
- 박용규. *평양 대부흥운동*.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0.
- _____. *한국교회를 깨운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 _____. *한국기독교회사 1*.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7.
- 방현덕. *기독교가정교육론*. 서울: 바울서신사, 2001.
- 배성우.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족 예배를 기획하라.” *목회와 신학 총서01 가정사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10.
-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소. *기독교교육개론*. 서울: 기성출판사, 1994.
-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편. *서울민족대관*. 서울: 예문사, 1996.
- 설동주. *네 자녀 네가 가르쳐라*. 서울: 웨마학당연구원, 2013.
- 설은주. *가정사역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0.
- 신상목. “교회 변화 이끄는 미국 두 교회.” *국민일보* 2009년 9월 3일자.
-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 (<https://www.alba.co.kr/>).
- 안덕원. “소박한 동네교회의 탁월한 음악과 세대통합예배.” *목회와 신학* 2018년 3월호.
- 엄예선.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 에덴교회. *에덴교회 교역자회의록*. 서울: 에덴교회, 2006.
- _____. *에덴교회 당회록*. 서울: 에덴교회, 2004.
- _____. *에덴교회 웨마준비모임 회의록*. 서울: 에덴교회, 2014.
- _____. *에덴교회 요람*. 서울: 에덴교회, 2007.

- _____. *에덴교회 요람*. 서울: 에덴교회, 2018.
- _____. *에덴교회 주보영인본*. 서울: 에덴교회, 1973.
- _____. *에덴교회 주보영인본*. 서울: 에덴교회, 1975.
- _____. *에덴교회 주보영인본*. 서울: 에덴교회, 1982.
- _____. *에덴교회 주보영인본*. 서울: 에덴교회, 2006.
- _____. *에덴교회 주보영인본*. 서울: 에덴교회, 2007.
- _____. *에덴교회 주보영인본*. 서울: 에덴교회, 2008.
- _____. *에덴교회 청소년부 주보영인본*. 서울: 에덴교회, 2011.
- _____. *에덴교회 청소년부 회의록*. 서울: 에덴교회, 2014.
- 오인탁 외. *기독교교육사*.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8.
- 옥선자, 정민자. *결혼과 가족*. 서울: 하우, 1992.
- 옥성득 교수의 한국 기독교 역사 블로그. (<https://koreanchristianity.tistory.com>).
-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 유영주 외. *가족 발달학*. 서울: 교문사, 1995.
- 윤재수. *한국장로교회 부흥운동사*. 부산: 성문출판사, 1981.
- 이근호. *성서로 본 부부갈등과 가족문제 해결*. 서울: 도서출판 한글, 1999.
- 이동원. *가정행전*. 서울: 규장, 1998.
- EBS 다큐멘터리. *학교란 무엇인가?* 2010년 11월 15일.
- 이상규. “미국교회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교회의 현실과 과제.” 2020 *한국교회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라*. 서울: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 이상만. *12 단계 오이코스 전도*. 서울: 오이코스코리아, 2005.
- 이요한. “한국교회는 왜 성장둔화의 침체에 부딪혔는가?” *월간목회*. 1992년 10월.
- 이용남. *복음에 미치다*. 서울: 두란노, 2007.
- 이원규. *기독교의 위기와 희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_____. “사회변동과 한국교회의 미래: 양적 및 영적 성장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목협 제10*

- 회 전국수련회 교재. 서울: 한국기독교목회자 협의회.
- _____. *종교사회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 _____.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_____. “해방 후 한국인의 종교의식구조 변천 연구.” *현대 한국종교 변동연구,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편*.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재훈. “마케팅 원리를 응용한 전도: 맞춤전도집회.” *목회와 신학*. 2008년 8월호.
- 이현숙. “교육교역: 부모 교육을 통한 기독교 가정 교육.” *교육교회*. 1992년 10월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 이효재. *가족과 사회*. 서울: 경문사, 1983.
- 인터넷 뉴스, Go 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
- 전용재. “성장과 둔화의 분기점에 선 한국교회.” *기독교세계*. 1997년 2월호
- 정인수. *영혼을 혁신하는 목회 리더십*. 서울: 두란노, 2008.
- 조두만. *히브리어, 헬리어 한글 성경대사전*. 서울: 성지사, 1987.
- 조성돈. “이머징 교회의 아이콘 전통, 신비.” *국민일보* 2003년 4월 21일자.
- 조성은, 정재영 편. *그들은 왜 카톨릭교회로 갔을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7.
- 지원용. *루터의 사상*. 서울: 키클디아사, 1961.
- 최승현. “교단장 세습현황.” *뉴스앤조이*. 2018년 8월 20일자.
- 최재석. *한국 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1982.
- 최중현. *한국교회의 샤머니즘*. 서울: 성광문화사, 1999.
- 현용수. *성공집단 유대인의 인성교육 노하우*. 서울: 서로사랑, 2004.
- _____.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서울: 웨마, 2009.
- _____. *유대인 아버지의 4차원 영재교육*. 서울: 동아일보사, 2006.
- 홍영기. *카리스마 리더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1.
- _____. *한국초대형교회와 카리스마리더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2.
- 황성철. *한국교회, 21세기에든 부흥회가 필요한가?*. 서울: 총신대부설 한국교회연구소, 1998.

2. 번역 서적

- Andy Stanley, Bill Willits.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노스포인트 교회 전도전략* (*Creating Community: Five Keys to Building a Small Group Culture*). 이중순 역. 서울: 디모데, 2006.
- William Barclay. *성서주석 갈라디아서/에베소서* (*The Letters to the Galatians and Ephesians*). 서울: 기독교문사, 2009.
- Bill Hull. *목회자가 제자삼아야 교회가 산다* (*The Disciple-making church*). 박경환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4.
- Carl F. George.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김원주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7.
- Charles M. Sell. *가정사역* (*Family Ministry*). 정용섭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 Davis Watson. *제자도* (*Discipleship*). 문동학 역. 서울: 두란노, 2004.
- Eddie Gibbs. *넥스트 처치* (*Next Church: Quantum Changes in How We Do Ministry*). 임신희 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0.
- Howard A. Snyder. *교회 DNA* (*Decoding the Church: Mapping the DNA of Christ's Body*). 최형근 역. 서울: IVP, 2006.
- _____.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기계문명 시대에 있어서 교회의 구조는?* (*The Problem of Wine Skins: Church Structure in a Technological Age*).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6.
- Jack O. Balswick. *크리스천 가정* (*The Family: a Christian perspective on the contemporary home*). 황성철 역. 서울: 두란노, 1995.
- James F. White. *개신교예배* (*Protestant Worship: Traditions in Transition*). 김석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 J. J. von Allmen. *예배학원론* (*Worship: Its Theology and Practice*). 정용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 J. Williams. *결혼과 가정생활*. 김영배 역. 서울: 신망애출판사, 1988.
- Joseph C. Aldrich. *생활전도 (Lifestyle Evangelism: Learning to Open Your Life to Those Around You)*. 오정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 John F. MacArthur. *주님의 교회계획 (The Master's Plan for the Church)*. 최치남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3.
- John R. W. Stott. *살아있는 교회 (The Living Church: The Convictions of a Lifelong Pastor)*. 신현기 역. 서울: IVP, 2009.
- Kenneth Blanchard.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Whale Done!: The Power of Positive Relationships)*. 조천제 역. 서울: 21 세기북스, 2002.
- Mark L. Waltz. *감동이 있는 교회는 첫인상부터 다르다 (First Impressions: Creating Wow Experiences In Your Church)*. 서진희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 Neil Cole. *교회 3.0 (Church 3.0)*. 안정임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12.
- Nelson and Appel. *교회를 살리는 교회 개혁 (How To Change Your Church)*.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2.
- N. T. Wright. *예수와 하나님의 승리 (Jesus and the Victory of God)*.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4.
- Peter Wagner. *교회 성장의 장벽을 극복하라 (The Everychurch Guide to Growth: How Any Plateaued Church Can Grow)*. 오수현 역. 서울: 침탑, 2008.
- _____. *교회성장전략 (Strategies for Church Growth)*. 명성훈 역. 서울: 나단 1995.
- 플랫 주석 - 잠언(하) (The Pulpit Commentary The Book of Proverbs). 플랫주석번역위원회 역. 서울: 보문출판사, 1980.
- Rick Warren. *목적이 이끄는 양육 (Purpose Driven Curriculum)*. 서울: 국제 제자훈련원, 2006.
- _____. *새들백교회 이야기 (The Purpose Driven Church: Growth Without Compromising Your Message and Mission)*. 김현희 역. 서울: 디모데, 2008.
- S. Kierkegaard. *죽음에 이르는 병 (Die Krankheit zum Tode)*. 박환덕 역. 서울: 범우사, 1993.

T. B. Maston. *성서 그리고 현대가정 (The Bible and Family Relations)*. 이석철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1.

3. 외국 서적

Cambridge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3r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1544.

C. H. Kramer, *Becoming a Family Thrapist* (New York: Human Sciences Press, 1980), 43-44.

Davidson, Robert, M. A. *Wisdom and Worship*. London: SCM Press; Philadelphi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0.

Hodges, Randy T. *A Call to Worship*. Nashville: Beacon Hill Press. 1997.

Schalk, C. ed. *Key words in Music*. St. Lousia: Publishing House, 1978.

**Vita of
Won Hur**

1) Present Position:

Seminar Coordinator of Fuller Seminary KDMin Program, Pasadena

Associate Pastor of Los Angeles Hanmi Presbyterian Church, El Monte

2) Personal Data:

Birth Date: July 20, 1980

Marital Status: Married to Sangmi Park

With one child, Onyoo

Home Address: 261 N Madison Ave #110, Pasadena, CA, 91101

Denomination: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Hapdong)

Ordained: October 15, 2013

3) Education:

B. E. : Jeonju University, Jeonju, 2007

M.A. : Chongshin University, Seoul, 2009

M. Div. :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Seoul, 2012

D. Min.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9

4) Personal Experience:

05/2017 to present : Associate Pastor of Los Angeles Hanmi Presbyterian Church

03/2019 to present : Communications Assistant of Fuller Korean Studies Center

03/2017 to 02/2019 : Seminar Coordinator of Fuller KDMin Program

12/2010 to 02/2016 : Associate Pastor of Eden Church

01/2009-11/2010 : Associate Pastor of Kumkwang Church

03/2007 to 12/2008 : Staff of Unreached People Mission Alliance